

고위기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개입 매뉴얼: 비행 편

책임 연구자 : 차 주 환
이 창 호

공동 연구자 : 박 종 호
박 준 영
장 혜 미
손 지 아



청소년상담연구 212

고위기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개입 매뉴얼 : 비행편

인 쇄 : 2019년 12월

발 행 : 2019년 12월

발 행 인 : 이기순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7층~10층)

T. (051)662-3136 / F. (051)662-3005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신일디앤피

비매품

ISBN 978-89-8234-782-5 94330

ISBN 978-89-8234-001-7(세트)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간행사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은 최근 양적인 측면에서는 감소하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흉포화되고 있으며, 재 비행으로 인해 법적 조치를 받은 청소년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범죄 유형 중 절도와 폭력행위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비행청소년의 재 비행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검증된 상담개입 매뉴얼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절도와 폭력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재 비행예방과 상담개입 매뉴얼의 개발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하여 「비행청소년 상담프로그램 개발연구」, 「비행청소년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청소년 비행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청소년 비행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중단연구」, 「2018 비행완화(더드림) 프로그램 활용교육」을 개발해왔으며, 청소년의 비행 예방교육 및 상담개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비행청소년의 재 비행 예방에 초점을 맞춰 효과적인 집단 상담개입을 위한 구조화된 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비행 위기 청소년을 상담한 청소년상담자와 비행 경험이 있으며 상담을 통해 이를 극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개발하였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 개발된 청소년 재 비행 예방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심층면접에 참여해주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꿈세움 Wee센터 선생님과 청소년들 그리고 본 연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자문을 주신 학계 전문가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구를 위해 애써주신 공동연구자이신 박종효 교수님과 본원 연구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비행청소년 상담개입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비행청소년의 재 비행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12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이기순 이 기 순

초 록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흉포화, 전문화, 재범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 소년범(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의 수는 2008년 12만 6213명에서 2017년 7만 2759명으로 10년간 42.4%가 감소하였으나 범죄로 소년원에 수용되었다가 출원 후 1년 이내 재입원한 소년범의 비율은 2014년 9.5%에서 2016년 14.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법무연수원, 2019). 특히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유형 중 재산범은 2007년 33,659명(38.2%)에서 2016년에는 33,088명(43.5%)으로 5.3% 증가하였고, 절도범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약 70~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폭행·상해범의 비율은 90%를 넘어 이들 범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절도와 폭력으로 인해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재비행의 예방을 위한 집단상담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비행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기지각과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키고 공격성을 낮추기 위해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프로그램의 기획단계 및 구성단계에서는 비행청소년에 관한 문헌 및 프로그램들을 개관하고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비행 예방센터, Wee센터 등 청소년 전문기관에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현장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CYS-Net 종합상담시스템을 통해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여 비행청소년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비행청소년의 효과적인 상담개입을 위해서는 비행유형에 관계 없는 공통적인 요소를 다루면서 비행유형별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둘째, 비행청소년은 부모를 비롯한 가족요인과 또래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변의 지지자원을 극대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통한 개입 방안이 중요하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셋째, 비행청소년의 효과적인 상담접근방법으로는 인지·행동적 접근을 중심으로 참여자의 동기를 강화하는 접근과 해결 중심적 접근이 필요하고, 강의식이나 지필식이 아닌 활동중심의 참여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은 초기, 중기, 후기단계별 개입이 필요하며 상담자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둘째, 프로그램 개발단계에서는 기획단계의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목표 및 구성 원리를 도출한 후 프로그램 개발진의 회의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세부내용과 활동지 등을 구성하고 프로그램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상담 초기는 1회기에서 3회기에 해당되며, ‘라포형성,’ ‘상담구조화,’ ‘부정적인 감정 해소’ 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여, 비행청소년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형성이 잘 이뤄지기 위한 상담자의 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둘째, 중기단계는 4회기에서 7회기에 해당하며, ‘비행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 ‘정서조절,’ ‘대안행동 탐색’ 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여, 비행청소년의 자기 통제력을 키우고 친 사회기술을 증진하면서 대안행동을 학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후기 단계는 8회기에서 10회기에 해당하며, ‘긍정적인 삶의 태도,’ ‘진로 및 미래계획 강화’ 등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여, 비행청소년이 자신의 장점을 찾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을 높이면서 비행청소년 중 성공모델을 통해 진로탐색 및 미래계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호자 교육을 통해 집단상담의 성과를 공유하고 적절한 양육 및 의사소통방법을 안내하면서 마무리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총 10회기로 구성되었으며, 단계별로 상담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상담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회기별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도 무방하지만, 모듈형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인 법 교육 등과 함께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한 심리·사회적 개입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프로그램의 실행 및 평가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초안을 바탕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효과성을 평가하였으며, 전문가의 감수를 받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을 받은 비행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본 프로그램은 비행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기지각을 향상시키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비행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하위요인 중에서는 특히 충동성이 유의하게 낮아졌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비행청소년의 공격성 총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공격성의 하위요인 중 신체적 공격성과 적대감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또한 비행청소년 상담 경험이 있는 현장전문가 4명과 학계전문가 2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회기별 내용적합도, 단계별 내용적합도와 효과성을 평정한 결과, 5점 만점에 4점대의 긍정적 평가를 보여 개발된 프로그램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수정·보완사항이 확인되어, 이를 수정하여 최종 매뉴얼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발된 본 연구의 프로그램과 매뉴얼은 청소년 상담자가 비행청소년의 재범을 예방하고 심리·사회적응을 조력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다양한 비행행동 중에서도 절도와 폭력이라는 비행 유형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어 활용도 차원에서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향후 본 연구에서 드러난 한계점을 극복하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엄격한 연구 설계를 적용하여 많은 비행청소년에게 적용해본 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

I.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 2. 연구과제 5

II. 이론적 배경 | 6

- 1. 청소년 비행에 대한 이해 6
 - 가. 청소년 비행의 정의 6
 - 나. 청소년 비행의 현황 7
 - 다. 청소년 폭력·절도 비행의 특성 10
 - 라. 청소년 비행의 조치 12
- 2.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13
 - 가. 생물학적 이론 13
 - 나. 심리학적 이론 14
 - 다. 사회학적 이론 15
- 3. 청소년의 비행이 미치는 영향 18
 - 가. 청소년 비행의 결과 18
 - 나. 청소년 비행의 위험요인 19
 - 다. 청소년 비행의 보호요인 21
- 4. 청소년 비행 상담개입방법 25
 - 가. 국내 청소년 비행 집단상담 프로그램 현황 25
 - 나. 국외 청소년 비행관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현황 30

III. 연구 방법 | 39

- 1. 프로그램 개발 39
 - 가. 프로그램 개발 절차 39
 - 나. 프로그램 개발 과정 39
- 2. 현장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뷰 42
 - 가. 프로그램 대상 42
 - 나. 질문지 구성 43
 - 다. 실시절차 및 분석방법 43

라. 분석결과	44
마. 분석결과 요약	54
3. 비행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56
가. 면접 참여자	56
나. 자료수집 및 분석	57
다. 비행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결과	57
4. 프로그램 구성	61
가.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원리	61
나. 프로그램 내용	64

IV. 연구 결과 | 68

1. 시범운영	68
가. 연구대상	68
나. 측정도구	69
다. 연구결과	70
2. 현장전문가 자문	74
가. 현장전문가 자문 참여자	74
나. 평가 도구	74
다. 비행청소년 상담개입 프로그램 평가 및 자문	74
3. 전문가 감수	77
가. 전문가 감수 참여자	77
나. 평가 도구	78
다. 비행청소년 상담개입 프로그램 평가 및 감수	78
4. 비행청소년 상담개입 프로그램 최종 매뉴얼 구성	81

V. 논 의 | 85

참고문헌 | 90

부록 | 104

1. 현장전문가 대상 인터뷰 질문지	105
2. 비행청소년 대상 인터뷰 질문지	108
3. 비행청소년 대상 시범운영 효과성 설문지	110
4. 비행청소년 상담개입 프로그램 전문가 자문 및 감수 질문지	115

Abstract | 118

표 목차

표 1. 전체범죄인원 중 청소년 범죄 인원 비율	7
표 2. 청소년 범죄 유형별 현황	8
표 3. 청소년 범죄 연령별 현황	9
표 4. 청소년 비행의 위험요인	21
표 5. 청소년 비행의 보호요인	24
표 6. 국내 집단상담 프로그램 현황	26
표 7. 현장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뷰 참여자	42
표 8. 심층인터뷰 질문지의 구성 및 내용	43
표 9. 현장전문가 심층 인터뷰 결과	48
표 10. 참여자의 배경 정보	57
표 11. 비행청소년 집단상담 개입 매뉴얼 전체 개요	64
표 12.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 설계	68
표 13. 시범운영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69
표 14. 사전-사후 긍정적 자기지각 전체 총점에 대한 비 모수 대응표본 t검증	71
표 15. 사전-사후 자기통제력 전체 총점에 대한 비 모수 대응표본 t검증	71
표 16. 사전-사후 자기통제력 하위요인에 대한 비 모수 대응표본 t검증	72
표 17. 사전-사후 공격성 전체 총점에 대한 비 모수 대응표본 t검증	73
표 18. 공격성 하위요인 비모수 대응표본 t검증	73
표 19. 현장전문가 자문 참여자	74
표 20. 현장전문가 자문 결과	75
표 21. 전문가 감수 참여자	77
표 22. 전문가 감수 결과	78
표 23. 비행청소년 집단상담 개입 최종 매뉴얼 전체 개요	82

그림 목차

그림 1. 2016년 범죄유형별 청소년 범죄 현황	8
그림 2.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	12
그림 3. 비행 청소년 집단상담 개입프로그램 개발	41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청소년 비행(juvenile delinquency)은 살인, 강도, 강간 등과 같은 강력범죄에서부터 흡연, 음주와 같은 경미한 일탈행동에 이르기까지 무척 다양한 행동을 의미한다(Weiner, 1982). 예를 들어 청소년 비행은 단순히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도덕적 규범을 어기거나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부적응 행위를 포함한다(함종환, 1982).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비행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소년법 제4조 제1항에서 “소년비행이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촉법행위 및 10세 이상의 우범행위이라고 하는 세 종류의 행위 또는 행상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이수정, 이인희, 2005).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 비행이란, 직접적인 범법행위 뿐 아니라 장래에 법을 위반한 우려를 보이고 사회의 규범이나 가치체계를 위반하는 모든 일탈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흉포화, 전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송주영, 한영선, 2014). 지난 10년간 전체 범죄자 대비 소년범죄자의 구성 비율을 보면, 2007년에는 4.4%에서 2008년 5.5%를 차지하여 최고치를 나타냈다. 비록 2009년부터는 감소하고 있지만, 실제 청소년 범죄발생 수가 줄었다기보다는 2008년 개정 「소년법」 시행으로 소년법의 범위에서 19세가 제외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여성가족부, 2017).

그리고 2016년 청소년 범죄의 유형별 분포상황을 살펴보면, 재산범죄가 33,088명(43.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폭력범죄가 19,476명(25.6%), 교통사범이 9,259명(12.2%), 강력범죄가 3,343명(4.4%), 저작권법 위반사항이 146명(0.2%) 순이었다(대검찰청, 2018). 재산범죄가 2007년에 33,659명(38.2%)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33,088명(43.5%)으로 5.3% 증가하였고, 특히 재산범 중 절도범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약 70~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범 중 폭행·상해범의 비율은 90%를 넘는 17,977명으로 나타나 이들 범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오늘날 청소년의 비행 문제가 더욱 심각성을 갖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초기의 가벼운

비행이 재비행이 되고, 수년간 지속되어 비행청소년들이 성인기에 범죄자의 길로 들어설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Moffitt, 1993a).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청소년 재범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체 청소년비행 중 일회성범죄가 80% 가량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재범의 경우는 20% 내외에 불과하였다(이순례, 2005). 그러나 최근 재범청소년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여 4범 이상은 2007년 6.9%에서 2016년 13.6%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여성가족부, 2017), 청소년이 비록 비행을 저질렀다고 하였다더라도 다시 일상적인 청소년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졌다. 무엇보다도 재범 청소년은 같은 청소년의 반복된 비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관용하기가 쉽지 않으며, 해당청소년의 성장기에 필수적인 교육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다. 부모들의 입장에서 더 이상 개선의 기대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의 보호로부터도 멀어지게 된다(Liska & Reed, 1985). 이러한 경험은 재범 청소년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다더라도 적절한 사회화의 부재로 인하여 좋은 직장을 갖거나 원만한 사회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어 성인 범죄자로 전락할 가능성을 높게 한다(Steiner, Cauffman, & Duxbury, 1999). 이와 같이 한번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뉘우쳐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은 비행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청소년에 관한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이란,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과 일상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가정·학교·사회생활에 복귀·적응하는데 돕기 위한 상담·교육·자원봉사·수련·체육·단체활동 등의 방법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에서 2018년 12월 다소 모호하게 표현되었던 ‘교육적 선도’는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제도의 신청주체, 지원주체, 대상범위, 대상자 선정, 선도방법, 선도기간 등으로 명확하게 변경되었다. 이는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재범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법률로 명문화 한 것으로, 이러한 시점에서 청소년 비행유형 중 폭력과 절도와 같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개입프로그램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재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반항적인 성향, 낮은 충동자제력, 역기능적 문제해결능력, 부모의 보호 및 지도의 부재, 학업성취 및 학교복학 후 적응의 실패 등 개인적, 가정적, 학교 환경적 측면에서 여러 위험요인이 누적되어 사회적응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친다(김효정, 2005). 이렇게 취약한 환경에 놓인 비행청소년에게 보호요인

은 긍정적인 행동의 증진을 통해 개인의 적응능력이 유연해짐으로써 위험요인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줄이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Kirby & Fraser, 1997). 유성경(1999)은 청소년 비행과 관련하여 보호요인으로 자기정체감, 사회적 능력과 같은 개인요인,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같은 가족요인, 학습에의 긍정적인 가치와 책임, 학교요인을 꼽았다. Bogenschneider(1996)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책임감을 개인요인으로 제시하였고, 박현선(1998)은 내적통제소재, 유능감, 대인관계기술을 개인요인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Carr(1999)은 청소년의 비행 또는 품행의 문제를 제어하는 보호요인을 개인적 요인과 맥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개인적 보호 요인으로 높은 지능과 문제해결력, 유순한 성격, 높은 자아존중감, 내적 통제소재, 높은 자아효능감과 같은 적응적인 신념, 신체적인 건강, 낙관적인 귀인양식, 성숙한 방어기제, 기능적 대처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맥락적 보호요인으로는 치료체제요인, 가족체제요인, 부모요인, 사회체제요인으로 세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치료체제요인으로는 가족이 문제가 있음을 받아들이고, 가족이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가족이 유사한 문제에 대처한 경험이 있으며, 가족이 치료를 공식화하고 치료 계획을 수용하여 관련 전문가 간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족체제요인에는 안전한 부모-아동 애착, 권위 있는 양육, 분명한 가족의사소통, 유연한 가족조직화, 부모의 개입, 높은 부부만족도가 포함된다. 부모요인으로는 부모의 건강한 적응, 비행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정확한 기대, 부모의 내적 귀인, 부모의 높은 자기 효능감, 부모의 높은 자아존중감, 관계에 대한 안전한 내면적 작동모델, 낙천적 귀인양식, 성숙한 방어기제를 들 수 있다. 사회체제요인으로는 좋은 사회지지망, 낮은 가족 스트레스, 긍정적인 교육적 배치,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이 등, 1996).

한편, 비행청소년들에게 집단상담은 사회적 낙인, 절망감 등을 나눌 수 있고, 자신 외에 다른 비행 청소년들과 비슷한 환경이나 같은 문제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안도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무가치감과 수치심을 줄여 주기 때문에 치료적이다(천성문, 김명권, 1996).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공격성과 분노를 조절하는 훈련(김정임, 2003; 김희진, 2004; 엄윤미, 2006; 이상하, 2009; 장호정, 2001; 정운정, 2010; 최연숙, 2002), 약물 남용이나 흡연 등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훈련(곽영주, 2005; 김효정, 2005; 민경애, 2009; 박은경, 2011), 사회적응을 위한 진로탐색(류정임, 2004; 백노현, 2003; 전상목, 2005; 최희경, 2007) 등이 있다. 이 밖에

도 대화기술, 자기통제기술, 갈등해결기술, 친사회적 행동기술, 도덕적 능력 등에 초점을 둔 구조화된 집단상담 프로그램(국영희, 2008; 박승희, 2006; 양승남, 2003; 이광숙, 2003; 이수연, 2006; 이은진, 2003; 이정선, 2010; 정경희, 2005), 심리극(소용주, 2003; 주혜연, 2003; 최연숙, 2002)과 자기이해와 성장에 초점을 둔 미술치료프로그램(김정임, 2003; 엄윤미, 2006; 팽은경, 2002), 음악치료프로그램(나미숙, 2002) 등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이나 저지른 비행의 유형을 고려하여 법적 제재와 사회적 낙인을 부여받으면서 얻게 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여 학교나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입하였다. 그리고 가족 내에서도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는 개입전략을 활용하였다.

또한 배주미 외(2007)는 비행청소년을 위한 회복적 보호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 메타분석 결과, 보호관찰 대상자인 경우에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현실상담, REBT 상담, 의미치료, 사회적 능력 증진 프로그램이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년원 수용생인 경우 해결중심 단기집단 상담이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 비행 및 가출 청소년의 경우, 대상관계이론, 자기성장 프로그램, 분노대처훈련이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로 다른 이론적 접근의 경우에도 유사한 효과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규정하고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연구자 또는 프로그램 계획자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이 원하는 행동변화의 목표를 직접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특정한 이론과 접근법의 효과성을 검증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비행 청소년의 예방적·회복적 지원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집단상담 개입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비행청소년 전문가의 심층인터뷰와 비행청소년의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하여, 폭력 및 절도 관련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듈식 집단상담 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이라는 공통된 특성에 맞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비행의 유형에 따른 차별적 개입전략이 부족하였다. 즉, 같은 비행청소년이라고 해도 비행의 유형에 따라 집단상담 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 내용, 기술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폭력 및 절도 관련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범 방지와 적응을 목적으로 국내·외에서

시행된 제도나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현장전문가 및 비행청소년 면접을 통해 비행 유형별 청소년 특성을 도출하고 이에 적합한 집단상담 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과제

첫째, 비행 청소년(폭력, 절도)에게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담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상담개입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비행에 대한 이해

가. 청소년 비행의 정의

비행(Delinquency)의 개념은 최근 법률적으로 규정되면서 주로 성인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며, 청소년들에게 국한해서 사용해 왔다(유경아, 2017). 좁은 의미에서 비행은 청소년 범죄를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는 사회규범에서 벗어난 일탈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이 경우 시대, 국가, 사회, 문화 등에 따라 사회규범으로부터 일탈하는 행위가 다르고 시대와 문화에 따라 범죄행동에 대한 규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명확히 정하기는 어렵다(김자경, 손정락, 2007). 그래서 청소년 비행은 연령 또는 침해행위의 특성 등에 따라서 다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념정립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 소년법에서는 원래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7년 개정되어 청소년 비행의 대상을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은 우범행위, 촉법행위, 범죄행위들로 구분하여 각각 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불린다(장휘숙, 2012). 먼저, 우범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형사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부모나 보호자의 지시나 감독을 무시하고 가까운 미래에 형사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을 뜻한다. 둘째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형사법령을 위반을 하였지만, 형사책임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하며, 우범소년과 같이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장래에 대상 청소년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나 비행 행동을 처리하고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범죄소년은 형사법령을 위반하였으며, 형사책임을 가지고 있는 소년범인을 말하며, 이들은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모두가 가능하다(김준호 외, 2018). 우범소년과 촉법소년, 범죄소년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범소년은 형벌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성인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지위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으로 볼 수 있으며, 나머지 촉법과 범죄소년은 형벌법령을 위반하였지만, 성인범죄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연령에 있어서만 차이가 나타나며, 범죄 자체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지 않다(노인경, 정송, 홍세희, 2014).

그리고 사회학적 의미에서는 청소년 비행 행동은 크게 세 가지 행위 군으로 범주화시킬 수 있다. 첫째, 청소년들에게 범해지는 형법을 위반하는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와 주거침입, 절도 같은 재산범죄를 포함하는 중한 비행이다. 둘째, 중 비행보다는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경미한 형법위반 행위, 셋째, 음주, 흡연 반항 등 성인이 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일탈행동으로 간주되는 지위비행이다(김준호 외, 2014).

이에 본 연구에서 비행청소년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형법에 위배된 범죄소년 중 그 행위가 경하여 보호처분 1호에서 6호를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 청소년 비행의 현황

최근 우리나라의 청소년 비행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죄질 역시 저연령화, 흉포화, 조직화 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비행의 심각성은 청소년 비행이 이미 청소년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최응렬, 공태명, 2011). 2016년 전체 범죄자 중 소년범죄자 비율은 3.8%를 차지하였으며, 청소년 범죄 발생 중 재산범죄가 33,088명(43.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폭력범죄 19,476명(25.6%)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산범죄 중 절도범죄의 비율이 약 70~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생계형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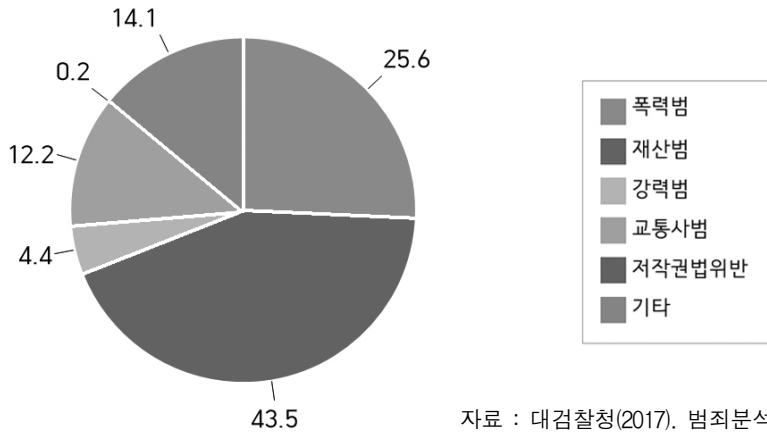
표 1. 전체범죄인원 중 청소년 범죄 인원 비율

연도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범죄자	1,989,862	2,472,897	2,519,237	1,954,331	1,907,641	2,117,737	2,147,250	1,879,548	1,948,966	2,020,196
소년 범죄자	88,104	134,992	113,022	89,776	83,068	107,490	91,633	77,594	71,035	76,000
구성비	4.4	5.5	4.5	4.6	4.4	5.1	4.3	4.1	3.6	3.8

주: 2009년 이후 「소년법」 개정에 따라 소년범죄자의 기준은 '만 19세 미만자'임.

자료: 대검찰청[2008~2017] 범죄분석.

(단위 : %)



자료 : 대검찰청(2017). 범죄분석

그림 1. 2016년 범죄유형별 청소년 범죄 현황

또한 강력범죄 중 강간, 성폭력 등과 같은 성범죄가 대폭 증가하여 성인범죄 못지않게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범죄자 대비 소년범죄자의 비율이 3.8%에 불과한 반면에, 전체 강력범죄자 중 소년강력범자가 33,529명 중 소년강력범죄자가 3,343명으로 약 10%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년강력범죄자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7).

표 2. 청소년 범죄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88,104	134,992	113,022	89,776	83,068	107,490	91,633	77,594	71,035	76,000
강력범	소 계	1,928	3,016	3,182	3,106	3,289	2,790	2,521	3,158	2,713	3,343
	홍약범	1,094	1,427	1,608	999	1,268	1,104	786	594	506	483
	성폭력	834	1,589	1,574	2,107	2,021	1,686	1,735	2,564	2,207	2,860
폭력범	소 계	23,275	34,067	29,488	23,276	22,233	32,774	22,119	19,352	17,473	19,476
	공갈	562	1,046	1,495	1,422	1,509	2,827	1,127	1,974	1,285	1,499
	폭행, 상해 등	22,713	33,021	27,993	21,854	20,724	29,947	20,992	17,378	16,186	17,977
재산범	소 계	33,659	39,688	45,774	40,478	37,978	47,605	45,735	36,271	32,068	33,088
	절도	28,839	33,073	38,494	33,534	31,380	37,256	33,029	26,047	21,170	22,534
	횡령 등	1,167	1,855	1,664	1,483	1,528	2,448	2,549	2,143	2,253	2,481

구분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장물		271	571	820	722	454	1,200	1,498	830	801
사기		3,382	4,189	4,796	4,739	4,616	6,701	8,600	7,251	7,844	7,482
교통사범		21,893	27,666	18,138	13,842	11,530	12,103	9,845	9,216	8,567	9,259
저작권법 위반		2,338	20,272	7,720	275	318	759	446	249	260	146
기타		5,011	10,283	8,720	8,799	7,727	11,459	10,967	9,348	9,954	10,688

주: 1) 흉악범 : 살인, 강도, 방화
 2) 폭행·상해 등: 폭행·상해의 죄 + 폭력행위처벌법(공갈죄 제외) + 기타
 3) 횡령 등 : 횡령 + 배임 + 손괴
 4) 교통사범 : 도로교통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특정범죄가중법[도주차량]
 자료 : 대검찰청[2008~2017]. 범죄분석.

표 3. 청소년 범죄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연령 연도	계	14세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07	88,104 (100.0)	578 (0.7)	10,884 (12.4)	18,081 (20.5)	17,306 (19.6)	14,539 (16.5)	13,603 (15.4)	13,113 (14.9)
2008	134,992 (100.0)	3,800 (2.8)	16,638 (12.3)	26,385 (19.5)	26,932 (20.0)	21,784 (16.1)	20,808 (15.4)	18,645 (13.9)
2009	113,022 (100.0)	1,989 (1.8)	15,431 (13.7)	24,657 (21.8)	26,153 (23.1)	23,307 (20.6)	21,485 (19.0)	-
2010	89,776 (100.0)	445 (0.4)	8,870 (9.9)	19,280 (21.5)	21,611 (24.1)	19,637 (21.9)	19,933 (22.2)	-
2011	83,068 (100.0)	360 (0.4)	5,189 (6.2)	17,084 (20.6)	21,815 (26.3)	19,936 (24.0)	18,684 (22.5)	-
2012	107,490 (100.0)	856 (0.8)	12,978 (12.1)	21,009 (19.5)	26,080 (24.3)	24,140 (22.5)	22,427 (20.9)	-
2013	91,633 (100.0)	471 (0.5)	11,338 (12.4)	16,645 (18.2)	20,463 (22.3)	21,208 (23.1)	21,508 (23.5)	-
2014	77,594 (100.0)	37 (0.0)	9,712 (12.5)	14,041 (18.1)	16,940 (21.8)	17,517 (22.6)	19,347 (24.9)	-
2015	71,035 (100.0)	64 (0.1)	7 (0.0)	14,387 (20.2)	17,624 (24.8)	18,231 (25.7)	20,772 (29.2)	-
2016	76,000 (100.0)	84 (0.1)	7,530 (9.9)	13,789 (18.1)	17,589 (23.1)	17,607 (23.1)	19,401 (25.7)	-

주 : 2008년 6월 개정 「소년법」 시행으로 소년범죄 연령기준이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됨.
 자료 : 대검찰청[2008~2017]. 범죄분석.

한편, 2016년 전체 소년범의 연령을 보면 18세 소년범이 19,401명(25.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 17세 23.1%, 16세 23.1%, 15세 18.1%, 14세 9.9%, 14세 미만 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14세 저연령 소년범의 비율이 증가한 반면에, 17세~18세 소년범의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다. 특히, 4범 이상 소년범의 비율은 2007년 6.9%에서 2016년 13.6%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소년범죄의 상습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향후 재범률이 높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정교육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청소년백서, 2017).

다. 청소년 폭력·절도 비행의 특성

일반적으로 비행 청소년들의 특성은 인지능력 결여, 미흡한 조망 채택능력, 쾌락원리의 지배, 낮은 자아 존중감, 부족한 대인관계 능력 등을 꼽는다(원호택, 1991, 이창호, 양미진, 이희우, 이은경, 2005). 또한 비행 청소년들은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고, 스트레스나 문제해결능력이 떨어지며, 부모의 열망과 기대로 유발된 내적 긴장감은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준호, 이동원, 1997; 이숙영, 이재구, 박승민, 최은영, 1996). 즉, 비행 청소년들은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대처하지 못하고 매우 충동적으로 반응을 하며, 상황을 적대적으로 해석한 결과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비행 청소년의 재비행과 관련한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항성(Arthur 외, 1997; Butcher, 2000), 반사회적 성향(권지은, 1998; 양종국, 김충기, 2002; 유성경, 2000; Arthur 외, 1997; Butcher, 2000), 우울(권지은, 1998; 박현선, 1998; 양종국, 김충기, 2002; 유성경, 2000; Arthur 외, 1997), 공격성(권지은, 1998; 유성경, 2000; Butcher, 2000), 충동성(권지은, 1998; 박현선, 1998; Arthur 외, 1997), 불안(권지은, 1998; 유성경, 2000), 학업실패(Butcher, 2000), 스트레스가 되는 생활사건(양종국, 김충기, 2002; Butcher, 2000), 문제행동의 조기시작(유성경, 2000; Arthur 외, 1997; Butcher, 2000), 약물, 알코올 및 성적(性的)행동과 관련된 호의적인 태도(Butcher, 2000)가 재비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폭력과 절도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1) 청소년 폭력 비행의 특성

청소년 폭력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비행문제이다. 청소년

년 폭력 비행은 성적가해, 언어가해, 따돌림, 괴롭힘, 신체적 폭행,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일어난다(손재환 외, 2013). 이런 청소년 폭력 비행은 개인적인 변인과 더불어 환경적인 변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개인 변인으로는 공격성, 분노, 자기통제, 우울, 자기존중, 타인 공감에 청소년 폭력 비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변인으로는 가족환경에서 부모와의 관계, 가족 내 갈등, 부모감독과 관련이 있었으며, 학교환경에서 교사와 관계, 학교생활만족도가 관련이 있었다. 또래환경에서 또래관계, 비행친구수가 관련이 있었다(김동민 외, 2014). 이러한 특성은 청소년 폭력에 개입을 할 때 공격성, 우울, 타인 공감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함께 가족관계, 학교생활, 또래관계 등 환경적 요인에도 개입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 청소년 절도 비행의 특성

청소년 절도 비행은 청소년 비행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비행 문제이며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다. 청소년 절도 비행도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 절도와 관련된 개인 변인으로 낮은 자존감, 남성성, 도덕성, 욕구통제력 부족, 모험심, 우울이 절도 비행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정신장애, 신경학적 손상 변인은 병리적 도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변인으로는 가족환경에서 부모감독, 양육방식,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관련이 있었다. 학교환경에서는 학교에 대한 태도, 학업성적, 교사에 대한 감정, 교사의 태도, 결석 횟수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환경에서는 절도행동과 관련하여 또래들의 지지와 인정이 있는 경우 절도비행과 관련이 높게 나타났다(이동훈 외, 2011). 이러한 절도 비행의 특성은 절도 비행 문제 개입 시 욕구통제력 부족, 도덕성, 충동성 등 개인의 심리적 변인과 부모와의 관계, 또래집단의 영향을 고려하는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행청소년은 자신의 존재나 가치에 대해 의미부여가 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성향이 크며, 욕구 충족이 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 상황에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반사회적 성향, 낮은 자존감과 자기조절능력, 부족한 사회기술과 대인관계능력, 미흡한 조망채택능력과 인지능력 결여, 부족한 현실지각능력 등의 특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는 비행을 저지른 모든 청소년이 이와 같은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라. 청소년 비행의 조치

소년보호 사건의 대상은 범죄의 유형에 따라 나뉘게 된다. 먼저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 중 벌금형 이하 또는 보호처분 대상 소년이 해당되며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해당된다. 우범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중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유해환경을 접하는 소년이 해당된다(법무연수원, 2015).

소년보호 사건의 처리절차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경찰, 검찰, 형사법원, 보호자, 학교, 복리시설의 장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경찰은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선도하거나 직접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검찰과 형사법원은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등을 소년부에 송치한다. 보호자·학교 또는 복리시설의 장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하였을 때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법원 소년부는 접수된 소년보호 사건에 대해 1호~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리며, 보호처분은 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 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보호사건 대상자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처분으로 형사처분과 다르게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법무연수원,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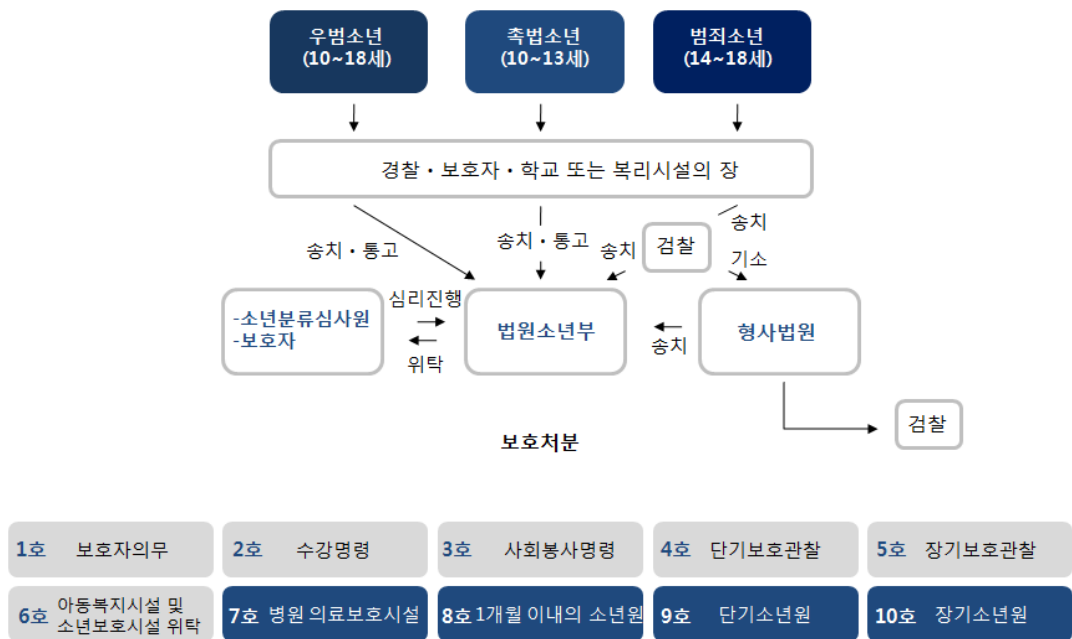


그림 2.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9)

2.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크게 생물학적 이론, 심리학적 이론, 사회학적 이론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가. 생물학적 이론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생물학적 이론(Biological theories)에서는 유전적 영향력, 신경내분비계의 이상이나 뇌신경계의 기능장애, 각성이론, 신경심리학적 결핍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유전적 이론(Genetic theory)에서는 대표적으로 쌍생아 연구를 통해 범죄행동의 유전성을 주장한다. Lange(1930)는 수감 경험이 있는 남자 일란성 쌍생아와 이란성 쌍생아 형제들의 범죄 경력을 조사한 결과, 일란성 쌍생아의 약 80%는 범죄경력이 있는 형제가 있고, 이란성 쌍생아는 12%의 범죄경력이 있는 형제가 있어 범죄성의 일치가 일란성 쌍생아가 이란성 쌍생아에 비해 6.4배가 높다고 하였다. Hutchings와 Mednick(1977)은 입양아연구에서 생부모가 전과자인 경우 입양아가 범죄자가 된 경우가 많으며, 양부모와 생부모의 범죄성간에는 상호작용효과가 있어 양부모와 생부모가 모두 범죄자인 경우 입양아가 범죄자가 될 확률이 가장 높지만, 생부모의 영향이 양부모의 영향보다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 연구는 청소년기의 공격성이 유전과 밀접한 관련(Bolton, & Holland, 1994)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호르몬 이론(Hormonal theory)에서는 공격성의 소인을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수준을 조절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밝혔고, 중앙신경체계의 화학적, 호르몬 활동에 있어서의 부조화나 분노, 적대감, 그리고 공격성의 분출을 경험하도록 유도하는 뇌신경계의 결함이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Fishbein et al., 1989). 또한 여러 나라에서 자료를 비교 검토한 연구에서도 뇌신경계의 결함과 반사회적 행동 사이의 관계에서 관련성이 드러났다(Sequin et al., 1995). 각성이론(Arousal theory)에서는 선천적으로 낮은 각성 수준으로 인해 긍정적 재강화와 부정적 재강화에 대한 반응성이 정상 아동들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한다(Chamberlain, 1994; Patterson, Reid, & Dishion, 1992). 또한 신경심리학적 결핍이론(Neuropsychological deficit theory)에서는 구두 추론과 수행 기능에서의 신경심리학적 기반의 결핍이 자기조절을 어렵게 만들어 문제행동에 기여한다(Moffit, 1993b; Shapiro, & Hynd, 1995)고 보았다. 이는 학습부진으로 이어져 좌절감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생물학적 이론과 청소년기 비행사이의 관계에서 대해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신체변화와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것이다. 청소년기 발달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테스토스테론은 남성화시키기 위한 호르몬일 뿐만 아니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으로 보고되어왔다(Ramires, 2003). 그리고 이러한 테스토스테론은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과 같은 긍정적인 발달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Nottelman et al., 1987). 그러나 청소년은 신체적으로는 성인과 유사할 정도로 발달이 나타나지만, 사회적으로는 성인에 속하지 못한 주변인으로 오히려 아동의 대우 받는 이중적인 모습에서 비행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나. 심리학적 이론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서 찾는 심리학적 이론에는 첫째, 정신역동적 이론(Psychodynamic theories)이 있으며, 하위이론으로는 초자아 결핍이론(superego deficit theory),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이 있다. 정신역동적 이론 중 초자아 결핍이론가들은 보호자의 과도한 방임이나 무관심한 양육으로 인해 반사회적 행동이 일어난다고 가정한다며(Aichorn, 1935). 즉, 과도한 방임적 양육 조건의 아동들은 느슨한 도덕 기준을 내면화하고, 가혹하거나 무관심한 양육조건의 아동들은 관계 내에서의 공격성 또는 무관심을 내면화한다. 또한 애착이론에서는 출생 초기에 상당한 기간 동안 보호자로부터 분리된 아동들은 안정적 애착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결국 이후의 삶에서 도덕적인 사회적 교류의 지침이 될 내적 작용 모델을 형성시키지 못한다(Bowlby, 1944)고 보았다.

둘째, 인지이론(Cognitive theories)에서는 사회적 정보처리이론(Social information-processing theory), 사회 기술결핍 이론(Social skills deficit theory)이 포함된다. 사회정보처리이론가들은 행동 장애 아동들이 타인들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보복적 공격성으로 반응하는 것(Crick, & Dodge, 1994)으로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행동에 대한 주변의 반응을 통해 공격적인 편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기술 결핍이론에서는 행동 장애 아동들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 개발 및 그 실행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들은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공격성을 이용한다(Spivack, & Shure, 1982)고 보았다.

셋째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ies)에는 모델링 이론(Modelling theory), 강압적 가족과정 이론(Coercive family process theory)이 포함되며, 모델링 이론에서는 부모나 상위 형제가 보이는 행동의 모방이나 모델링의 과정을 통해 공격성이 학습되며(Bandura,

& Walters, 1959), 강압적 가족과정이론에서는 행동 장애 아동들은 부모와의 교류에서 강압적 패턴에 관계하는 반사회적 행동들을 학습한다(Farrington, 1995)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체계이론(Systems theories)에는 구조적 가족체계 이론(Structural family systems theory), 사회학 이론(Sociological theory), 다중체계생태 이론(Multisystemic ecological theory)이 포함된다. 구조적 가족 체계이론에서는 문제행동은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기술, 분명한 규칙, 역할, 일상적 과정, 명확한 영역과 계층 구조, 자녀의 성인기 진입과 같은 일생주기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환경이 부족한 가족 해체 환경에서 발생한다(Alexander, & Parsons, 1982; Barton, & Alexander, 1981; Olapinto, 1991)고 보았다. 또한 사회학 이론에서는 사회적으로 혜택 받지 못한 하위문화에서는 절도 및 기타 반사회적 행동들이 주류 문화에 의해 가치를 부여받는 물질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불법적 수단으로 발생되기에(Chamberlain, 1994), 비행청소년이나 그 또래 집단에게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다중체계이론에서 청소년의 행동 장애가 개인적 요인들(공격적 귀인 편향성, 빈약한 사회 기술, 경험을 통한 사회적 기술 학습의 어려움, 학습 장애), 가족 요인들(참여적 부모-자녀 애착과 훈육 문제, 부모의 불화나 이혼), 학교 요인들(낮은 성적), 의사소통 요인들(일탈 또래들과의 교류와 약물 남용)에 의해 유지된다(Borduin et al., 1995; Henggeler, & Borduin, 1990)고 보았다. 이처럼 각각의 이론들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은 성격, 인지, 가정, 사회, 다중체계생태환경 등의 여러 요인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사회학적 이론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개인에 대한 사회의 영향력에서 찾는 사회학적 이론에는 첫째 일반이론이 있다.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일반이론에서는 비행이나 모든 범죄가 순간욕구에 의해 우발적이고도 즉각적이고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하여, 순간 만족과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자기 통제력이 비행을 설명하는 유일한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다(진혜민, 배성우, 2017). Gottfredson과 Hirschi는 자아통제력의 형성과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먼저 자아통제력의 형성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방식은 결정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부모의 감독이 소홀하거나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부모의 제재가 없거나 무계획적으로 양육되었을 경우, 자아통제력은 저하되며 10세~12세 이전의 어린 나이에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한번 형성된 자아통제력은 그 사람의 일생동안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Polakowski(1994)는 자아통제력의 수준이 한 사람의 일생동안에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Polakowski의 연구는 시계열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자아통제력 수준을 10세, 14세, 16세, 18세, 21세, 24세 모두 6회에 걸쳐 14년간 측정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6회에 걸친 자아통제력간의 상관계수는 .60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Polakowski의 연구는 Gottfredson과 Hirschi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어렸을 때에 형성된 자아통제력은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아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충동적이고, 정신적인 활동을 싫어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문제를 대화로서 해결하기보다 힘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크다. 또한 본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인내하고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성향의 사람은 힘들이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 즉 절도, 사기, 횡령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며, Polakowski의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아통제력은 그 사람의 생애에 대체로 변하지 않고 어렸을 때의 상태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자아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개인성향의 이러한 불변성으로 인하여 단순히 한 번의 범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범과 같은 지속적인 범죄에 빠져들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사회통제이론이 있다. Hirschi(1969)의 사회통제이론에서는 인간은 ‘자기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가정 하에 누구나가 범죄를 저지를 본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본성을 억제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유대와 같은 사회통제기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Lee, 1993). 즉, 인간이 범죄를 예방하는데 사회적 유대의 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적·개인적 통제로 억제되지 않으면 범죄는 당연히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한다(Agnew, 1985).

사회통제이론가들이 비행지속현상과 관련하여 우려했던 사항은 비행을 저지르면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어 그 사람의 차후 비행가능성을 증대시킨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어떤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면 부모는 청소년에 대해서 애정을 갖기 어렵고 기대감도 잃게 된다. 즉 청소년과 부모의 정서적 유대(attachment)가 약화되기 때문에 청소년은 그만큼 재범과 같은 지속적 비행에 쉽게 빠져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Agnew(1985)가 비행을 저지른 이후의 사회적 유대를 조사했을 때에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유대감은 비행이전에 비해서 유의할 정도로 약화되었고, 이들의 차후비행은 약화된 사회적 유대에 의해 상당부분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차별접촉이론에서는 청소년들이 주변 사람들로 부터 비행관련 가치나 태도, 동

기를 학습하게 됨으로써 비행은 저지른다고 보고 있으며,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 비행 친구에 주목하고 있다(Akers, 1985). 즉, 청소년 범죄란 주위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범죄기술을 학습하고 강화함으로써 저질러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던 청소년도 주위 비행친구로부터 폭력이 나쁘지 않다는 가치나 싸우는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범죄지속현상과 관련하여 사회학습 이론가들이 우려했던 사항은 범죄를 저지르면 다른 범죄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이들로부터 범죄를 옹호하는 가치나 범죄기술을 더욱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었다(이경상, 이순례, 박철현, 2007). 따라서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수감되면 이들이 주로 상호작용하는 집단은 대부분 다른 범죄자들이 되고, 소년원 석방이 후에도 이들과 지속적인 교류관계를 가지게 되어 이들로부터 범죄가치를 학습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범죄지속가능성은 과거에 비해서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차별교제이론에서는 개인이 일련의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친비행적 정의를 학습하는 과정을 설명한다(변관우, 1992). 비행학습과정은 첫째, 친비행적인 정의에 대한 접촉단계와 둘째, 접촉한 친비행적 정의를 개인이 학습하는 단계 그리고 셋째로, 학습한 친비행적 정의를 실천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인 접촉 단계에서의 차별접촉대상은 보통 친구집단, 가족, 학교, 지역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 ‘정의’란 주어진 행위에 대해 개인이 부여하는 의미와 태도라고 할 수 있다(Akers, 1994). 개인은 ‘정의’ 과정을 통해 어떠한 행위가 옳거나 그른지, 선하거나 나쁜지,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지 도덕적이고 평가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세번째 단계인 실천단계에서는 학습한 비행정의를 실천하는 단계로서 비행정의를 내면화 하는데 그치지 않고 외부적으로 행동화 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정리하면, 차별접촉이론에서는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상호작용관계의 변화와 범죄가치나 범죄기술의 습득에 관심을 두었으며, 비행친구를 핵심적인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넷째, 낙인이론은 1960년대의 새로운 학문적 조류와 함께 변화한 범죄이론이다. 1960년대에는 범죄와 비행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주관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사회적 반응관점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이다. 기존의 범죄 연구들이 범죄의 원인에 관심을 가졌다면, 낙인이론은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미디어, 사회통제기구들의 역할과 이에 따르는 사회적 반응에 초점을 가졌다.

낙인이론에서 작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은 공식적인 처벌기관인 경찰이나 법원으로 부터 처벌을 받는 과정 가운데, 경찰이나 판사 및 교사로부터 ‘비행청소년’이라는 낙인을 받게 된다. 이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비행청소년이다’라는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이후 앞으로 해야 하는 행동을 형성할 때, 부정적인 자아개념이 역할형성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게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한 청소년은 그러한 역할이 축적되면, 성인범죄자로 전락하게 된다(Lemert, 1972). 최근에는 이러한 공식적 낙인의 설명력을 보완하는 비공식 낙인에 대한 주제가 흥미롭게 탐구되고 있다(이성식, 2006; 전해민, 박병선, 배병우, 2011; 최수형, 2007; Matuseda, 1992). 즉, 공식적인 기관의 처벌을 의미하는 기존의 낙인보다는 부모, 친구, 학교로부터 받는 비공식 낙인의 영향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한다(Adams, Robertson, Gray-Ray & Ray, 2003). 정리하면, 낙인이론가들은 주위사람들의 부정적 반응양태를 지속적 범죄행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3. 청소년의 비행이 미치는 영향

가. 청소년 비행의 결과

최근 청소년 비행은 집단폭행, 성범죄, 절도, 사기, 도박 등의 범죄행위로 이어지고 있으며 피해 청소년들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야기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 개인의 심리적인 부분과 미래의 진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대해 많은 연구들에서는 청소년 비행이 우울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곽금주, 문은영, 1993; 유성경, 이소래, 2001; 이순희, 허만세, 2015; Wu, & Anthony, 1999). 이순희와 허만세(2015)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우울과 비행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비행이 우울변화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비행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비행으로 인해 발생한 우울은 다시 비행으로 이어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 Beyers 와 Lober (2003)는 13세~17세 청소년 506명을 대상으로 비행과 우울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하였고, 비행과 우울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인과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최정아 (2010)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의 1~4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행과 우울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초기 우울은 이후 시점의 우울 및 비행에 영향을 미쳤고 초기 비행도 이후 시점의 비행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행과 우울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을 보면 비행으로 인해 우울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울이 비행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청소년기의 비행과 우울 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이 두 문제를 다루는 통합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기의 비행은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주며 무단결석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영희, 조아미, 2008; Eaton et al., 2008). 청소년들이 비행으로 인해 학교를 결석하게 되면 학업성취는 낮아지고 대학진학, 취업 등 진로에까지 영향을 미쳐 학교적응과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이성식, 전신현, 2009; 한은영, 이재원, 2013; McNeal, 1999).

특히, 청소년기의 비행은 성인이 된 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 Lewis 등(1991)의 연구에서는 범죄를 저질러 소년교정시설에 있었던 여자 청소년들의 성인이 된 후를 추적조사 하였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심하게 손상된 상태를 보였으며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살을 하거나 알코올, 약물에 중독이 되어 있었고 폭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청소년 비행이 우울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및 성인이 된 후의 사회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행의 부정적인 결과들은 다시 재범을 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입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나. 청소년 비행의 위험요인

위험요소는 한 개인이 평균적인 다른 사람들에 비해 발달상 문제를 일으킬만한 소지가 높아지도록 하는 특성 및 변인이다(Polland, Hawkins & Arthur, 1999). 위험요소란 부적응적인 발달산물과 관계되는 개인 또는 환경적인 특성들이다. 위험요소에는 특정 장애에 대한 유전적인 소인, 다루기 힘든 기질과 같은 개별적인 특성이 포함될 수 있고, 스트레스 정도가 큰 외상성의 생활사건이나 만성적인 빈곤, 역경과 같은 환경적 요인도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Compas, Hinden & Gerhardt, 1995).

이제까지의 연구들에서 밝혀진 위험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경험적 연구에 의해서 발견된 지역사회 차원의 위험요소로는 청소년 행동규준에 대한 법적·일반적 기대치, 지역사회의 경제적 수준, 유동성, 조직화된 정도, 약물의 이용가능성 등이다(유성경, 1999; Sampson, Raudenbush, & Earls, 1997). 학교 변인으로는 학교성적의 하락 및 부진, 학교교육에 대한 낮은 가치감, 학교 생활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교사들의 무관심 내지는 폭력 등이 발견되었다(유성경, 1999; Maguin & Loeber, 1996). 또래변인으로는 모든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노는 아이들” 과 어울리는 것이 지적되었다(유성경, 1999; Loeber, 1990). 개인적 차원에서는 감각적, 충동적 성향이 강함, 문제행동의 조기 시작, 어려서 싸움을 잘 했음, 감정통제가 잘 되지 않는 것 등이 위험요소로 밝혀졌다(Hawkins, 1995 ; Rutter, 1990).

또한 유성경 외(2000)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비행화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기에 비행과정에 빠져 있다가 탈비행에 성공했다고 보여지는 청소년을 개별 면접하였다. 분석결과 가정 관련 위험요인으로는 가정의 불화, 가족구조의 결손과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 가족구성원들의 비행과 정신적인 문제들, 부모의 학대와 무관심이 포함되었고, 학교 관련 요인으로는 나쁜 성적과 소위 ‘노는 아이들’ 과 어울리는 것, 교사들의 낙인과 무관심이 포함되었다. 지역사회 관련 요인에는 지역사회에 청소년들의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실제적인 규범이 없고, 학교나 가정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 집단이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개인변인으로는 어려서부터 싸움을 잘해서 노는 아이들에게 눈에 잘 띄어 일찍 짝히는 경우와 거절을 잘하지 못해서 술자리 같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모임이나 활동에서 효과적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포함되며, 분노조절이 잘 되지 않아 이를 폭력으로 표현하여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포함된다.

박현선(1998)은 빈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객관적인 위험요소를 개인적, 가족 관련, 거주환경 위험요소로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개인적 위험요소에는 신체장애나 발육상태, 낮은 지능과 같은 발달 및 의료적 위험, 충동 및 공격 성향, 우울 및 포기 성향이 포함되었고, 가족관련 위험요소에는 가족의 구조적 결손, 가족갈등, 가족의 사회경제적 위험, 가족의 의료적 위험이 포함되었다. 거주환경 관련 위험요소에는 주거공간의 위생상태, 유흥업소 밀집정도, 지역사회 내 범죄 발생정도가 측정되었다. 위험요소의 종류와 연령 및 문제행동별 위험요소의 상대적 예언력에 대한 정보는 청소년 비행의 예방 및 개입 초점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하지만 청소년 비행과 위험요소는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보호요소의 중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서 어떻게 비행을 예방하고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험요소에 많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의 길로 깊이 빠져 들어가지 않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표 4. 청소년 비행의 위험요인

연구자	요인
유성경,1999; Sampson, Raudenbush, & Earls,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차원) 청소년 행동규준에 대한 법적·일반적 기대치, 지역사회의 경제적 수준, 유동성, 조직화된 정도, 약물의 이용가능성, 학교나 가정에 소속하지 않은 청소년 집단
유성경,1999 ; Maguin & Loeber,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변인) 학교성적의 하락 및 부진, 학교교육에 대한 낮은 가치감, 학교 생활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교사들의 무관심, 폭력, 교사들의 낙인
유성경,1999; Loeber, 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변인) “노는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
Rutter, 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변인) 감각적, 충동적 성향이 강함, 문제행동의 조기 시작, 어려서 싸움을 잘 했음, 분노조절의 어려움,
박현선,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차원) 신체장애나 발육상태, 낮은 지능과 같은 발달 및 의료적 위험, 충동 및 공격 성향, 우울및 포기 성향 • (가족적 차원) 가족의 구조적 결손, 가족갈등, 가족의 사회경제적 위험, 가족의 의료적 위험 • (지역사회적 차원) 주거공간의 위생상태, 유흥업소 밀집정도, 지역사회내 범죄 발생정도

다. 청소년 비행의 보호요인

보호요소의 종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발견되어진다. Gore와 Eckenrode(1996)는 크게 2가지의 집단군, 즉 개인적 요소와 환경적 자원으로 대별하였다. 첫째, 개인적 요소로서 신체적 건강상태나 성격기질과 같은 요소나 자존감이나 통제신념과 같이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게 연계할 수 있는 능력, 둘째, 환경적 자원으로서는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를 갖는 지역사회와의 유대가 그것이다. 보호요소는 크게 개인적 특성, 가족적 특성, 사회 환경적 특성의 3가지로 분류되기도 한다. Garnezy(1993)는 기존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보호적 요소들의 결과를 다음의 3가지 요소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활동수준, 반영성(reflectiveness), 인지적 기술, 타인에 대한 긍정적 반응성과 같은 잠재적인 기질적 요소, 둘째 온정성, 응집력, 조부모와 같이 반응적인 부모의 책임을 해줄 수 있을만한 돌보아주는 성인의 존재와 같은 가정적 요소, 셋째 교사, 이웃, 친구의 부모, 기관이나 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로서 모성을 대체해줄 수 있을만한 강력한 외부적 지지원의 존재이다.

Werner(1989)도 이와 유사하게 첫째 개인의 기질적 귀인으로서 활동수준, 의사소통 기술, 내재적 통제소재, 둘째 정서적 지지를 할 수 있는 가족 내 정서적 유대로서 부모, 형제, 배우자, 친구의 지지, 셋째 개인의 능력에 대해서 보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신념체계를 제공하는 외부의 지지체계로서 학교, 직장, 교회 등이 보호요소로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Garmezzy, 1993). Bogenschneider(1996)는 좀 더 세분하여 개인, 가족, 또래, 학교, 지역사회의 다섯가지 측면에서 보호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개인 측면에서의 보호요소는 잘 개발된 문제해결 기술과 지적 능력, 자아존중감, 자기 효능감, 개인의 책임감과 종교생활이고, 가족측면에서는 적어도 한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보호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또래측면에서 가까운 친구가 있는 경우, 학교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학교 경험이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소라고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측면에서 지지적인 지역사회에 소속되어 있고, 가정과 학교, 다른 사회기관과의 유대관계가 보호요소로 작용한다고 한다.

유성경(1999)은 사례연구를 통해 비행 청소년들이 비행에서 탈비행으로 행동변화를 결심하는데 영향을 준 중요한 요인들을 여섯 가지 범주로 정리하였다. 첫째는, 친화력 있는 인간관계(bonding relationship)로 부모가 제공해주지 못했던 친화력 있는 인간관계를 다른 경로를 통해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정서적인 애착감, 무조건적인수용, 처벌보다는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가 그 핵심적인 요소이다. 두 번째는, 학교 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청소년이 학교 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동기를 가지게 될 때, 뚜렷한 진로를 구상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삶에 대한 꿈을 가지고 역경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세 번째는 성취경험과 진로계획이다. 이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본인이 성취하고자 노력했던 일에서 성공경험을 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성공경험이 자신감과 희망감을 가지게 하고, 이것이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세우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올바른 행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전달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다섯 번째, 문제 상황을 떨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분석적사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 및 높은 지능과 같은 개인적인 자질, 여섯 번째, 이웃들의 관심이 중요한 보호요소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성이 유연한(resilient)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연구하여 보호요소의 종류를 밝힌 연구(Pollard, Hawkins, & Arthur, 1997에서 재인용)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보호요소가 밝혀졌다. 첫째, 개인적인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지능이 높고, 긍정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회복탄력성 기질을 지니고 있는 경우, 둘째, 친화력 있는 인간관계

(bonding relationship)로 가족, 친구, 사회기관 등의 누구와도 따뜻하고 정서적이며 신뢰로운 관계를 진정으로 맺는 경우, 셋째, 행동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Bensen(1997)은 청소년들이 환경의 위협성에서 자기를 지켜 긍정적인 발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을 40가지의 발달적 강점(developmental asset)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회복탄력성 있는(resilient)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연구하여 보호요소의 종류를 밝힌 연구에서 제시한 세 가지 보호요소를 보다 행동적인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다. 또한 유성경 등(2000)은 Search Institute Profiles를 기초로 제작한 보호요소 측정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긍정적 가치관, 부모의 정서적 지지, 부모의 학습관여 정도, 학습에 대한 책임감 및 지역사회차원의 보호요소들이 학생집단과 공식적 비행 청소년 집단을 구분해 주는 보호요소로 나타났다. 보호요소에 따른 문제행동의 변화를 살펴보는 Jessor 등(1995)의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보호요소를 성격, 환경, 행동적 측면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연구를 실행하였다. 성격적인 측면으로는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경향과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경향, 그리고 일탈을 용납하지 못하는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성인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조절 통제력(high regulatory controls)과 관습적 행동에 대한 동료 모델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행동적인 측면에는 사회지향적인 활동들로 가족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학교동아리 활동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이 연구에서 보호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났으며, 보호요소가 문제행동과 위험요소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지은(1998)은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변인들을 추출하여, 비행을 유발시키는 변인과 비행을 억제시키는 변인으로 구분한 연구에서, 비행을 억제시키는 변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우선 첫 번째로 개인변인에는 준법의식과 자기통제성, 책임감, 타인기대에 대한 인지와 자아존중감이 포함되고, 두 번째 가정변인에는 가정생활 만족도, 가족 적응력, 가족의 사회적 지지, 부모자녀관계의 친밀도와 가족응집력, 합리적인양육태도와 형제간의 우애가 포함된다. 세 번째로는 학교 및 사회변인인데, 이것은 학교에 대한 애착과 학교 적응도, 교사의 지지, 사회적인 유대와 교사에 대한 애착이 포함된다.

표 5. 청소년 비행의 보호요인

연구자	요인
Gore, Eckenrode, 1996	(개인적 요인) 신체적 건강상태나 성격기질, 자존감이나 통제신념과 같이 사회적 환경과의 연계능력 (환경적 요인)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를 갖는 지역사회와의 유대
Search Institute, 1998	(개인적 요인) 학습에 대한 헌신도, 긍정적 가치관, 사회적 유능감, 긍정적 자아정체감 (환경적 요인) 사회적 지지, 힘 북돋우기, 명확한 한계설정과 기대, 건설적인 시간활용
Werner, 1989	(개인적 요인) 활동수준, 의사소통기술, 내재적 통제소재 (가정적 요인) 정서적 지지를 할 수 있는 가족 내 정서적 유대 부모, 형제, 배우자의 지지
Garmezy, 1993	(개인적 요인) 활동수준, 반영성, 인지적 기술, 타인에 대한 긍정적 반응성 (가정적 요인) 온정성, 응집력, 조부모 와 같이 부모의 책임을 해줄 수 있는 돌보아주는 성인의 존재 (사회적 요인) 모성을 대체해줄 수 있는 강력한 외부적 지지원의 존재 교사, 이웃, 친구의 부모, 기관이나 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
Richard, Jill, Judith, France, Mark, 1995	(성격적 요인) 학교에 대한 긍정적 경향 건강에 대한 긍정적 경향 일탈을 용납하지 못하는 성격 (환경적 요인) 성인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조절통제력 관습적 행동에 대한 동료 모델들 (행동적 요인) 사회지향적인 활동들: 가족활동, 자원봉사활동, 학교동아리 활동
Pollard, Hawkins, Arthur, 1997	(개인적 요인) 높은 지능, 긍정적 경향성, 적응 유연한 기질 (환경적 요인) 가족, 친구, 사회기관 등과의 따뜻하고 정서적이며 신뢰로운 관계 (행동적 요인) 행동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
Bogenschneider, 1996	(개인적 요인) 문제해결기술, 지적능력,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책임감, 종교생활 (가정적 요인) 적어도 한 사람과의 밀접한 관계 (또래 요인) 가까운 친구 (학교 요인) 긍정적인 학교 경험 (또래 요인) 지지적인 지역사회, 가정과 학교, 다른 사회기관과의 유대관계
Beacons, 1991	(개인적 요인) 적응유연성, 긍정적 태도 (가정적 요인) 친사회적 가족 구성원과의 유대, 가족에 의한 분명한 행동기준 제공 (또래 요인) 친사회적 또래와 건전한 친구관계 (학교 요인) 교사와 유대, 학교참여 (또래 요인) 분명한 행동기준, 긍정적 행위의 인식
권지은, 1998	(개인적 요인) 준법의식, 자기통제성, 책임감, 타인기대에 대한 인지, 자아존중감

연구자	요인
	(가정적 요인) 가정생활만족도, 가족적응력, 가족의사회적지지, 부모자녀관계의친밀도와 가족응집력, 합리적 양육태도, 형제간의 우애 (학교 및 사회 요인) 학교에 대한 애착, 학교적응도, 교사의지지, 사회적인 유대, 교사에 대한 애착
유성경 등, 2000	(개인적 요인) 긍정적 가치관, 긍정적 자기정체감, 사회적 유능감 (가정적 요인) 부모의 정서적 지지, 자녀학습에 관여하는 정도 (학교 요인) 청소년 자신의 학습에 대한 긍정적 가치, 책임감, 학교에서의 지지 (지역 및 사회 요인) 이웃의 청소년문제에 대한 관심, 응답한 청소년에 대한 이웃의 관심, 이웃의 관계망

4. 청소년 비행 상담개입방법

가. 국내 청소년 비행 집단상담 프로그램 현황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청소년 비행 개입을 위한 국내 집단상담 프로그램 현황을 <표 6>에 정리하였다. 먼저 집단프로그램에서 활용한 주요 이론은 미술치료, 현실치료, 해결중심치료, 아들러이론, 인지행동치료, 교류분석, 계슈탈트, 자아성장집단, 자기통제집단이였다. 개입대상은 기소유예 청소년, 성폭력 가해 중학생, 절도 비행 청소년, 소년원 입원중인 청소년, 보호시설기관 거주 청소년, 보호처분 판결 비행 청소년, 초등학교 5, 6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위탁형 대안학교 학생, 의료소년원생, 보호관찰 청소년으로 대부분 중학생 이상이였다. 회기는 10회기~15회기가 가장 많았고 8회기와 6회기 프로그램들도 있었다. 주당 프로그램 실시 횟수는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주요 구성내용은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표현 등 자기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돕는 내용과 타인이해, 타인수용, 공감, 의사소통과 같은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감정이완 및 해소, 정서인식 등 정서적인 개입을 위한 내용들이 있었으며, 스트레스 대처능력, 문제해결 능력, 행동연습 등 구체적으로 적용을 돕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외, 삶의 중요한 가치, 미래의 나의 모습, 비전설정 등 미래에 대한 희망감을 고취시키고 변화에 대한 동기를 강화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주요변인은 우울, 충동성, 책임감, 스트레스,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공

격성, 분노, 사회적지지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결과는 우울의 감소, 긍정적 자기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충동성 감소, 자기수용성 향상, 자아존중감 향상, 자기통제력 향상, 공격성 감소 등의 효과를 보였다.

표 6. 국내 집단상담 프로그램 현황

연번	프로그램명	회기	대상	주요이론 및 구성내용	측정변인/ 도구	효과검증
1	기소유예 후기 비행청소년을 위한 집단 미술치료 사례 연구 (길은영, 2018)	13회기	16세~20세 기소유예 후기 비행청소년 13명 (남9/여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치료 - 자기탐색 - 긴장이완 - 정서인식 - 자아수용 - 자기표현 - 환경인식 - 나와 우리 인식 - 상호작용과 협동 - 협동과 대인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 - 부정적 자기상 - 비속의 사람 그림검사 - 이야기 그림검사 - 문장완성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소유예 비행청소년의 우울 감소 및 긍정적 자기상 강화 -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2	성폭력 가해청소년의 성폭력통념 수용도와 성태도 및 성지식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서혜석, 채인석 2017)	8회기 (주 1회/ 120분)	중학생 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성장 집단상담프로그램 - 자기이해 - 자기수용 - 타인이해 - 타인수용 - 강점 및 탄력성 인식 - 긍정적 자기인식강화 - 이해결된 부분들을 정리 및 통합 - 자기각성 - 자기노출 -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통념 수용도 (이석재, 1999) - 성태도 (한완수, 2009) - 성지식 (한완수,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가해자의 성폭력통념 수용도와 성태도 및 성지식의 변화
3	절도 비행청소년을 위한 단기집중 절도예방 프로그램 (천원기, 2015)	10회기 (주 3회/ 60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청소년 3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성 강화 - 절도 원인탐색 및 평가 - 절도 법교육 - 피해 인식 확대 - 절도 결과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기능적 충동성 (이길전, 손정락, 2001) - 책임감 - 한국판 Shapir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기능적 충동성의 감소 - 역기능적 충동성이 낮은 절도

연번	프로그램명	회기	대상	주요이론 및 구성내용	측정변인/ 도구	효과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능력 배양 - 자유와 선택, 책임 인식 	통제척도 (박성현, 2008)	비행청소년은 자기통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집단미술 치료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류정미, 2016)	15회기	소년원 입원중인 16세~19세 남자 청소년 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미술치료 - 감정이완 - 흥미유발 - 문제 직면 - 자기 존재 의식 - 자기인식 - 타인과의 감정공유 - 불편감 알아차리기 및 감정해소 - 감정 발산 및 해소 - 자기수용 - 상호 이해 - 희망의식 고취 - 현실인식 - 대인관계 증진 - 심리적 만족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 (유안진, 한미현, 1991) - 자아정체감 척도 (문승태,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스트레스 대처, 학습스트레스 대처, 교사스트레스 대처에 유의한 효과 - 자기수용성, 주체성에서 유의한 차이
5	집단미술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명은, 2016)	14회기 (주 1회/60분)	청소년 보호시설 기관 거주 청소년 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치료 - 바람(Want) - 행동(Doing) - 평가(Evaluation) - 계획(Plan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존중감 (최유선, 2001) -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오경자 외,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존중감 척도의 4개 하위영역 (일반적, 사회적, 가정적, 학교)에서 향상 - 주의집중 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 기타문제에서 유의한 차이

연번	프로그램명	회기	대상	주요이론 및 구성내용	측정변인/ 도구	효과검증
6	자기통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현문정, 2014)	8회기 (주1회/ 60분)	소년원 입원 중인 만 19세 남자 중고등학생 5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통제 집단상담 - 의사소통 - 감정표현 - 삶의 중요한 가치 - 장점과 단점 - 꿈목록 - 미래의 나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판 자기통제력 척도(하창순, 김병석, 2005) - 한국판 공격성 검사(서수균, 권석만,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집단을 비교집단, 통제집단과 비교 결과, 자기통제력이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남 - 실험집단 공격성 감소
7	해결중심 집단미술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유옥문, 2014)	10회기 (주1~2회/ 120분)	보호처분 판결 비행청소년 12명 (남9, 여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결중심치료 - 해결중심 관점인식 - 관계형성 - 긍정적 자기인식 - 변화동기 확인 - 대처자원 탐색 - 사회적지지 경험 -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자아존중감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스 대처능력 척도(정유미, 2004), - 자아존중감 척도(권영미,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스 대처 능력에서 유의한 차이 -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증가
8	아들러의 사회적 관심과 격려 기법에 근거한 인터넷 중독 관 사이버 비행 아동 집단상담 프로그램 (정민, 2014)	6회기 (주1회/ 90분)	K척도와 사이버 비행행동 검사 고위험군 및 잠재적 위험군 초등학교 5, 6학년 2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들러 이론 - 사회적 관심 - 격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중독척도 (김청택, 2002) - 사이버 비행행동 척도(심진숙, 2008), - 사회적 관심 척도(정민, 노안영, 2002) - 자기격려 척도(노안영, 정민,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장애, 긍정적기대, 가상적대인 관계지향성, 일탈행동, 내성이 감소 - 사이버 비행행동 (지위비행, 재산비행, 폭력비행) 감소 - 사회적 관심 증가 - 자기격려 증가

연번	프로그램명	회기	대상	주요이론 및 구성내용	측정변인/ 도구	효과검증
9	고등학생용 분노조절 프로그램 개발 (문은주, 2011)	12회기 (주2~3회/90분)	고등학교 1, 2학년 45명 (남23, 여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행동치료 - 인지적 문제해결능력 - 공감능력 - 사회적 기술 - 근육이완훈련 - 분노인지 - 자기노출 - 자기각성 - 비합리적생각 탐색 - 모델링 - 역할연기 - 체계적 둔감법 - 행동연습 - 자기교시 - 피드백 	- 분노척도 (문은주, 김성희, 2008)	- 분노의 하위요인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인) 감소
10	교류분석의 통합적 접근방법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인생태도와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효과 (이정미, 전영자 2011)	8회기 (90분)	위탁형 대안학교 남녀 중학생 5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분석 - 게슈탈트 - 미술치료 - 성격구조분석 - 인생태도 - 인생각본 - 금지령 - 시간구조화 - 재결단 	- 인생태도 (우재현, 2006) - 심리적 복지감 (Rosenberg, 1965)	- 자기부정 인생태도 감소 - 타인부정 인생태도 감소
11	사회적 자본 찾기 프로그램이 비행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증진과 사회적 지지의 인지도 증진에 미치는 효과-의료 소년원생을	10회기 (주1회/120분)	소년보호 기관에서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의료 소년원생 1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개방 및 탐색 - 타인이해 - 스트레스 해소 - 심리적 욕구파악 - 욕구충족을 위한 자원 찾기 - 비전설정 - 역할연기를 	- 임파워먼트 척도(김희성, 2002), - 사회적지지 척도(황윤경, 1995)	- 사회적지지 인지도 증진

연번	프로그램명	회기	대상	주요이론 및 구성내용	측정변인/ 도구	효과검증
	대상으로- (최은진, 육혜련 2011)			통한 사회적 유연성 기르기 - 두려움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		
12	집단미술치료가 여자소년원 재소 비행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윤향숙, 정윤정 2010)	14회기 (주2회/ 90분)	소년보호 시설에 재학 중인 15세~19세 이하 여자소년원 20명	- 집단미술치료 - 감정이완 - 감정탐색 - 부정적 감정 표출, 조절 - 자기인식 - 긍정적 자기수용	- 공격성척도 (김정임, 2003) - DAS 그림검사 (Silver, 1988, 2002)	- 공격성 감소
13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해결중심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송성자, 정문자, 2002)	10회기 (주3회/ 3시간)	보호관찰 청소년 53명	- 해결중심치료 - 목표설정과 자기발견 - 작은 변화 확인과 강화 - 변화의 유지 및 발전계획 - 목표성취 평가와 변화를 공식화 하기	- 자아존중감 (Rosenberg) - 감정통제, 자기통제, 대인관계, 역기능적인 행동(청소년 자기보고 결과평가질 문, Wells et al. 1999) - 아동청소년 문제해결확 인 측정도구 (Kral, 1989)	- 낮은 자아존중감, 가정생활에 서의 문제, 감정통제의 어려움이 유의미하게 변화

나. 국외 청소년 비행관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현황

국외에서 소개된 청소년 비행관련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대표적 형태는 boot camps (MacKenzie, Wilson, & Kider, 2001), 인지행동 치료(Landenberger & Lipsey, 2005), 교도소 방문(Petrosino, Turpin-Petrosino, & Buehler, 2003), 가해자-피해

자 중재(Nugent, Williams, & Umbreit, 2003), 다 체계적 치료(Littell, Popa, & Forsythe, 2005) 등이 그것이다(Lipsey, 2009). 비행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에 있어서 Andrews 등(1990)은 요구(need), 반응성(responsivity), 위험(risk) 원리를 제안하였다. 요구 원리는 변화 가능한 위험 요인으로서 이후 범죄의 요구를 다루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반사회적 태도, 또래 연합, 자기통제와 자기관리 기술, 약물의존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응성 원리는 이러한 범죄 유발적 요구를 바꿀 수 있는 처치 요인이다. 예를 들어 인지행동접근은 사회 학습 접근을 사용한 프로그램이다. 위험 요인은 더 큰 효과는 위험 수준이 높은 가해자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한 처치 필요나 개입 가능성이 더 커야 함을 의미한다. “치료적” 철학을 배경으로 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상담이나 기술 훈련은 통제나 강압을 원리로 하는 프로그램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특히 프로그램의 개입 효과는 높은 수준의 실행과 밀접하게 관련 있다. 프로그램 효과는 회기의 양이나 횟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연령이나 성별, 인종에 따른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Lipsey, 2009).

De Vries 등(2015)에 의하면, 범죄 예방 프로그램은 행동 지향적 성격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그램에는 행동적 계약, 모델링, 양육기술 훈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반두라의 인지적 사회학습모형에 기반한다. 사회학습이론은 직접적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이 학습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모방학습은 사회학습이론의 핵심적인 기법으로 여겨질 수 있다. 비행청소년들은 유능한 모델을 통해 적절한 행동을 배우고 실행할 수 있다. 또한 긍정적인 행동은 보상을 통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학습이론 모형은 부적절한 양육방식을 수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한다. 집단 기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족 프로그램이나 다유형 형태의 예방 프로그램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가족 프로그램은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방식을 바꾸거나 가족의 기능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유형 프로그램은 다양한 범죄 유발 요인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인지행동치료나 부모 양육기술 훈련 등이 포함된다. 비행청소년의 다양한 위험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프로그램 효과에 중요하며, 낮은 비행 수준을 보이는 청소년에게는 적은 회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다.

1) Aggression Replacement Training

대인관계 기술과 같은 갈등해결방법을 가르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관점에

서 타당화될 수 있다. 대인관계 문제해결기술이나 분노통제 방법은 폭력 및 비행 가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Walker et al., 1996). Lochman은 분노통제와 대인관계 문제해결 기술의 통합된 프로그램은 비행이나 폭력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어린 학생들이 친 사회행동 기술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우게 된다 (Fried & Fried, 1996). 친 사회행동을 학습하고 분노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것은 폭력 가해자 혹은 그런 행동 경향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Walker et al., 1996).

지난 30여 년 동안 뉴욕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은 공격성 대치 훈련이다. 공격성 대치 훈련은 폭력적인 청소년, 비행집단, 교도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효과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왔다 (Goldstein & Glick, 1994; Hatcher, Palmerm, McGuire, Hounsone, Bilby, & Hollin, 2008). 공격행동 대치 훈련(Aggression Replacement Training: ART)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심리사회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Glick과 그의 동료(1996)에 의해 개발된 이 프로그램은 공격적인 청소년들의 재활 및 치료를 위해 널리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행동수정은 청소년 폭력에 대응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접근을 따르고 있는 ART (Aggression Replacement Training)은 폭력적인 청소년들 특히 비행청소년들의 공격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수감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보이는 폭력행동이나 적대감을 완화시키는 처치 프로그램이다. ART의 기본적인 가정은 공격적인 청소년들은 불우한 환경에 처해있으며, 이러한 환경 때문에 친사회적 행동을 배울 기회가 없으며 폭력적인 행동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ART 프로그램은 친 사회행동, 분노 조절, 그리고 도덕 교육 등 세 가지 중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공격성 대치 훈련은 세 가지 요소, 친 사회 기술, 분노통제, 도덕적 추론능력 향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친 사회 기술 학습은 공격성 대치 훈련의 기초가 되었다. 친 사회기술 학습은 공감, 협상, 자기주장, 지시 따르기, 자아통제, 그리고 사회적 조망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친 사회기술 학습은 효과적이고 친사회적 행동의 향상을 위한 처방 프로그램으로서 좋은 출발점이다. 하지만 공격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나 유지시키는 요인들은 다양하고 동시다발적인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보완 작업 역시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행동 측면) 뿐만 아니라 왜 해야 하는지 (인지적·동기적 측면)에 대해서도 배워야 하며 또한 어떻게 충동적이고 반사회적 행동들을 통제하는지 (정서적 측면)에 대해서도 배워야만 한다. 결국, 공격성 대치 훈련은 세 가지 측면, 인지적 (도덕

교육), 정서적 (분노 통제) 그리고 행동적 (친사회 기술 학습) 등이 함께 포함되어 운영된다.

친 사회기술 학습은 모델링, 역할극, 그리고 수행에 대한 피드백 등으로 구성된다. 모델링을 위해서는 각각의 친 사회 행동 기술을 4-6가지의 행동 단계로 나누어서 구체적이고 조작적으로 정의를 내린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실생활 환경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거나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친 사회 기술 부족 문제들이 프로그램의 주 내용이 된다. 각각의 기술이 역할극을 통해 연습되자마자, 집단 리더와 프로그램 참여자들에 의해 피드백이 교환된다. 이 활동의 목적은 각각의 기술 단계가 정확하게 수행되었는지 알려주는 데 있다. 친 사회 기술 행동들은 공격 행동에 대한 대안행동으로 나타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 행동은 공격성 그 자체를 억제하고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통제 훈련이 필요하다.

분노 통제 처치는 주로 이완법, 안정법, 그리고 다른 자기 통제 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노 통제 훈련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분노 각성 수준을 낮추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는데 있다. 분노 통제 훈련은 주로 모델링, 역할극, 그리고 집단 피드백 절차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Hassle logs 등이 분노 통제 훈련 회기 동안 사용되며 이러한 경우에 실생활 사건들과 이러한 훈련 등이 연계되도록 돕는다. 콜버그의 도덕 딜레마 토론 방법은 주입에 의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도덕적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는 친 사회 가치 향상법이다. 집단 리더의 책임은 도덕적 딜레마를 소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딜레마들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딜레마들은 상충하는 도덕적 가치들을 반영하는 실생활 문제 상황 등으로 정의된다. 친사회 가치 그 자체가 행동을 유발하는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 대처 훈련은 외현적인 친사회 행동을 학습시키고 반사회 행동을 억제하는 구체적인 기법들이 포함되어 있다.

2) Fast Track과 Second Step 프로그램

청소년 폭력 예방 및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보호 및 유능성 요인의 연구에 기반하여 개발된다(Cowen & Work, 1988; Masten, 1994). 유능성 요인은 친사회적으로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심리적 요인이며 보호요인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능성 요인이 효과적으로 발현되는 것이다(Masten & Coatsworth, 1998). 보호요인에는 다양한 보상적이고 회복을 돕는 자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Miller 등(1998)은 폭력 및 비행 청소년을 위한 보호요인에 대해 세 가지 차원을 제시하였다. 개인 차원에서는 학문적 및

사회인지적 향상을 위한 개인의 노력, 자기조절 능력 등이 포함된다. 가족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양육방식의 강화, 가족관계의 질 향상, 가족 지원, 가족-학교의 연계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학교차원에서는 친 사회행동에 대한 기대강화, 친 사회 또래나 성인과의 연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으로 두고, FAST Track은 1990년대 초 시작되었다. Fast Track 프로그램은 폭력에 취약한 학생들을 위해서 부모 교육을 가장 중요한 회복요인으로 간주하는 가정-학교 통합 프로그램이다. 폭력에 취약한 학생의 부모들은 프로그램 운영자로부터 이 주일에 한번 씩 방문해서 아동발달과 아동행동 통제에 관한 내용을 배울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대처방식과 자기 보호 방법 등을 학습한다. 폭력에 취약한 학생들은 집단 상담 형태의 모임에서 친사회 기술이나 분노 조절과 같은 격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일주일에 세 번씩 학업 지도도 받게 된다. FAST Track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최근에 상당히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었다(Sorensen, Dodge, and The Conduct Problems Prevention Research Group, 2016; Dodge et al., 2015). Fast Track 프로그램은 학업, 자기조절, 대인관계 영역에서의 아동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이 있다. 프로그램의 요소와 아동의 역량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청소년기와 성인기 초기의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개인내적 자기조절이나 대인관계 기술은 비행이나 범죄와 관련하여 유의한 향상을 보인 반면에 학업적 기술은 이후 범죄나 비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Sorensen et al., 2016).

FAST Track 프로그램이 아동이나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치유하는데 부모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본다면, Second Step은 아동이나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능력이나 친 사회 특성과 같이 개인적인 능력 개발을 프로그램의 핵심요소로 삼고 있다. Second-Step은 초등학교부터 중학생에게 공감, 자기조절, 그리고 분노 통제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가르친다.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해 볼 때 Second-Step은 반사회적 혹은 폭력적 행동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실시한 후, 대상 학생의 행동을 운동장이나 복도와 같이 학교 폭력이 자주 일어나는 곳에서 관찰하였다. 그 결과, 신체 공격행동은 감소되었으며, 친 사회 행동은 증가되었다(Grossman, 1993).

Second Step 프로그램은 학급 기반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의 공감, 충동통제, 문제해결, 분노조절 등 사회·정서적 역량과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다. Second Step 수업은 아동의 정서적 반응, 사고의 전형적 형태, 행동 기술을 다루며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아동의 사회·정서적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인

지적 요소로서 아동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귀인, 사회적 목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책을 생산하고 평가하며 실행하는 능력에 초점을 둔다. 종단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 여러 학교에서 시행한 결과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은 감소하였으며 친사회적 행동은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Edwards, Hunt, Meyers, Grogg, & Jarrett, 2005; Frey, Nolen, Edstrom, & Hirschstein, 2005). 또 다른 평가연구에서도 Second Step에 참여한 학생들이 통제집단에 비해 1년 후 평가한 추후 조사에서도 사회적 유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ub, 2002).

일차적인 예방 프로그램은 폭력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런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데 그 목표를 둔다. 예방 프로그램은 교육심리 교육과정을 통해 개인의 친사회 행동을 가르치고 이러한 행동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조장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폭력이나 공격행동이 일어날 만한 환경적 조건들을 바꾸고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일차적 예방 프로그램의 주요한 강점은 소수의 문제 학생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다수의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투자에 비해 효과가 큰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성격의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성격과 내용의 프로그램이 제시되기 때문에 각자 학생의 특성이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Walker et al., 1996). 학교 폭력 가해자나 피해자를 위한 처방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특성이나 행동에 초점을 두어 개발되기 때문에, 목표 집단의 요구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가해자 프로그램 혹은 피해자 프로그램은 가해자 혹은 피해자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주의 깊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3) School Transitional Environment Project

학교 조직의 변화는 전환기 학습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학생의 익명성이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책무성을 증가시키며 규칙이나 기대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더 나은 학급 행동을 보이며 성적도 더 좋을 뿐만 아니라 학교급을 바꾸면서 생기는 학생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기여함으로써 심리적 고통 수준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 폭력과 비행 예방하기 위한 예방 프로그램인 STEP (School Transitional Environment Project, Feiner & Adan, 1988; Feiner et al., 1994)은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로 옮겨가는 시기에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정과 학교사이의 연대강화와 학업 및 사회적 능력 향상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이다. STEP은 학생의 익명성을 줄여주고, 책무성을 높여 주며 학생이 학교의 규칙과 기대를 배우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환기 학습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이 중학교 시기에 필요한 더 나은 교육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공식적인 지원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해 주고, 지원에 대한 가용성과 접근가능성을 높여주며 학교규칙과 기대에 대한 정보 접근을 더 용이하게 해줌으로써 학교나 교사에 대한 애착과 친밀감, 소속감을 갖도록 돕는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옮겨가는 학생들로서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특정 학교로 모이는 대규모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특히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유색 인종 학생을 대상 집단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재구조화하고 담임교사의 역할을 재구성하는데 초점을 둔다. 학교의 사회체제는 대규모 학교에서 더 작은 규범의 학습 환경을 구성하는 데 주안점이 있으며 이는 학교에 새로 진입하는 학급 구성원들을 안정적으로 집단으로 묶어 준다. 이러한 집단은 새로운 학습 환경에 진입하는 학생들이 직면하는 갈등이나 변화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다. 학생들은 학급 내에서 작은 집단에 남아서 학급 수업이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담임교사 역시 학급 관리와 학생 지도 및 상담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담임교사는 학급의 일정이나 계획을 안내해주고 학습적인 상담이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생활지도를 실시한다. 학부모에게도 STEP 프로그램이 자녀의 안정적인 또래집단 구성과 학교 환경에 대한 친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안내한다. STEP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학생은 통제집단에 비해 문제행동을 더 적게 보여주었으며 학급 활동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성적에도 영향을 주어서 학습효능감이나 기대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학생들은 학교 전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실질적으로 줄어들 뿐 아니라 우울이나 불안이 낮아지고 자존감은 높아지는 등 정신건강 전반에 걸쳐서 유의한 향상을 확인하였다(Felner, et al., 1994)

4) Promoting Alternative Thinking Strategies (PATHS)

PATHS 프로그램은 종합적인 학급 기반 프로그램으로서 사회정서적 역량과 인지기술 형성을 위하여 고안된 프로그램이다(Greenberg & Kusche, 2006). 정서적-행동적-인지적 역동 모형에 기반을 한 PATHS 프로그램은 학급 교사가 정서적 인식, 자기조절, 사회적

문제해결 기술에 관하여 교육을 받은 후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시간에 가르치도록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학령전기 학생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자기통제, 정서적 이해, 긍정적 자기존중감, 관계, 대인관계 문제해결 기술의 5가지 영역을 다루고 있다. PATHS 프로그램에 대한 수많은 엄격한 평가연구에 의하면, PATHS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유의한 향상에 기여하였고 다양한 특수 교육대상 아동에게도 유사한 효과가 나타났다(Mihalic & Irwin, 2003). 특히 무작위 할당 방식에 의해 설계된 연구에서 PATHS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통제집단에 비해 교사가 보고한 문제행동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고하였고 학생이 보고한 공격성이나 공격적 문제해결, 적대적 귀인 양식 점수에서 유의한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Crean & Johnson, 2013; Humphrey et al., 2016). 특히 다년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공격성의 감소와 함께 친사회적 행동의 증가와 학업적 기능에서의 향상도 보고하였다(Dodge & Godwin, 2013).

앞서 검토된 모든 프로그램들은 어느 정도 공격적인 행동을 감소시키고 사회-정서적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효과적임이 밝혀졌다.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가정을 공유하고 있다. 첫째, 청소년들이 보이는 문제행동은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거나 대인관계에 필요한 적절한 사회-정서적 능력이 발달되지 못한 것과 관련 있다. 둘째,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의 부모들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자녀들과 상호작용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 이러한 가정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폭력행동에 취약한 청소년들에게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치고 연습시키며 그들의 부모와 교사에게는 적절한 방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다.

앞서 검토된 모든 폭력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들은 강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포함하고 있지만 특히 공격성 대처 훈련의 친사회 행동 프로그램은 학교 폭력을 대처하는 데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친사회 행동 프로그램은 공격성 감소를 직접적인 목표로 삼고 있으며 다양한 대상, 예를 들면 수감되어 있거나 혹은 최근에 퇴소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의미함이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법이나 절차는 이미 학교나 임상현장에서 보편적이다.

하지만, 친사회 행동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학교 폭력의 가해자 역시 또래로부터의 공격행동 때문에 생긴 심리적 상처가 적지 않다는 것이며,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또래들에 대해 오랫동안 누적된 적대감을 갖고 있고 이러한 적대감은 또한 악의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악순환과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바람직한 사회기술이나

사회-정서적 능력만을 발달시킨다고 해서 대인관계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폭력이나 비행에 개입되어 있는 학생들을 돕는데 있어서 친 사회행동을 획득하는 것과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비교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프로그램 개발

가. 프로그램 개발 절차

본 연구의 모형 개발을 위해 이론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되 현장의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였으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립적 위치에 있는 학계 및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실천적인 모델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이에, 문헌고찰을 통해 모형 개발에 적용한 프로그램 논리모델과 효과적으로 청소년 비행문제를 개입할 수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내·외의 청소년 비행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현장의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현장전문가와 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 대상으로 심층면접으로 실시하여 비행청소년 집단상담 개입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을 토대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현장전문가 평가와 학계 전문가 감수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최종 비행청소년 집단상담 개입 매뉴얼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창대 외(2011)의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모형 검증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절차는 아래의 그림 3과 같다.

나. 프로그램 개발 과정

1) 기획단계

기획단계는 문헌연구와 현장전문가 및 비행청소년대상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비행 청소년 특성,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국내외 비행청소년 관련 상담 프로그램 등을 분석하였다. 현장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뷰에서는 비행관련 고위기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를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청소년 비행 상담을 진행하면서 경험한 의미 있는 정보들을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비행 관련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

행하였다. 비행 청소년 대상자에게 집단 상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 효과적인 개입 방안에 대해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비행청소년 집단상담 개입 매뉴얼 개발에 반영하였다.

2) 구성단계

프로그램 구성단계에서는 문헌연구, 현장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뷰, 비행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 원리를 도출하였으며, 초기, 중기, 후기 3단계로 구분하여 총 10회기로 구성되었다. 초기(1~3회기)는 집단상담 O.T, 법 교육, 자기탐색으로 구성되었으며, 중기(4~7회기)는 정서조절, 친사회 기술훈련 및 행동계획 단계로 구성되었다. 후기(8~10회기)는 긍정적 자기인식, 진로탐색 및 재 비행 예방을 위한 서약 등으로 구성되었다.

3) 실시 및 평가단계

프로그램 실시 및 평가단계에서는 구성단계에서 도출된 프로그램의 초안을 바탕으로 비행 청소년 대상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프로그램 효과를 측정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활용하게 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감수받고, 프로그램을 최종 수정·보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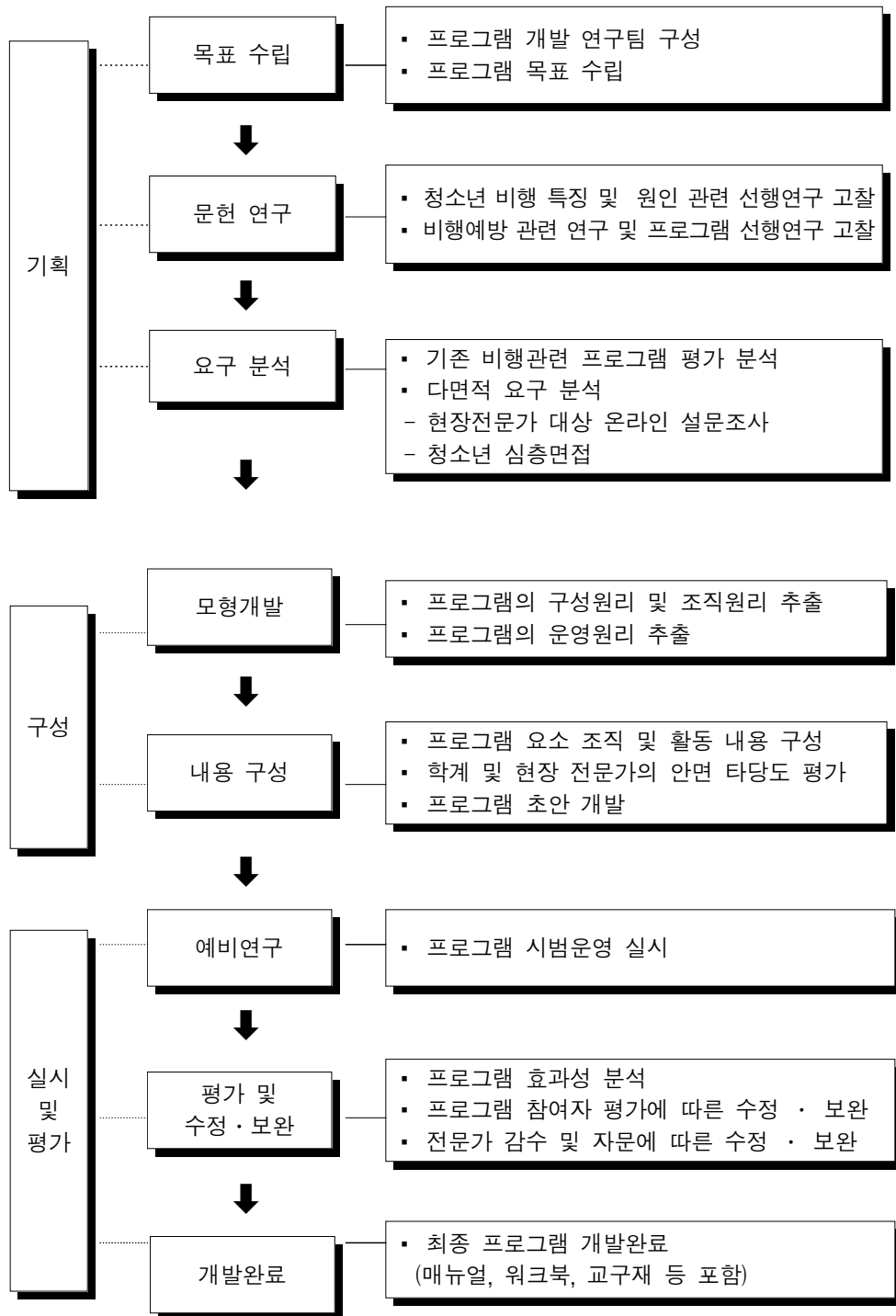


그림 3. 비행 청소년 집단상담 개입프로그램 개발

2. 현장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뷰

가. 프로그램 대상

본 연구의 심층 인터뷰 대상자는 상담 경력이 2년 이상이며, 비행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3집단 이상 진행한 경험이 있는 현장전문가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청소년 꿈 키움센터) 현장전문가 4명, 꿈 세움 Wee센터 전·현직 현장전문가 2명,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전문가 4명을 대상으로 1회(각 60분)에 걸쳐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참여자의 성별, 연령 및 경력사항은 표 7과 같다.

표 7. 현장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뷰 참여자

구분	지역	소속	직급	성별	연령	경력
1	서울	○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팀장	남	40대	10년 이상~ 15년 미만
2	부산	□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팀장	여	40대	10년 이상~ 15년 미만
3	충남	법무부 치료감호소	보호주사보	남	50대	15년 이상~ 20년 미만
4	경기	△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직무대행	남	50대	20년 이상
5	서울	전 꿈세움Wee센터	팀장	여	40대	15년 이상~ 20년 미만
6	서울	전 꿈세움Wee센터	팀원	여	30대	3년 이상~ 5년 미만
7	서울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여	40대	10년 이상~ 15년 미만
8	제주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남	30대	5년 이상~ 10년 미만
9	부산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여	50대	5년 이상~ 10년 미만
10	경남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원	여	40대	5년 이상~ 10년 미만

나. 질문지 구성

심층 인터뷰 질문지는 청소년상담 전문가로 상담전공 교육학박사 2인, 다수의 청소년 상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담심리학 전공 석사 1인, 상담전공 교육학 석사 1인, 아동가족학 석사 1인에 의해 ‘질문에 대한 아이디어 수집 → 질문초안 작성 → 질문초안 검토 → 질문지 작성’의 질문지 구성절차(김성재, 오상은, 은영, 손행미, 이명선, 2007)에 따라 구성되었다. 이후 교육학박사 2인의 검토를 통해 최종 수정되었다.

최종 확정된 질문지는 Krueger와 Casey(2000)이 제시한 질문방식에 따라 도입질문, 전환질문, 주요질문, 마무리질문의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개방형의 질문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8. 심층 인터뷰 질문지의 구성 및 내용

구분	내용
도입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가자의 소개
주요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행청소년 특성(비행청소년 유형, 위험요인, 보호요인) 비행청소년 상담 경험(효과적/비효과적 방법, 위기개입, 기억에 남는 사례) 비행 유형별 상담개입 방안 비행 수준별 상담개입 방안 비행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 상담 개입 방법 비행청소년 상담 시 핵심적인 치료적 요인 비행청소년 상담 시 장애요인 및 지원 방안 비행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방향
마무리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행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 관련한 제언점 인터뷰 마무리

다. 실시절차 및 분석방법

심층 인터뷰의 진행은 현장전문가 개인별로 (각 60분) 총 10명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진행은 상담을 전공한 박사 또는 석사 1인이 진행자로 참여하였다. 인터뷰 실시 전 참여자 전원에게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하여 인터뷰의 전 과정은 녹음되었으며, 인터뷰가 끝난 후 녹어록 형태로 전사되어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전사된 자료는 연구진이 녹어록을 반복적으로 읽어가면서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주제별로 범주화하였다. 범주화하는 과정에서는 각각의 의미단위들을 유사성, 구별성, 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면

서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는지와 각 의미들을 대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범주화 되었는지 살펴보았다(Morgan, 1997). 도출된 범주와 내용은 교육학박사 2인의 감수를 통해 최종 수정되었다.

라. 분석결과

1) 비행청소년 특성

비행청소년의 특성에 관한 질문에서 비행유형, 주 호소문제, 위험요인, 보호요인, 비행유형별 공통점, 비행유형별 특이성의 여섯 가지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비행유형은 절도, 폭행, 사기, 성, 기타(지위비행, 약물, 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구성되었다. 주 호소 문제는 억울함 호소, 정서조절의 어려움, 진로적응 어려움, 성격 및 가치관 문제, 처벌에 대한 불안으로 구성되었다. 위험요인의 세부범주는 다섯 가지로, 각 세부범주별 의미단위는 다음과 같다. 개인내적요인 세부범주의 경우 정서적 취약성(충동성, 공감능력의 결여), 인지능력, 낮은 자존감, 과거의 일탈경험, 경제적 문제로 구성되었으며, 가정환경의 경우 부모의 학대, 부모의 방임, 억압적인 양육, 부모와의 갈등,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가정환경으로 구성되었다. 학교환경 세부범주의 경우 학교문화, 학교부적응으로, 또래관계 세부범주의 경우 또래비행과 동조로 의미단위가 구성되었다. 또한 기타 위험요인으로는 게임 및 SNS의 영향, 지역사회환경의 부정적 영향의 의미단위가 구성되었다. 한편 보호요인 또한 다섯 가지의 세부범주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개인내적요인 세부범주의 경우 개인의 인성발달, 높은 탈비행 동기, 지적 수준, 진로·학업에 대한 관심, 과거 성취경험의 의미단위로 구성되었다. 가정환경의 경우 부모의 관심과 참여, 적응적 부모자녀 관계로, 학교환경 세부범주의 경우 학교적응 단일 의미단위로 구성되었다. 또래관계의 경우 건전한 또래관계, 주변 환경 세부범주의 경우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가 의미단위로 도출되었다.

비행유형별 공통점으로는 비자발성, 심리적 기제, 인지적 특성, 기타 개인내적 특성, 또래관계, 가정환경의 여섯 가지의 세부범주가 도출되었다. 비자발성은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 단일 의미단위가 도출되었으며, 심리적 기제의 경우 높은 충동성, 공감능력 부족, 정서조절능력 결여, 폭력성, 부족한 주의집중력으로 구성되었다. 인지적 특성은 학습능력부족, 합리화, 이분법적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 미래조망능력 부족으로, 기타 개인내적 특성은 외향성, 법의식 부재, 부족한 성지식, 과거 처벌경험, 일상생활 적응 어려

움, 근로 경험으로 구성되었다. 또래관계는 또래관계에서의 소속감 단일 의미단위로, 가정환경은 와해된 가정, 부적절한 양육, 부모에 대한 미안함이 의미단위로 구성되었다. 비행유형별 특이성의 의미단위는 각 세부범주별로 절도의 경우 타 비행으로의 전이, 잘못에 대한 인정으로, 폭력의 경우 죄책감 부재로, 성비행의 경우 죄책감과 수치심, 내향성, 강압적 양육으로 구성되었다. 기타 세부범주의 경우, 환경적 차이, 충동조절능력, 관계 내 힘의 차이로 구성되었다.

2) 비행청소년에 대한 상담접근

비행청소년에 대한 상담접근에 관한 질문에서 효과적인 접근법, 비효과적인 접근법, 위기개입, 기억에 남는 사례 네 가지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효과적인 접근법으로 상담 구조화, 교육적 접근, 부모상담 및 추수상담 연계가 도출되었고, 동기강화상담, 인지행동, 행동주의, DBT(변증법적 행동치료)가 효과적이며 단기해결중심으로 구성하되 역할극이 회기에 포함되었을 경우 효과적이었다. 반면에 정신분석적 접근, 통찰 위주의 상담, 공감에만 치중한 상담, 처벌적으로 내담자를 다루거나 집단상담의 경우 강의식으로 진행할 때 비효과적이었다. 비행청소년 위기개입의 경우 경찰,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 꿈키움센터, 꿈세움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꿈드림, 병원, 쉼터 그리고 기타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주요 의미단위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기억에 남는 사례로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중첩된 내담자, 상담에 저항하는 내담자, 와해된 가정이 있었고, 내담자의 성장, 청소년의 변화의지, 탈북 및 조폭출신 청소년이 도출되었다.

3) 비행유형별 상담개입

비행유형별 상담개입에 대한 질문에 폭력, 절도, 집단비행, 성, 기타비행, 유형별 개입이 중요하지 않음 여섯 가지 요소가 추출되었다. 폭력비행의 경우 공감능력 향상, 안전/상담자 보호 필요, 환경 및 지위파악, 법률정보 제공으로 구성되었다. 절도비행은 환경개선과 내담자의 책임감 증진이 중요한 요소였다. 또한 집단비행의 경우 또래집단과의 분리가 중요한 요소였으며, 성비행은 상담자의 성별, 상담자의 성인지각수성, 내담자 자존감 향상으로 구성되었다. 기타비행에 대한 개입으로 사이버도박 및 주민등록범위반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반면 유형별 개입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으

며, 이에 비행의 근본적인 원인 탐색, 통합적 접근, 비행경험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4) 비행수준별 상담개입

비행수준별 상담개입은 경비행, 중범죄, 기타의견 세 가지 하위범주로 구성되었다. 세 부적으로 경비행의 경우 내담자에게 재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 내담자 행동을 객관화하는 개입이 중요하였다. 중범죄의 경우 비행에 대한 경각심 제고, 비행의 원인 파악이 중요한 의미 단위였으며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비행문제를 감소시키는 것, 문제 해결능력 증진 및 자존감 향상이 중요한 요소였다. 기타의견으로는 비행수준별 접근이 아니라 비행전력 및 횟수에 따라 차별적인 상담개입이 필요하며 단계별 비행예방개입이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5) 비행청소년 상담 초기개입

비행청소년 상담 초기개입 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상담구조화, 내담자 파악, 치료적 관계형성, 효과적인 상담기법 네 가지 하위범주가 추출되었다. 상담구조화의 경우 초기에 상담 목적 및 방식, 부모상담의 필요성을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단위였으며 상담자의 전문성 또한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내담자 파악의 경우 사건 재구성, 심리평가, 과거력 및 생활양식 탐색이 주요 의미단위였으며 치료적 관계형성은 내담자와의 라포 형성이 주요 의미단위였다. 초기에 효과적인 상담기법으로는 부정적 감정 해소, 자기개방 촉진으로 구성되었다.

6) 비행청소년 상담 중기개입

비행청소년 상담 중기개입 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상담목표 점검, 비행사건 탐색, 행동연습, 효과적인 상담기법 네 가지 하위범주가 추출되었다. 상담목표 점검의 의미단위는 목표 재설정이었으며, 비행사건 탐색의 의미단위는 과거 비행행동 탐색 및 평가, 대안행동 탐색으로 구성되었다. 행동연습은 환경점검(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비행행동에 대한 인지적 재구성, 행동평가, 체계적인 개입, 공감의 주요 의미단위였다. 중기에 효과적인 상담기법으로는 문제해결능력 증진으로 나타났다.

7) 비행청소년 상담 후기개입

비행청소년 상담 후기개입 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재발가능성 점검, 보호요인 강화, 상담평가, 사후관리 네 가지 하위범주가 추출되었다. 재발가능성 점검의 의미단위는 탈비행 동기 인식, 재발가능성 평가, 대안행동 연습이었으며, 보호요인 강화의 의미단위는 보호요인 점검, 진로 및 미래 계획 강화, 대안행동 강화였다. 또한 후기 개입 시 상담 평가와 사후관리가 중요하며, 사후관리의 하위 의미단위는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연계로 구성되었다.

8) 비행청소년 상담개입 시 효과적 개입 및 장애요인

비행청소년 상담개입 시 효과적 개입 및 장애요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핵심적 치료요소, 장애요인, 지원방안 세 가지 요소가 추출되었다. 핵심적 치료요소는 신뢰관계, 경청과 공감적 태도, 상담자의 버려줌, 진실성, 일관성, 비 판단적인 태도, 동기강화, 합리적 사고, 전문적 자질, 대안행동에 대한 구체적 연습, 내담자의 강점 및 보호요인 파악, 사회적 지지망 형성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장애요인은 내담자 특성과 상담자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우선 내담자 특성에 해당하는 의미단위는 다음과 같다. 가정환경, 보호자/기관 협조 어려움, 비자발적 내담자, 상담중단, 반복적 비행, 낮은 인지능력, 사회적 편견, 집단역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상담자 요인에 해당하는 장애요인은 비행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역전이, 비행청소년에 대한 이해부족, 전문적인 교육의 부재, 전문 인력 부족, 관련 연구물 및 자료부족, 전문 수퍼비전 부재, 관련 전문가의 상담분야 진입 한계, 대리외상, 소진, 비밀보장의 한계, 다중관계, 짧은 개입기간으로 구성되었다. 지원방안으로는 전문치료기관 설립, 자립지원기관 설립, 법률자문기관 설립, 지역사회 자원 활용, 경제적 지원,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구성되었다.

9) 집단상담 개입프로그램 개발 방향

집단상담 개입프로그램 개발 방향에 대한 질문에서 매뉴얼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도움이 될 만한 자료, 기존 프로그램 제한점, 집단상담 개입프로그램 실시 및 운영 시 고려사항, 효과적인 집단상담 기법 다섯 가지 요소가 추출되었다. 먼저, 매뉴얼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법률교육, 권리교육, 의사소통 기술, 충동조절기술, 진로

에 대한 개입, 긍정정서 함양, 흥미적 요소, 동기강화, 지역사회 자원 정보제공, 재범방지를 위한 팀, 대안행동,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비행유형별 매뉴얼 필요, 수퍼비전 필요, 개인상담과 병행으로 구성되었다. 도움이 될 만한 자료로는 부모교육, 교사와의 관계 개선이 의미단위로 도출되었다. 기존 프로그램의 제한점은 구체적인 설명 부족, 교안 중심, 교육 중심, 집단구성에 대한 애로사항, 참여대상의 이해수준 차이로 구성되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및 운영 시 고려사항에는 CYS-Net 연계망 활용, 시범운영, 기관의 요구과약, 돌발 상황에 대한 계획, 장소고려, 운영자의 전문성, 운영자 보호의 필요성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집단상담기법에는 신체활동 중심, 음악치료, 보드게임, 사진치료, 역할극, 자기이해 및 수용, 인지와 정서의 통합적 접근, 집단상담 회기마다 개인상담 병행, 청소년 공통관심사 활용, 전문가별 역할분담으로 구성되었다.

표 9. 현장전문가 심층 인터뷰 결과

대범주	하위범주	세부범주	의미단위
비행청소년 특성	비행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도/폭행/사기/성 • 기타(지위비행, 약물, 도로교통법 위반 등)
		주호소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억울함 호소 • 정서조절의 어려움 • 진로적응 어려움 • 성격 및 가치관 문제 • 처벌에 대한 불안
	위험요인	개인내적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적 취약성(충동성, 공감능력의 결여) • 인지능력 부족 • 낮은 자존감 • 과거의 일탈경험 • 경제적 문제
		가정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학대 • 부모의 방임 • 억압적인 양육 • 부모와의 갈등 • 낮은 사회경제적지위의 가정환경
		학교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문화 • 학교부적응
		또래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비행과 동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 및 SNS의 영향 • 지역사회환경의 부정적 영향

대범주	하위범주	세부범주	의미단위
	보호요인	개인내적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인성발달 • 높은 탈비행 동기 • 지적 수준 • 진로·학업에 대한 관심 • 과거 성취경험
		가정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관심과 참여 • 적응적 부모자녀 관계
		학교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적응
		또래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또래관계
		주변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
	비행유형별 공통점	비자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
		심리적 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충동성 • 공감능력 부족 • 정서조절능력 결여 • 폭력성 • 부족한 주의집중력
		인지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능력 부족 • 합리화 • 이분법적 사고 • 자기중심적 사고 • 미래조망능력 부족
		기타 개인내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향성 • 법의식 부재 • 부족한 성지식 • 과거 처벌경험 • 일상생활 적응 어려움 • 근로(알바) 경험
		또래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관계에서의 소속감
		가정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해된 가정 • 부적절한 양육 • 부모에 대한 미안함
	비행유형별 특이성	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비행으로의 전이 • 잘못에 대한 인정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죄책감 부재
		성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죄책감과 수치심 • 내향성 • 강압적 양육

대범주	하위범주	세부범주	의미단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적 차이 • 충동조절능력 • 관계 내 힘의 차이
비행청소년에 대한 상담접근	효과적인 접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강화상담 • 인지행동적 접근 • 단기해결중심 • 행동주의적 접근 • DBT • 역할극 • 교육적 접근 • 상담 구조화 • 부모상담 • 추수상담 및 연계
	비효과적인 접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분석적 접근 • 공감에만 치중 • 처벌적으로 다룸 • 통찰위주 상담의 어려움 • 강의식 집단프로그램
	위기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 • 꿈기움센터 • 학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꿈드림 • 병원 • 쉼터 • 기타 지역사회연계
	기억에 남는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의 중첩 • 상담에 저항하는 태도 • 와해된 가정 • 내담자의 성장 • 청소년의 변화의지 • 부모개입의 중요성 • 탈북 청소년 • 조폭출신 청소년
비행유형별 상담개입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과 약물치료 병행 • 공감능력 향상 • 안전/상담자보호 • 환경 및 지위파악 • 법률정보

대범주	하위범주	세부범주	의미단위
	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개선 • 책임감 증진
	집단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집단과의 분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자 성별 • 자존감 향상 • 상담자의 성인지감수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도박에 대한 개입 • 주민등록법위반에 대한 개입
	유형별 개입이 중요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본적인 원인 탐색 • 통합적 접근 필요성 • 비행경험중심 접근
비행수준별 상담개입	경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비행에 대한 경각심 제고 • 행동 객관화
	중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존감 향상 • 비행원인 파악 • 즉각 발생하는 비행문제 점검 • 비행에 대한 경각심 제고 • 문제해결능력 증진
	기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전력 및 횟수에 따른 상담개입 • 단계별 비행예방개입
비행청소년 상담 초기개입	구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목적 • 상담방식 • 상담자의 전문성 • 부모상담 필요성
	내담자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재구성 • 심리평가 • 과거력 및 생활양식
	치료적 관계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 • 라포 형성
	초기에 효과적인 상담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적 감정의 해소 • 자기개방 촉진
비행청소년 상담 중기개입	상담목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재설정
	비행사건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비행행동 탐색 • 과거 비행행동 평가 • 대안행동 탐색
	행동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점검(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파악) • 비행행동에 대한 인지적 재구성 • 행동평가 • 체계적인 개입 • 공감

대범주	하위범주	세부범주	의미단위
	중기에 효과적인 상담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능력 증진
비행청소년 상담 후기개입	재발가능성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비행 동기 인식 • 재발가능성 평가 • 대안행동 연습
	보호요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요인 점검 • 진로 및 미래 계획 강화 • 대안행동 강화
	상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결과평가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사례관리 • 연계
비행청소년 상담개입시 효과적 개입 및 장애요인	핵심적 치료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관계 • 경청과 공감적 태도 • 상담자의 버터잡 • 진실성 • 일관성 • 비판단적인 태도 • 동기강화 • 합리적 사고 • 전문적 자질 • 대안행동에 대한 구체적 연습 • 내담자의 강점 및 보호요인 파악 • 사회적 지지망 형성
	장애요인	내담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환경 • 보호자/기관 협조 어려움 • 비자발적 내담자 • 상담중단 • 반복적 비행 • 낮은 인지능력 • 사회적 편견 • 집단역동
		상담자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역전이 • 비행청소년에 대한 이해 부족 • 전문적인 교육의 부재 • 전문 인력 부족 • 관련 연구물 및 자료부족 • 전문 수퍼비전 부재 • 관련 전문가의 상담분야 진입 한계 • 대리외상 • 소진 • 비밀보장의 한계

대범주	하위범주	세부범주	의미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관계 • 짧은 개입기간
		지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치료기관 설립 • 자립지원기관 설립 • 법률자문기관 설립 • 지역사회 자원 활용 • 경제적 지원 • 지속적인 사례관리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 방향		매뉴얼에 반드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교육 • 권리교육 • 의사소통 기술 • 충동조절기술 • 진로에 대한 개입 • 긍정정서 함양 • 흥미적 요소 • 동기강화 • 지역사회 자원 정보제공 • 재범방지를 위한 팁 • 대안행동 • 활용할 수 있는 자료 • 비행유형별 매뉴얼 필요 • 슈퍼비전 필요 • 개인상담과 병행
		도움이 될 만한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 • 교사와의 관계 개선
		기존 프로그램 제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설명 부족 • 교안 중심 • 교육 중심 • 집단구성에 대한 애로사항 • 참여대상의 이해수준 차이
		실시 및 운영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YS-Net 연계망 활용 • 시범운영 • 기관의 요구 파악 • 돌발 상황에 대한 계획 • 장소고려 • 운영자의 전문성 • 운영자 보호의 필요성
		효과적인 집단 상담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활동 중심 • 음악치료 • 보드게임

대범주	하위범주	세부범주	의미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치료 • 역할극 • 자기이해 및 수용 • 인지와 정서의 통합적 접근 • 집단상담 회기마다 개인상담 병행 • 청소년 공통관심사 활용 • 전문가별 역할분담

마. 분석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청소년 꿈키움센터), 꿈세움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은 현장전문가 총 10명이다. 분석결과로 비행청소년 특성, 비행청소년에 대한 상담접근 방법, 비행유형별 상담개입, 비행수준별 상담개입, 비행청소년의 초기 상담개입, 비행청소년의 중기 상담개입, 비행청소년의 후기 상담개입, 비행청소년 상담 개입 시 효과적인 개입 및 장애요인, 비행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방향으로 대범주가 도출되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비행 청소년의 특성 중 비행유형으로 절도, 폭행, 사기, 성, 약물 등으로 나타났으며 주 호소문제로 억울함, 정서조절 어려움, 진로적응, 성격·가치관 문제, 처벌에 대한 불안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의 비행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억울함, 불안, 정서조절 등 정서적인 부분과 적응문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위험요인으로는 개인내적요인, 가정·학교환경, 또래관계 등이 나타남에 따라 비행청소년 개인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 중 부모와 또래요인을 고려한 개입이 필요하다. 비행청소년의 보호요인으로는 개인내적요인과 가정환경요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개인의 인성(도덕성 발달), 높은 탈 비행 동기, 진로 및 학업에 대한 관심, 과거의 성취경험과 부모의 관심과 참여, 적절한 부모자녀관계, 주변사람의 지지가 도출되었다. 이는 비행을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해 청소년의 도덕추론능력을 강화하고 현재의 자신에 대한 변화의지(학업, 진로, 탈비행)와 더불어 부모의 지지와 관계형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비행청소년 유형별 공통점으로는 상담에 대한 비자발성, 학습 및 미래 조망능력의 부족, 이분법적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 등 인지특성을 보였고, 높은 충동성, 폭력성, 공감능력 부족, 정서조절능력 결여 등 심리적 기제가 나타났으며 부적절한 양육이나 와

해된 가정 등이 추출되었다. 이러한 점은 비행 청소년의 상담개입 시 상담에 대한 동기나 기대를 강화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필요하고, 인지적 심리적 변화를 이끌고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재설정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비행 유형별 특이성으로 절도의 경우 절도 이외의 다른 비행으로의 전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폭력의 경우 죄책감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 개발 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 접근은 인지·행동적 접근, 동기강화상담, 단기해결 중심 접근과 함께 부모 상담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정신분석적 접근이나 공감에만 치중하거나 처벌 중심적 강의식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지·행동적 접근을 중심으로 참여자의 동기를 강화하는 접근과 단기해결중심의 접근이 적합하며, 강의식이 아닌 활동중심의 참여식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비행유형별 상담으로는 폭력의 경우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절도의 경우 환경개선과 함께 책임감 증진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으로 비행을 저지른 경우 또래집단과의 분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 비행유형별 개입보다는 비행의 근본적인 원인탐색이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나타나 비행청소년의 효과적인 상담개입을 위해 비행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요소를 다루면서 비행유형별 특이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비행청소년의 초기상담개입에서는 상담의 구조화, 내담자의 특성파악, 치료적 관계형성, 효과적인 상담기법의 사용(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자기개방의 촉진)이 효과적이고 중기상담개입에서는 상담목표 점검, 비행사건 탐색, 행동연습, 효과적인 상담기법(문제해결능력 증진)이 나타났다. 후기상담개입에서는 재발가능성을 점검하고, 보호요인을 강화하며 상담평가와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행청소년 상담개입 시 장애요인으로는 내담자 특성과 상담자 특성으로 구분되며, 내담자 특성으로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가정환경, 보호자/기관 협조의 어려움, 비자발적 내담자, 상담중단, 반복적 비행, 낮은 인지능력, 사회적 편견, 집단역동으로 나타나 상담자는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상담자 특성으로는 비행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역전이, 비행청소년에 대한 이해부족, 전문적인 교육이 부재, 전문 인력 부족, 관련 연구물 및 자료부족, 비밀보장의 한계 등으로 나타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비행청소년 상담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행청소년 집단상담 개입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에서 매뉴얼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법률교육, 권리교육, 의사소통기술, 충동조절기술, 진로 목표설

정, 긍정정서 함양, 동기강화, 지역사회 정보제공, 재범방지를 위한 팁, 비행 유형별 매뉴얼 등이 나타났고, 도움이 될 만한 자료에서는 부모교육, 교사와의 관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비행청소년 상담개입 매뉴얼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비행청소년의 효과적인 상담개입을 위해 비행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요소를 다루면서 비행유형별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비행청소년의 상담 개입 시 부모와 또래 요인이 크기 때문에 주변의 지지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 개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인지·행동적 접근을 중심으로 참여자의 동기를 강화하는 접근과 단기해결중심의 접근이 적합하며, 강의식이 아닌 활동중심의 참여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초기, 중기, 후기 단계별 개입이 필요하며 상담개입 시 장애요인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비행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가. 면접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관심을 둔 특별한 사례를 의도적으로 표집하는 목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 즉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대상을 참여자로 모집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비행청소년 상담 기관(예.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종사하고 있는 상담자들의 추천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참여자는 발달 단계상 청소년 중기와 후기에 속하는 만 15~24세로 폭력 혹은 절도 비행유형으로 보호처분 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서 비행에서 벗어나 사회에 적응하고 있음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참여자들은 연구의 목적과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서면으로 연구 참여 동의를 작성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게 된 연구 참여자들은 수도권과 부산에 거주하는 청소년 5명으로, 성별은 남자 5명이었다. 구체적인 참여자의 정보는 표 10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0. 참여자의 배경 정보

사례	성별	연령	비행유형	비행 시작시기	보호처분 횟수	학력
A	남	18	절도, 폭행	초등학교 6학년	1회	고등학교 재학
B	남	18	폭행	초등학교 6학년	5회	고등학교 재학
C	남	21	절도	고등학교 1학년	2회	고등학교 졸업
D	남	22	절도, 폭행	중학교 3학년	3회	고등학교 졸업
E	남	17	절도	중학교 2학년	1회	고등학교 졸업

나.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개인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접은 2019년 8월 한 달 간 진행되었고 약 1시간의 전화인터뷰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 및 인터뷰의 목적에 대한 정보제공 후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인터뷰 질문은 참여자의 비행경험, 비행문제 극복 계기, 비행관련 상담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은 “처음 비행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행을 계속 하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비행을 그만두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비행 문제를 극복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활동이 도움이 되었나요?” 등이었다. 또한 인터뷰 외에 설문지를 만들어 참여자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터뷰 녹음파일은 축어록을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비행청소년 심층면접의 내용은 주제 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중점 주제와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의 연구진들이 개별 분석 후 함께 모여 합의하는 과정을 가졌다.

다. 비행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결과

1) 청소년 비행의 원인

청소년의 비행행동은 또래와의 장난으로 시작하여 ‘지위비행’ 이 나타나고 점차 ‘중 비행’ 으로 발전됐다. 즉 처음에는 비행친구들과 장난이나 재미로 어울리며 무단결석, 음주와 흡연, 행인 시비걸기, 욕하기 등 지위비행으로 시작되어, 점차 기물파손하기, 특수절도, 무면허 운전, 집단폭행과 같은 심각한 비행행동으로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과 놀 때는 대부분 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청소년 E. 남 17세, 지위비행)

“저는 담배를 일찍 시작했고, 술도 애들이 먹는다고 하면 먹고 고1, 2때는 그렇게 놀았어요.” (청소년 C. 남 21세, 지위비행)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과 아파트에서 술래잡기 하다가 소화기를 터트리고 고층에서 일층까지 다 뿌리고 문 열리면 문안으로 뿌렸어요.” (청소년 A, 남 18세, 기물파손)

“친구들이랑 길가는 사람들 괜히 시비 걸고 놀리고 욕하면서 놀았어요. 처음에는 장난이었어요. 나중에는 생전 처음 보는 아저씨와 싸워서 얼굴이 함몰되었어요.” (청소년 B, 남 18세, 폭력행위)

“친구들과 어울리다보니 자연스럽게 특수절도하고 무면허 운전을 했어요.” (청소년 D, 남 22세, 특수절도)

청소년의 비행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개인요인, 가족요인, 또래요인이 나타났다. 먼저 개인요인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준법의식 부재, 낮은 통찰력이 도출되었으며, 가족요인으로는 가족 간의 갈등, 가정폭력 경험, 가족의 무관심이 청소년 비행행동의 원인으로 드러났다. 또한 또래 요인으로는 비행을 저지르는 또래친구로부터의 집단 압력 및 정서적 지지가 보고되었다. 한편 비행을 저지른 후 비행행동을 지속시키고 가속화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낙인이 도출되었다.

“비행을 저지르고 싶지는 않았지만, 돈이 필요해서 계속하게 된 거 같아요.” (청소년 C. 남 21세, 경제적 어려움)

“쉽게 돈 벌 수만 있다면 불법적인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청소년 D. 남 22세, 준법정신 부재)

“철도 없고 생각도 없고 내 행동의 결과에 대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비행을 저지른 거 같아요.” (청소년 E. 남 17세, 낮은 통찰력)

“어머니가 세 살 때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때부터 새엄마 있었고 잘해주셨는데, 새엄마 아들이 형인데, 초등학생 때 저를 많이 때렸어요. 중학생 되니까 새엄마가 때리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것도 싫었고 이런 집을 버려두는 아버지도 미웠어요.”

(청소년 C. 남 21세, 가족 간의 갈등 및 경험)

“어머니는 계속 힘들다 하시고, 아버지는 무관심 했어요. 아버지랑은 1년 동안 이야기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청소년 E. 남 17세, 가족의 무관심)

“주변에 쓸모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같이 있으면 휩쓸려서 비행을 하게 되요.” (청소년 B. 남 18세, 비행친구 집단압력)

“친구가 돈 좀 만들어 볼래? 권유해서 하게 되었는데 지갑을 훔치거나 약해보이는 애들 돈을 뜯고 나누어서 맛있는 것도 먹었어요.” (청소년 C. 남 21세, 비행친구 집단압력)

“중학교 2학년 때 형들이 계속 비행하자고 했고 형들과 있는 게 좋았어요.”

(청소년 E. 17세, 비행친구 정서적 지지)

“앞으로 절도 안하고 마음잡고 알바하고 있는데 무리했는지 맹장이 터져서 입원하게 되었는데, 담임 선생님은 믿지 않고 무단결석이라고 말해서, 정말 다 싫어서 다시 학교 안가고 오토바이 훔치는 절도를 했어요.” (청소년 C. 남 21세, 사회적 낙인)

“제가 비행할 때마다 아버지랑 누나가 나를 비난하고 반응이 거세질수록 저는 더 뼈뺏어졌어요.” (청소년 D. 남 22세, 가족의 낙인)

2) 청소년 비행의 극복과정

비행청소년의 극복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심층 인터뷰 내용을 질적 분석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변화를 추적한 결과, 청소년들은 비행행동을 한 후 재판과정에서 두려움, 자책감,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재판과정은 자책감이나 부모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하며, 이로 인해 재판을 받은 후 일부 청소년들은 비행중단의 의지를 드러내고 비행을 멈추게 된다. 그리고 일부 비행 청소년들은 부모, 교사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 진로설계를 위한 상담자의 조력을 통해 비행을 멈추게 되기도 한다. 이

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 비행청소년은 가족관계의 회복으로 인한 안정적인 심리적 토대를 마련하고, 미래의 삶을 조망하고 진로목표를 설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행동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 청소년은 삶에서 생기를 되찾았고, 가족관계가 회복되어 안정적인 심리적 토대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비행행동에서 벗어나면서 미래의 삶을 조망하고 진로목표를 설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을 저지른 후 재판과정에서 두렵고 무서웠어요 만약에 때리지 않고 말로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처분 결과 나오고 종료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치기도 해요” (청소년 A, 남 18세, 재판과정의 두려움)

“비행했던 내용을 다시 꺼내서 얘길 하니깐 저를 뒤돌아보는 느낌으로 지금 모습이 너무 추하고 못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청소년 C, 남 21세, 자책감)

“제가 한참 사고 칠 때 부모님이 최대한 안 들어가게 하려고 돈 써서 변호사 선임하고 그러면서 금전적으로 집에 부담이 되니까 죄송하고 재판 볼 때 부모님이랑 같이 가잖아요. 우시고 그러니까” (청소년 D, 남 22세,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

“다시는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골치 아프고 좋아지는 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친구들이 오라고 해도 안가고 연락을 안 받았어요. 연락을 딱 끊으면 돼요.” (청소년 B, 18세, 비행친구와의 단절)

“저는 다른 반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때 만난 담임 선생님이 잘해주셨어요. 상담선생님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꽃피는 날이 온다는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긍정적으로 살고 나쁜 것은 손을 떼보자고 하셔서 그때 바뀌더라고요.” (청소년 C, 21세, 교사의 지지)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 보호관찰소 선생님이 자주 오셔서 얘기도 해주시고, 그때 좋은 사람을 많이 알아야겠다는 것과 좋은 사람이랑 어울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친했던 친구들과 연락을 끊었어요.” (청소년 D, 22세, 주변의 지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상담선생님과과는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앞으로는 내 꿈을 이루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현재 특성

화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대학을 진학해서 연기를 전공하고 싶어요.” (청소년 E. 남 17세, 상담자의지지, 진로목표 설계)

“누나들과 만남도 잦고 용돈도 주시고 이러한 모습을 본 아버지의 뿌듯한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세상이 정말 살만하다고 느껴요.” (청소년 C. 21세, 가족의 지지)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때 시험성적을 잘 받아본 적도 없고 상도 받아본 적도 없는 데,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니깐 주변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요 아버지도 뿌듯해하세요.” (청소년 E. 남 17세, 가족관계의 회복)

“손으로 만지는 거 좋아해서 앞으로 미용 자격증을 따고 노력해서 돈 벌고 싶어요 그리고 취미로 수상스키를 배우고 있는데 재미있어요.” (청소년 D. 22세, 미래를 위한 진로목표 설계)

4. 프로그램 구성

비행청소년의 집단 상담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청소년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면접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 및 운영원리를 도출한 후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구성하였다.

가.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원리

1) 프로그램 구성 원리

본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비행청소년의 긍정적인 자기개념과 통제력을 향상시키고 공격성을 감소시켜, 재 비행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절도와 폭력 비행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들의 사회복귀 및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한 비행청소년의 집단 상담개입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절도와 폭행으로 인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이나 수강명령교육 및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재 비행 예방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집단상담 프로그램 형태로 구성한다. 비행청소년들에게 집단상담은 사회적 낙인, 절망감 등을 나눌 수 있고, 자신 외에 다른 비행 청소년들과 비슷한

환경이나 같은 문제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안도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무가치감과 수치심을 줄여 주기 때문에 효과적이다(천성문, 김명권, 1996).

셋째, 본 프로그램의 주된 지도자는 청소년 전문상담사 또는 청소년 상담이 가능한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왜냐하면 본 집단 상담에서는 청소년 내담자의 심리적 이해를 통한 역동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비행청소년은 인내심이 부족하고, 참여 동기가 결여된 비자발적 내담자이므로 그들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 본 프로그램은 사회학습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사회학습이론은 직접적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이 학습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모방 학습은 사회학습이론의 핵심적인 기법이며, 비행 및 범죄 예방 프로그램에는 행동계약, 모델링 등이 효과적이다(de Vries et.al., 2005). 따라서 비행청소년들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유능한 모델의 적절한 행동을 배우고 실행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행동은 보상을 통해 강화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장전문가의 심층 인터뷰에서도 역할극, 인지 행동적 접근, 모델링 등이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사회학습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특히 중기단계에서 역할극을 통해 친 사회기술을 학습하고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켜 나아가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다섯째, 본 프로그램은 초기, 중기, 후기 단계별 총 10회기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초기에는 1회기에서 3회기에 해당되며, ‘상담구조화’, ‘라포형성’, ‘부정적인 감정 해소’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특히 비행청소년 내담자와 관계형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에 초기단계에서는 ‘라포형성’을 위한 상담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중기단계에서는 ‘비행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 ‘정서조절’, ‘대안행동 탐색’이 중요한 목표이며, 특히 비행청소년의 자기 통제력을 키우고, 친 사회기술을 증진하면서 대안행동을 학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후기 단계에서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 ‘진로 및 미래계획 강화’ 등이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어 비행청소년이 자신의 장점을 찾고, 긍정적인 지각을 높이고, 비행청소년 중 성공모델을 통해 진로탐색 및 미래계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회기 순서대로 진행을 해도 무방하지만, 모듈형식으로 개발되어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법 교육 등의 내용과 선택에 의해 포함될 수 있는 심리사회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 상담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단계별 구성된 프로그램의 내용에 맞추어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여섯째, 본 프로그램은 보호자 교육을 강화한다. 비행 청소년 상담에 있어서 보호자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비행 청소년을 상담한 경험이 있는 현장전문가 대상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비행 청소년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호자 교육 및 가이드를 통해 보호자를 개입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비행 청소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태도와 관련해서 비행 행동에 대한 부모의 비난, 부모의 무관심, 역기능적 부모의 태도가 비행 청소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태도로 보고되었다. 이에 본 프로그램에서는 보호자의 태도와 관련해서 청소년 자녀의 비행을 발견 했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녀의 스트레스나 힘든 점을 부모에게 털어 놓았을 때 어떻게 자녀와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지 등 비행 청소년 자녀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본 프로그램은 상담자의 태도 및 자기점검을 통한 소진예방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청소년 상담자들은 심리적 소진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비행청소년들은 비자발적인 모습을 보이고, 상담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며 폭력적이거나 도전적인 행동을 보이기 쉽다. 이러한 경험은 상담자로서 무능감을 느끼며, 자신감마저 상실하게 되는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결과에서도 비행청소년 상담 개입 시 장애요인으로 내담자의 비자발적인 특성, 보호자와 기관의 협조 어려움, 대리외상과 상담자 소진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내담자의 반복적인 비행 대한 상담자의 부담감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 프로그램에서 비행청소년을 조력하는 상담자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자 태도 및 자기점검을 위한 내용을 구성요소로 포함하였다. 이를 위해 상담자의 자기감정을 점검하고 상담자 스스로 부담감, 무기력 등과 같은 상담자 소진을 점검할 수 있게 하였다.

2) 프로그램 운영원리

먼저, 비행청소년 집단 상담개입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절도와 폭력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집단상담 시 적합하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대상 상담기관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보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청소년 범죄의 유희화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지만, 비행청소년의 재 비행 예방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비행청소년을 상담하는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인 보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활동중심으로 구성된 상담개입 프로그램으로 특히 초심상담자 및 비행위기청소년 상담 경험이 적은 상담자의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내용 구성은 절도와 폭력 비행청소년 대상 집단 상담을 기준으로 상담단계에 따라 초기, 중기, 후기 관리로 나누어 구성되었으며, 각 회기는 60분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프로그램은 초기, 중기, 후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단, 상담자의 집단프로그램 진행경력과 보조지도자의 유무, 비행청소년 집단의 특성에 따라 최대 90분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나. 프로그램 내용

1) 프로그램 전체 개요

표 11. 비행청소년 집단상담 개입 매뉴얼 전체 개요

구분	회기	주제	목표	활동내용
오프닝	1	반갑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소개 및 서약서 작성 집단원의 친밀감, 참여동기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소개 및 서약서작성 사전검사 실시 자기소개하기:Who am I 감사수첩 활동 안내
법교육	2	법, 그것이 알고 싶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이해 법 관련 Q&A 및 사례를 통해 범죄의 심각성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년사건 처리절차 알아보기 청소년 범죄 관련 사례 토의 감사수첩 작성하기
자기 탐색	3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의 인생과 나의 감정에 대한 이해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생그래프 그리기 인생그래프 인터뷰하기 감사수첩 작성하기
정서 조절	4	몸으로 말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감정 이해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 습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의 감정 이해하기 폭력, 절도 동영상 속 가해자의 감정 이해하기 감정 조절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노 및 절도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 습득하기 - 나만의 대처방식 계획하기 감사수첩 작성하기
사회 기술	5	나는 배우다 -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짧은 단편 연극을 각자 역할을 맡아 완성해 봄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협력하는 기술을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분 연극 제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나리오 주제 선정하기 - 연극 제작 감사수첩 작성하기

구분	회기	주제	목표	활동내용
사회 기술	6	나는 배우다 - I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극 공연을 통해 자신들이 했던 활동에 대한 성취감향상 시상을 통한 자기 효능감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극공연 시상식 - 함께 상장 만들기 - 시상식 및 소감 인터뷰 감사수첩 작성하기
행동 계획	7	내 마음속의 슈퍼히어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알아보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일치하는 행동계획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벤져스 동영상 : 캡틴아메리카 영상 내 마음속의 슈퍼히어로 내가 슈퍼히어로라면 감사수첩 작성하기
긍정적 자기 인식	8	이 구역의 긍정왕은 바로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점인식을 통한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해 감사를 통한 낙관성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어 찾기 퍼즐 강점선물하기 감사나무 완성하기 감사수첩 작성하기
진로 탐색	9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삶의 의미와 목표에 대한 인식 진로설계 및 구체적 방안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트 찌기 게임 미래의 내모습 웹툰그리기 감사수첩 작성하기
마무리	10	새로운 출발을 위한 약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비행에 빠지지 않기 위한 새로운 행동 약속 서로에 대한 지지와 격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드백 선물하기 나와의 약속 선언문 쓰기 소감 나누기 감사수첩 작성하기
보호자 교육	-	보호자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자교육 구조화 보호자양육태도 점검 (비난, 무관심 등) 가족 활동 계획을 통한 친밀감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하고 편안한 우리집 만들기 가족 저녁식사 계획하기 자녀와의 대화기술 Tip

2) 프로그램 세부내용

(1) 초기

집단상담 초기는 1~3회기로, 1회기는 집단상담 O.T, 친밀감 및 참여 동기 향상과 ‘감사수첩’에 대한 안내가 주요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감사수첩’은 매회기 집단 상담이 끝나고 집단상담 내에서의 감정과 집단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에 대한 느낀 점을 질문하는 것으로, 매회기 잘 작성한 사람에게는 마지막회기에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안내한다. 2회기에서는 법 교육을 통해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관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하며, 폭력 및 절도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범죄의 원인과 결과 등을 논의하게 된다. 3회기는 자기이해를 향상시키는 회기로 인생그래프를 활용하여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힘든 순간, 행복한 순간 등을 떠올리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2) 중기

중기는 4회기에서 7회기까지이며 폭력 및 절도 비행과 관련한 정서조절, 사회기술, 행동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4회기는 정서조절에 대해 개입을 하며, 폭력 및 절도 동영상을 시청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감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화가 날 때, 남의 물건을 갖고 싶을 때 대처방식을 알려주고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함께 나눈다. 5회기와 6회기는 폭력 및 절도 비행 재범 예방을 위해 연극을 활용하여 적절한 사회기술 연습을 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한다. 5회기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역할을 나눠 연극을 연습한다. 연극을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함께 맞춰가는 경험을 한다. 6회기에서는 준비했던 연극을 실제 공연해보고 시상식을 한다. 시상식을 통해 연극을 준비하면서 각자가 잘했던 행동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 자기 효능감을 높여준다. 7회기에서는 폭력 및 절도 비행 재범 예방을 위해 대안행동을 계획한다. 슈퍼히어로 동영상을 보고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활동지에서 선택해 본다. 선택한 가치와 어울리는 행동은 무엇인지 행동목록에서 찾아보고 어떻게 그 행동을 실행할지 계획한 후 작성한 내용을 함께 나눈다. 계획을 나눌 때 실행가능성이 낮다면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질문하고 계획을 수정한다.

(3) 후기

8회기의 내용은 긍정적 삶의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자신의 강점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강점선물하기 활동과 삶에서 감사할만한 내용을 찾고 세상에 대한 낙관적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감사나무 완성하기 활동으로 전개된다. 9회기에서는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인식하고 진로를 설정하기 위한 warm-up 활동으로 다트게임과 비행을 극복한 롤 모델을 영상으로 확인해본다. 그 후에 자신의 미래 모습에 대해 웹툰으로 그려보면서 진로 계획을 구체화한다. 마지막 10회기에서는 재비행에 빠지지 않기 위한 새로운 행동을 약속하도록 한다. 나와의 약속 선언문을 통해

자신의 미래계획을 견고히 하고, 집단 구성원과의 피드백 선물을 통해 서로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보내는 시간을 갖는다.

(4) 보호자교육

보호자교육은 프로프로그램 마지막 회기 때 진행한다. 교육은 강의식으로 진행하며 기관 상황에 따라 활동지를 활용하여 구조화된 집단상담 형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다. 기본운영은 단회기 형식이며 필요시 회기를 나눠서 운영 가능하다. 보호자교육의 목적은 보호자가 가족 내에서 자신의 양육태도를 점검하고 프로그램 이후 청소년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호자교육의 내용은 가족 구성원끼리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활동계획과 자녀양육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도자가 보호자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활동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5) 상담자 소진예방

비행청소년을 조력하는 상담자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자 태도 및 자기점검을 위한 내용을 구성요소로 포함하였다. 특히 비행청소년들은 비자발적인 모습을 보이고, 상담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며 폭력적이거나 도전적인 행동을 보이기 쉽다. 이를 위해 상담자의 자기감정을 점검하고 상담자 스스로 부담감, 무기력 등과 같은 상담자 소진을 점검할 수 있게 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시범운영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재 비행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운영에 참여한 비행청소년의 긍정적인 자가지각, 자기통제력, 공격성의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사전검사 점수에 대비한 사후검사 점수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분석하였다. 더불어 전문가 평가와 감수를 통해 본 프로그램의 초안을 수정·보완하고자 하였다. 시범운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설계는 표 12과 같다.

표 12.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 설계

집단구분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O1	X1	O2

O1: 사전검사 / 긍정적인 자가지각, 자기통제력, 공격성

X1: 실험처치 / 재 비행 예방 상담 개입 프로그램(10회기×60분)

O2: 사후검사 / 긍정적인 자가지각, 자기통제력, 공격성

가.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을 받고 P시 소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7명의 청소년이다. 이들은 폭행, 절도 등의 사유로 경찰조사나 보호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의를 구한 후,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의 구체적인 인구통계학적 정보 및 보호처분 횟수는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시범운영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항목	N(%)
성별	남	6명(85.7%)
	여	1명(14.3%)
	합계	7명(100%)
연령대	14세	1명(14.3%)
	15세	1명(14.3%)
	16세	1명(14.3%)
	17세	4명(57.1%)
	합계	7명(100%)
보호처분횟수	1회	1명(14.3%)
	2회	2명(28.6%)
	3회	2명(28.6%)
	4회 이상	2명(28.6%)
합계		7명(100.0%)

나. 측정도구

1) 긍정적 자기지각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긍정적 자기지각 척도는 Anderson(1968)의 555개의 성격 특성 리스트에서 20개의 형용사를 선택하여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을 무선적으로 배열한 것으로 Lee, Park, Uhlemann(2001)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임영실(2004)이 사용한 ‘성격 묘사에 관한 질문지(Rating of Self and Other: RSO)’ 로써, 응답자들이 자신과 타인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 10문항(예, 믿음직하다, 진실하다, 생각이 깊다, 따뜻하다)과 부정적 특성을 묻는 형용사 10문항(예, 냉정하다, 거칠다, 비겁하다, 잔인하다)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대부분의 타인들에 비해 자신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 (1)에서 ‘매우 그렇다’ (5)에 응답하도록 만든 5점 Likert 척도이며, 부정적 형용사 문항은 역산처리 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응답자는 긍정적인 자기지각을 높게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Lee, Park, Uhlemann(2001)의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75로 나타났다.

2) 자기통제력

본 연구에서는 자기 통제력은 바람직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활동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Grasmick 등(1993)이 개발하고, 하창순과 김병석(2005)에 의해 타당도 연구가 이루어진 한국판 자기통제력 척도(Self-control Scale)를 사용하였다. 자기통제력 척도는 충동성, 단순과제, 모험추구, 신체활동, 자기중심, 화기질의 여섯 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마다 4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에서 ‘매우 그렇다’ (5)에 응답하도록 만든 5점 Likert 척도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응답자의 자기 통제력이 낮음을 의미한다. 하창순과 김병석(2005)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 ‘s alpha)는 .81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Cronbach ‘s alpha)는 충동성이 .64, 단순과제 선호는 .78, 모험추구는 .79, 신체활동 선호.77, 자기중심 .73, 화기질 .64로 나타났다.

3) 공격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격성 척도는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를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번안한 것이다. 이 척도는 신체 공격성 9문항, 언어적 공격성 5문항, 분노감 5문항, 적대감 8문항으로 총 4개의 하위요인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에서 ‘매우 그렇다’ (5)에 응답하도록 만든 5점 Likert 척도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응답자의 높은 공격성을 의미하며, 7, 10, 18번 문항은 역산처리 하였다. 현문정(2014)의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 ‘s alpha)는 .89로 나타났다.

다. 연구결과

1) 긍정적 자가지각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자가지각 사전검사의 평균점수에 대비한 사후검사의 평균점수의 변화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비 모수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값은 표 14에 제시하였다.

표 14. 사전-사후 긍정적 자가지각 전체 총점에 대한 비 모수 대응표본 t검증

종속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Z	p
긍정적 자가지각	사전	7	3.64	.46	-2.028b	.034*
	사후	7	3.99	.69		

***p < .001, **p < .01, *p < .05.

b. 음의 순위를 기준으로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의 긍정적 자가지각 사후검사점수(M=3.99)는 사전검사점수(M=3.64)보다 0.35점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Z=-2.028b, p < .05). 이러한 결과는 본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연구 참여자의 긍정적 자가지각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2) 자기 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 사전검사의 평균점수에 대비한 사후검사의 평균점수의 변화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비 모수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값은 표 15에 제시하였다.

표 15. 사전-사후 자기통제력 전체 총점에 대한 비 모수 대응표본 t검증

종속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Z	p
자기통제력	사전	7	2.67	.30	-2.201a	.028*
	사후	7	2.02	.40		

***p < .001, **p < .01, *p < .05.

a. 양의 순위를 기준으로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의 자기통제력 사후검사점수(M=2.67)는 사전검사점수(M=2.02)보다 0.65점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Z=-2.201a, p < .05). 이러한 결과는 본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연구 참여자의 자기 통제력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다 세부적인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기통제력 하위요인에 대한 비 모수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6와 같다.

표 16. 사전-사후 자기통제력 하위요인에 대한 비 모수 대응표본 t검증

종속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Z	p
모험추구	사전	7	2.54	.34	-1.55a	.121
	사후	7	1.96	.50		
단순과제 선호	사전	7	2.14	.13	-.81a	.416
	사후	7	1.92	.61		
신체활동 선호	사전	7	3.68	.90	-1.19a	.235
	사후	7	2.82	.80		
자기중심	사전	7	1.93	.80	-.511a	.610
	사후	7	1.82	.81		
화기질	사전	7	2.21	.44	-.690a	.490
	사후	7	2.07	.65		
충동성	사전	7	2.18	.53	-2.00a	.046*
	사후	7	1.57	.34		

***p < .001, **p < .01, *p < .05.

a. 양의 순위를 기준으로

표 1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의 경우 자기 통제력의 하위요인에 대한 사전 검사점수에 비해 사후검사점수가 감소되어 자기 통제력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충동성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충동성(Z=-2.00a, p < .05)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본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충동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 사전검사의 평균점수에 대비한 사후검사의 평균점수의 변화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비 모수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값은 표 17에 제시하였다.

표 17. 사전-사후 공격성 전체 총점에 대한 비 모수 대응표본 t검증

종속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Z	p
공격성	사전	7	2.11	.31	-.51a	.612
	사후	7	1.95	.30		

***p < .001, **p < .01, *p < .05.

a. 양의 순위를 기준으로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의 공격성 사후검사점수(M=1.95)는 사전검사점수(M=2.11)보다 0.16점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Z=-.51a, p > .05). 이러한 결과는 본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연구 참여자의 전체 공격성이 감소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다 세부적인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공격성의 하위요인에 대한 비모수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8와 같다.

표 18. 공격성 하위요인 비모수 대응표본 t검증

종속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Z	p
신체적 공격성	사전	7	1.87	.32	-2.371a	.018*
	사후	7	1.46	.38		
언어적 공격성	사전	7	2.57	.80	-.527a	.598
	사후	7	2.25	.98		
분노감	사전	7	2.05	.76	-1.472a	.141
	사후	7	2.51	.72		
적대감	사전	7	1.93	.85	-2.043a	.041*
	사후	7	1.55	.64		

***p < .001, **p < .01, *p < .05.

a. 양의 순위를 기준으로.

표 18에 제시한 바와 같이, 공격성의 하위요인 중 신체적 공격성과 적대감에 대한 사전검사점수는 사후검사점수에 비해 감소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공격성 하위요인 가운데 신체적 공격성(Z=-2.371a, p < .05)과 적대감(Z=-2.043a, p < .05) 감소에 유의한 효과가 드러났음을 알 수 있다.

2. 현장전문가 자문

가. 현장전문가 자문 참여자

비행청소년 상담개입 프로그램 전문가 자문은 비행청소년 집단 상담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전문가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참여자의 성별, 연령, 및 경력사항은 표 19와 같다.

표 19. 현장전문가 자문 참여자

구분	지역	소속	직급	성별	연령	경력
1	경기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여	40대	10년 이상~ 15년 미만
2	경기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여	50대	10년 이상~ 15년 미만
3	부산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여	40대	10년 이상~ 15년 미만
4	부산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동반자	여	50대	5년 이상~ 10년 미만

나. 평가 도구

본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호준(2006)이 개발한 참가자 관점 평가 도구를 본 프로그램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은 크게 회기별 내용 적합도, 운영 적합도, 효과성을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심층질문으로 회기별 적합도에 대한 주관식으로 구성되었다.

다. 비행청소년 상담개입 프로그램 평가 및 자문

프로그램 구성의 효과성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현장전문가가 평가한 회기별 내용 적합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47점, 운영 적합도의 경우 5점 만점에 평균 4.25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리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평

균 3.75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프로그램 전체 만족도는 표 20와 같다.

표 20. 현장전문가 자문 결과

구분	질문		평균	
1	본 프로그램의 회기별 내용이 회기별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한 내용이었습니까?	초기	1	4.50
			2	4.00
			3	4.75
		중기	4	4.75
			5	4.50
			6	4.75
			7	4.25
		후기	8	4.25
			9	4.50
			10	4.50
2	본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운영하기에 적합하게 개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4.25	
3	본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 대상 집단상담시 효과가 있을 것 같나요?		3.75	

1) 초기

초기단계에 대해 전문가들은 1회기에서 감사수첩을 안내하여 매회기 감사수첩을 통해 집단에서 느낀 점, 새롭게 알게 된 점 등을 기록하여 대상 청소년들이 매회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2회기 법 교육에서는 상담자가 소년사건 처리 및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므로 매뉴얼에 충분히 내용이 기록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법 교육에서는 대상 청소년들의 질문 위주로 교육을 구성하되, 일반적인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정의적 설명이 길지 않게 구성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3회기 인생그래프 그리기에서는 상담자의 인생그래프 그리기 예시를 보여주며 청소년들이 그리는 방법에 혼선이 오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자신이 인생그래프를 직접 이야기해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자신의 인생그래프를 충분히 이해하고 소개한다는 점에 있어서 좋은 내용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2) 중기

중기단계에 대해 전문가들은 4회기에서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고 맞추기를 통해 다양한 감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 좋다고 하였으며, 도입부에서 감정을 표현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회기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도 이 감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5-6회기에서는 연극제작에 앞서 타인과 협력하고 의사소통하는 기술의 중요성과 방법들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으며, 연극을 만드는 것 보다는 연극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함을 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핸드폰, 카메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결과물을 함께 공유하는 것도 좋다고 하였다. 또한 6회기에서 개인별로 특색 있는 상을 주는 것이 매우 좋은 활동이 될 것 같다고 하였다. 7회기에서는 슈퍼히어로라는 제목이 청소년 연령에 맞게 수정되면 좋겠다고 하였으며 대안행동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적행동(폭력, 절도 등)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할 때 마다 강화를 주는 방식을 추가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3) 후기

후기단계에 대해 전문가들은 8회기 긍정적 자기 인식과 9회기 진로탐색 회기를 바꾸어 7회기에서 대안행동 찾기 이후 8회기에서 진로 및 삶의 목표 찾기까지 이어진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명함 만들기의 경우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진로 및 흥미에 대한 장기적인 집단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본 프로그램의 경우 비행청소년 대상이기에 명함만들기 보다는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이어지는 스토리컷 구성해보기, 나의 흥미 변천사 알아보기 등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10회기에서는 서로에게 피드백 선물하기가 회기 마지막에 청소년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매회기 상담자가 간단한 사진 및 영상을 찍어 마지막에 함께 시청함으로써 변화된 부분 등에 대해서 함께 피드백을 나누는 활동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4) 전반적인 평가

비행청소년 집단상담 개입 프로그램에 대해 전문가들은 학교, 가정 및 사회로부터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에너지보다는 긍정적 에너지로 독려하는 부분이 매우 좋다고 하였으며, 특히 영상, 활동, 연극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흥미로우며 재미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표했다. 하지만 비행청소년 대상 집단상담 시 효과가 있을 것 같은가에 대한 질문에 평가점수는 3.75점으로 나타나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회기 내용은 적절하나 10회기 내에 충동성 및 공격성 조절, 긍정적인 자기인식 및 진로탐색까지 전부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회기 시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재범예방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변화의지에 대한 점검이나 의지 등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협조적인 집단원이 있을 경우 상담자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tip 형식으로 매뉴얼에 수록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현장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비행청소년 대상 적절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으며, 본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3. 전문가 감수

가. 전문가 감수 참여자

비행청소년 상담개입 프로그램 전문가 감수는 비행 관련 상담 및 연구 경력이 있는 4년제 대학 교수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참여자의 성별, 연령, 및 경력사항은 표 21과 같다.

표 21. 전문가 감수 참여자

구분	지역	소속	직급	성별	연령	경력
1	대전	○○대학교	교수	여	50대	15년 이상~ 20년 미만
2	대전	○○대학교	교수	여	50대	15년 이상~ 20년 미만

나. 평가 도구

앞서 실시한 현장전문가 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질문은 크게 회기별 내용 적합도, 운영 적합도, 효과성을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심층질문으로 회기별 적합도에 대한 주관식으로 구성되었다.

다. 비행청소년 상담개입 프로그램 평가 및 감수

프로그램 구성의 효과성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학계 전문가가 평가한 회기별 내용 적합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80점, 운영 적합도의 경우 5점 만점에 5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리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5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구체적인 평가 결과는 표 22와 같다.

표 22. 전문가 감수 결과

구분	질문		평균	
1	본 프로그램의 회기별 내용이 회기별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한 내용이었습니까?	초기	1	4.5
			2	4.5
			3	5.0
		중기	4	5.0
			5	4.5
			6	5.0
			7	4.5
		후기	8	5.0
			9	5.0
			10	5.0
2	본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운영하기에 적합하게 개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0	
3	본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 대상 집단상담시 효과가 있을 것 같나요?		5.0	

1) 초기

초기부터 회기별 평가의견을 살펴보면 1회기 도입단계에서 실시한 사전검사문항들이

대체로 부정적이어서 전개단계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화될 수 있어 사전검사 실시 후에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간단한 활동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2회기에 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토의하는 것과 1회기 때 참여자들이 궁금해 하는 법 관련 질문사항을 미리 받아서 2회기 때 나누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범죄 영상 시청 후 활동지에 사건의 원인과 결과, 다른 대처방안에 대해 묻는 활동에서는 이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이나 자신의 상황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 등을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기개방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3회기에서는 인생그래프 발표 후 참여자들이 돌아가며 발표자에게 한마디씩 피드백을 주는 것에 대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2) 중기

4회기 영상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감정,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새롭게 알게 된 감정 등 감정에 대해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활동지 대처카드가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인생그래프에 감정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에서 인생그래프 결과물을 학생들에게 3회기 마무리시간에 걸어서 4회기에 다시 나눠주는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그 부분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감정을 아는데서 조금 더 나아가 부정적 감정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게 돕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감정이 억울함이라면 가해자는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할 것 같은지, 가해자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 등을 물어보고 말해주는 것에 대해 제안하였다. 5회기와 6회기에 대해서는 함께 만들어가는 활동과 참여자에게 활동 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소감을 나누는 활동 중 함께 활동하면서 어떤 집단원이 어떤 역할을 잘 했다거나, 어떤 점이 좋았다거나, 어떤 기여를 했다는 점에 대해 집단원 한명도 빠짐없이 피드백을 받고 지지받는 시간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목표와 활동내용이 잘 연결되도록 목표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른 회기에 비해 활동을 진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간 배분을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연극제작절차와 같이 구조화하여 연극제작시 활용할 수 있는 활동지를 제안하였다. 또한, 연극제와 시상식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6회기에서도 활동내용이 구체화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7회기에서는 목표가 다소 복잡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활동목표가 어렵게 느껴진다는 의견이 있었고 좀 더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기술할 것을 제안하였다. ‘슈퍼히어로’ 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적절

하게 표현할 만한 용어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3) 후기

8회기에서 자신의 강점에 대해 탐색하는 것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게임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찾는 것이어서, 자신의 강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다질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9회기에서는 진로에 대한 탐색, 명함 만들기를 통한 미래에 대한 희망적 인식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명함 속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바로 바뀌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이며, 한 달 뒤, 1년 뒤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등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10회기에서 집단원들의 피드백 선물, 나와의 약속 선언문 모두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비행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와서 10회기 동안 자신의 비행과 관련해서 직면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사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어떤 염려가 생기는지 등 돌아보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였다.

4) 전반적인 평가

전반적인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비행청소년의 인식, 정서, 행동 면을 모두 고려한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전체적인 내용과 구성이 매우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프로그램 구성단계에서 문헌연구, 현장전문가와 비행청소년 심층면담을 실시하는 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도 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이 견고하게 구성되어 있어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서 활용도도 높다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초반부에 인식과 자기탐색, 중반 부에 함께하는 활동, 후반 부에 자신의 강점과 진로를 찾고 대안 행동을 약속하며 마무리하는 구성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감사수첩을 통해 매 회기마다 프로그램 후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좋다는 의견이 있었고, 프로그램과 함께 보호자 교육과 상담자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점진 부분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효과는 집단 지도자의 역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비행 예방을 위해

전국에 보급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각 회기별 활동에서 지도자가 고려해야할 Tip이나, 활동 자체로만 그치지 않고 그 활동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활동을 한 후 집단원이 함께 또는 지도자와 집단원 간에 지지와 긍정적 피드백을 공개적으로 많이 나누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부분의 비행 청소년들이 누군가로부터 공감이나 지지 받은 경험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가는 것을 제안하였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회기별 진행 시간이 60분인데 시간 내에 집단원이 활동하고, 탐색하고, 나누고, 감사수첩 적기 등이 효과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회기별로 목표 진술방식과 주제표기방식의 통일이 필요하며, 감사수첩 이외에 매회기 마무리과정에서 배부하고 수거해야 할 자료들이 마무리활동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매회기 마무리에서 소감나누기를 할 때 특별히 회기 목표와 관련하여 성찰해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5회기의 경우, 소감을 나눌 때 다른 사람과 얼마나 대화하고 협력하였는지에 대해 성찰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4. 비행청소년 상담개입 프로그램 최종 매뉴얼 구성

시범운영과 전문가 자문 및 감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매뉴얼을 수정하였고 그 결과는 표 23과 같다.

초기단계는 기존에 제시된 매뉴얼의 구성적인 면에서 크게 보완할 점은 없었으나, 초기단계의 매뉴얼 세부 내용이 강화되었다. 구체적으로 1회기 도입단계에서 사전검사 실시하는 자신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데, 사전검사 실시 후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간단한 게임을 추가하였다. 또한 2회기에서는 법교육과 관련된 Q&A와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을 강화하였으며, 3회기에서도 인생그래프 그리기 예시와 인생그래프 그리는 방법, 친구의 인생그래프를 소개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세부내용을 강화하여 최종 매뉴얼로 완성되었다.

중기에서는 4회기 활동 중 폭력 및 절도 동영상 속 가해자와 피해자의 감정이해하기 부분에서 폭력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할 거 같은지,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 등을 물어봄으로 비슷한 경험에 대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도자tip을 추가하였다. 5회기에는 연극제작을 어려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연극제작계획서와 연극제작절차 활동지를 추가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연극제

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6회기 시상식 지도자tip에 집단원들이 한명도 빠짐없이 피드백을 하고 지지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명을 포함시켰다. 7회기는 영어로 되어 있던 회기제목을 한글로 변경하였고 캡틴아메리카 동영상을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영상으로 변경하여 청소년들이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활동지의 불필요하고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수정하여 집단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보호자교육에 운영방법을 추가하여 지도자가 교육을 구조화하여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후기에서는 8회기의 강점인식과 낙관성 증진 활동이 어떻게 9회기의 진로 탐색 활동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안내하기 위해 지도자에게 8회기 각 활동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9회기에서는 명함 만들기 활동이 한 회기 안에 실시하기에는 다소 분량이 큰 활동이라는 감수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 미래의 웹툰 만들기로 활동을 대체하였다. 또한 먼 미래의 계획을 세우기보다 단기목표부터 중·장기목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의 내 모습, 6개월 후의 내 모습, 1년 후의 내 모습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30년 후 미래까지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계획한 미래의 모습을 위해 지금 내가 할 일을 공유하게 하여, 비행을 극복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활동을 추가하였다. 마지막 회기인 10회기에서는 전문가 감수 의견을 반영하여 비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활동을 계획해볼 수 있도록 나와의 약속 선언문에 한 가지 항목을 추가하였다.

표 23. 비행청소년 집단상담 개입 최종 매뉴얼 전체 개요

구분	회기	주제	목표	활동내용
오프닝	1	반갑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소개 및 서약서 작성 집단원의 친밀감, 참여동기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소개 및 서약서 작성 사전검사 실시 자기소개하기: Who am I 감사수첩 활동 안내 (회기주제에 맞게 설정)
법교육	2	법, 그것이 알고 싶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이해 법 관련 Q&A 및 사례를 통해 범죄의 심각성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년사건 처리절차 알아보기 청소년 범죄 관련 사례 토의 감사수첩 작성하기 (회기주제에 맞게 설정)
자기 탐색	3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의 인생과 나의 감정에 대한 이해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생그래프 그리기 인생그래프 인터뷰하기 감사수첩 작성하기 (회기주제에 맞게 설정)

구분	회기	주제	목표	활동내용
정서 조절	4	몸으로 말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감정 이해 •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 습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감정 이해하기 • 폭력, 절도 동영상 속 가해자의 감정 이해하기 • 감정 조절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노 및 절도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 습득하기 - 나만의 대처방식 계획하기 • 감사수첩 작성하기 (회기주제에 맞게 설정)
사회 기술	5	나는 배우다 - 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짧은 단편 연극을 각자 역할을 맡아 완성해 봄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협력하는 기술을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분 연극 제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나리오 주제 선정하기 - 연극 제작 • 감사수첩 작성하기 (회기주제에 맞게 설정)
사회 기술	6	나는 배우다 - I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공연을 통해 자신들이 했던 활동에 대한 성취감향상 • 시상상을 통한 자기효능감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공연 • 시상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상장 만들기 - 시상식 및 소감 인터뷰 • 감사수첩 작성하기 (회기주제에 맞게 설정)
행동 계획	7	내 마음속 영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알아보기 •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일치하는 행동계획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구선수 손흥민 동영상 • 내 마음속 영웅 • 영웅레벨 정하기 • 감사수첩 작성하기 (회기주제에 맞게 설정)
긍정적 자기 인식	8	이 구역의 긍정왕은 바로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점인식을 통한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해 • 감사를 통한 낙관성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어 찾기 퍼즐 • 강점선물하기 • 감사나무 완성하기 • 감사수첩 작성하기 (회기주제에 맞게 설정)
진로 탐색	9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의미와 목표에 대한 인식 • 진로설계 및 구체적 방안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트 찌기 게임 • 롤모델 찾기 • 미래의 내 모습 웹툰 만들기 • 감사수첩 작성하기 (회기주제에 맞게 설정)
마무리	10	새로운 출발을 위한 약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 비행에 빠지지 않기 위한 새로운 행동 약속 • 서로에 대한 지지와 격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드백 선물하기 • 나와 약속 선언문 쓰기 • 소감 나누기 • 감사수첩 작성하기 (회기주제에 맞게 설정)

구분	회기	주제	목표	활동내용
보호자교육	-	보호자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교육 구조화 • 보호자양육태도 점검 (비난, 무관심 등) • 가족 활동 계획을 통한 친밀감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하고 편안한 우리집 만들기 • 가족 저녁식사 계획하기 • 자녀와의 대화기술 Tip
상담자 소진 관리	-	상담자 태도, 자기점검, 소진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자 태도 • 상담자의 자기점검 • 상담자의 소진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청소년의 특성 이해 • 상담자의 도움이 되는 태도와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 • 상담자의 촉진행동 • 상담자의 소진예방 가이드

V. 논 의

본 연구는 절도와 폭력으로 인해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비행의 예방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구체적으로 비행청소년의 긍정적인 자가지각과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키고 공격성을 낮추기 위해 본 프로그램의 개발이 진행되었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김창대 등(2011)이 제안한 프로그램 개발모형을 적용하여, 문헌연구, 현장전문가 및 비행청소년 심층인터뷰와 면접, 시범운영, 현장 및 학계 전문가 평가 등을 실시하였다.

기획단계 및 구성단계에서는 비행청소년에 관한 문헌 및 프로그램들을 개관하고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Wee센터 등 청소년 전문기관에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CYS-Net 종합상담시스템을 통해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여 비행청소년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의 목표 및 구성 원리를 도출한 후 프로그램 개발진의 회의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세부내용과 활동지 등을 구성하고 프로그램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매뉴얼로 총 10회기로 구성되었으며, 단계별로 상담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상담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었다. 첫째, 상담 초기는 1회기에서 3회기에 해당되며, ‘상담구조화’, ‘라포형성’, ‘부정적인 감정해소’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특히 비행청소년 내담자와 관계형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에 초기단계에서는 ‘라포 형성’을 위한 상담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둘째, 중기단계는 4회기에서 7회기에 해당되며, ‘비행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 ‘정서조절’, ‘대안행동 탐색’이 중요한 목표이며, 특히 비행청소년의 자기 통제력을 키우고, 친 사회기술을 증진하면서 대안행동을 학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후기 단계는 8회기에서 10회기에 해당되며, ‘긍정적인 삶의 태도’, ‘진로 및 미래계획 강화’ 등이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어 비행청소년이 자신의 장점을 찾고, 긍정적인 지각을 높이고, 비행청소년 중 성공모델을 통해 진로탐색 및 미래계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

로 보호자 교육 또한 본 프로그램은 회기별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도 무방하지만, 모듈형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법 교육 등의 내용과 선택에 의해 포함될 수 있는 심리·사회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최종 제작될 매뉴얼의 수혜자인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첫째, 본 프로그램은 비행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기지각을 향상시키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소유에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미술 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긍정적인 자기상이 증진되었음을 밝힌 길은영(20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비행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총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하위요인 중에서는 충동성이 유의하게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조절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켰음을 밝힌 현문정(2014)의 연구와 절도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단기 집중 절도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역기능적 충동성이 감소한 천원기(2015)의 연구결과, 그리고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이 해결중심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감정통제가 높아졌음을 검증한 송성자와 정문자(2002)의 연구결과와도 큰 틀에서 일치한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비행청소년의 공격성 총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격성의 하위요인 중 신체적 공격성과 적대감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행청소년의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공격성의 총점이 낮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송혜정(2013)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사용자인 청소년상담자 4명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후 참가자 관점 평가척도를 사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먼저, 프로그램의 회기별 내용 적합도는 평균 4.47점, 단계별 내용 적합도는 초기단계 평균 4.50점, 중기단계 평균 4.56점, 후기단계 평균 4.41점으로 나타났다. 운영 적합도의 경우 5점 만점에 평균 4.25점,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3.75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전문가 감수 결과에서도 프로그램의 회기별 내용 적합도는 평균 4.80점, 단계별 내용 적합도는 초기단계 평균 4.67점, 중기단계 평균 4.83점, 후기단계 평균 5점으로 나타났다. 운영 적합도와 효과성은 5점 만점에 평균 5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에 대한 서술식 평가에서는 구체적인 수정·보완사항이 나타났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져 상담자의 역량에 따라 운영시간

이나 방법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각 회기별 활동에서 지도자의 구체적인 가이드가 필요하다. 둘째 재범예방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변화의지에 대한 점검이나 의지 등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매회기 마무리에서 소감나누기를 할 때 특별히 회기 목표와 관련하여 성찰해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비행 청소년의 집단 상담은 다른 상담과 달리 상담자의 소진이 예상되기에 비협조적인 집단원이 있을 경우 상담자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Tip과 소진예방을 위한 방안에 관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각 회기별로 구체적인 상담자 운영 Tip과 함께 회기별 소감을 나눌 때, 회기의 목표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여 집단원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담자 소진관리 부분을 추가하여 최종 매뉴얼이 확정되었다.

비행 청소년의 상담개입 프로그램과 매뉴얼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다양한 유형의 비행 행동 중에서도 절도와 폭력이라는 비행 유형에 초점을 두어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절도와 폭력은 비행 유형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비행과 중복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유형이다(법무연수원, 2019).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비행 프로그램으로서 전체 비행유형을 다루지는 않지만 대표적인 유형에 초점을 두어 개발되어 활용도 차원에서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이론적 검토나 선행 프로그램 분석 뿐 아니라 해당 비행 청소년들에게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전문가 및 프로그램 수혜 대상 학생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에 따른 효과성 검증 등 과학적인 개발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내·외 여러 연구를 통해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나 그 효과의 크기가 연구마다 차이가 크고, 안정적이지 못하다(손병덕, 2010). 이러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대상자 및 프로그램 요소를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이러한 검토 과정은 기존 연구와 차별화한 것이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 과정을 거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목표가 어느 정도로 달성되었는지, 프로그램 내용요소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참여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점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비행청소년의 긍정적 자기지각, 자기통제력 중에서 충동성, 공격성 중에서도 신체적 공격성과 적대감에서는 사전검사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된 사후검사 점수를 확인하였다. 비행청소년에게서 부족하거나 문제가 되었던 부분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내용 요소를 추출하고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유의한 정도의 향상이나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였기에, 추후 본 조사에서는 보다 엄격하고 정확한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프로그램은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토론이나 글쓰기 같은 활동이 비행 청소년의 흥미나 관심, 참여를 낮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체험과 활동 위주의 내용요소를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내용차원에서 비행 행동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부정정서나 통제력 부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 보다는 희망과 낙관성과 같은 긍정정서, 자기효능감이나 긍정적 자기지각 등과 같은 긍정심리나 사회정서역량 기반 내용요소가 많이 투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비행 청소년이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행위자가 될 수 있도록 구체화된 교육 활동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본 프로그램은 회기별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모듈식으로 구성하여 현장의 실천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프로그램의 효과는 실행의 충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모듈형식의 프로그램은 현장의 요구와 수요, 프로그램 실행의 현실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실제로 활용도 뿐 아니라 효과성 면에서도 적절한 접근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듈 형식의 프로그램은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법 교육 등의 내용과 함께 선택에 의해 포함될 수 있는 심리·사회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섯째, 본 프로그램에는 비행 청소년들을 대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두 주체인 보호자와 상담자가 비행 청소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보호자 교육과 상담자 소진관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호자와 상담자를 위한 교육과 관리는 비행청소년의 변화에 필수적이다. 특히 보호자는 자녀의 특성과 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녀의 법적 절차를 경험하면서, 보호자로서의 효능감이 많이 떨어져 있고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상담자 역시 비행 청소년으로부터 오는 부정적 에너지와 감정 표출로 인해 소진 상태에 이를 수 있으며 회복에 필요한 자원이나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화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시범운영을 통한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결과는 현실적으로 촉박한 연구일정으로 인해 제한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통제집단과의 비교를 통한

엄격한 연구 설계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참여자 수가 적다보니, 통계적으로 변화나 차이를 유의한 수준으로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추후에서는 시범운영을 통해 통계적으로 안정적인 숫자의 참여자를 확보하고 보다 통제집단을 둔 엄격한 실험설계를 적용하여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프로그램의 매뉴얼은 현장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프로그램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구체적인 상담자 가이드라인의 제시와 예시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 추후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통해 현장 상담자들이 시범운영 해볼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매뉴얼에 담아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곽금주, 문은영 (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6(2), 29-43.
- 권지은 (1998). **청소년 비행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길은영 (2018). 기소 유예 후기 비행청소년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0(4), 137-167.
- 김동민, 이미경, 심용출, 이창호 (2014). 학교폭력 영향 요인 메타분석. **청소년상담연구**, 22(2), 441-458.
- 김성이, 강지원, 구분용, 황순길 (1996). **청소년 비행상담**.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성재, 오상은, 은영, 손행미, 이명선, 공역 (2007). **질적 연구로서의 포커스 그룹**. 서울: 군자출판사.
- 김자경, 손정락 (2007). 의미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우울, 삶의 목적 및 비행충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1), 1-19.
- 김준호, 이동원 (1997). **청소년의 긴장과 비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노성호, 이성식, 곽대경, 박정선, 이동원, 박철현, 황지태, 박성훈, 최수형 (2018). **청소년비행론**. 서울: 청목출판사.
- 김창대, 김형수, 신을진, 이상희, 최한나 (2011). **상담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서울: 학지사.
- 김현수, 김현실 (2001). 재범 비행 청소년의 예측인지 분석. **신경정신의학**, 40(2), 279-291.
- 김효정 (2005). **재 비행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적 유능성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성호 (1993). **한국의 청소년 비행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인경, 정송, 홍세희 (2014).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아동·청소년 비행 유형 분류 및 영향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5(4), 211-240.
- 대검찰청 (2017). **2017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 대검찰청 (2018). **2018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 류정미 (2016).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인문사회**, 21(7), 857-872.
- 문은주 (2011). 고등학생용 분노조절 프로그램 개발. **중등교육연구**, 59(2), 443-480.

- 박진희 (2012). **청소년의 비행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주미, 지승희, 김동민, 박재연, 김은영, 김태성, 허진석 (2007). **회복적 보호지원 운영모형 개발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범죄예방정책국 (2019. 12).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
<http://www.cppb.go.kr/cppb/578/subview.do>에서 검색.
- 법무연수원 (2015). 2014 범죄백서. 충북: 법무연수원.
- 법무연수원 (2019). 2018 범죄백서. 충북: 법무연수원.
- 변관우 (1992). **차별교제이론의 인과구조모델에 관한 경험적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수균, 권석만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87-501.
- 서혜석, 채인석 (2015). 성폭력 가해청소년의 성폭력통념 수용도와 성태도 및 성지식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교정연구**, 67(8), 207-232.
- 손병덕 (2010). 범죄청소년 재범예방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과 함의, **한국범죄학**, 4(1), 3-29.
- 손재환, 이대형, 이현진, 유춘자, 정진선, 김수현 (2013). **학교폭력 가·피해 상담전략 모형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송성자, 정문자 (2002).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해결중심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8, 302-332.
- 송영지, 최송식 (2016). 청소년기 재비행 후 적응과정에서의 경험. **청소년상담연구**, 24(1), 65-88.
- 송주영, 한영선 (2014). 한국 남자 청소년의 범죄지속 위험예측 요인분석: 데이터마이닝의 사결정 나무 적용. **형사정책연구**, 25(2), 239-260.
- 송혜정 (2013).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공격성, 분노조절, 자아존중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지선, 김정남 (2013).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2001년~2011년 국내 석·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3), 147-174.
- 양종국, 김충기(2002). 비행 청소년의 비행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재비행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0(2), 101-121.
- 여성가족부 (2017).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원호택(1991). **청소년 범죄행동 유발 요인에 대한 심리적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유경아 (2017). **사회자본과 청소년 비행화 과정에 대한 근거 이론적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성경 (1999). **청소년 탈비행화 조력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전략**.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유성경, 송수민, 임소영 (2000). **청소년 비행 예방·개입 전략집-비행에서 탈비행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유성경, 이소래 (2001). 청소년 비행수준에 따른 위험요소 및 보호요인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187-205.
- 유성경, 이소래, 송수민 (2000). **청소년 비행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유옥문 (2012). **해결중심적 집단미술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여원 (2014). **가정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향숙, 정윤정 (2010). 집단미술치료가 여자소년원 재소 비행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학생생활연구**, 18, 30-77.
- 이경상, 이순례, 박철현 (2007). **청소년 비행의 발전 형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동원 (2003). **소년범죄자의 재범특성에 대한 고찰: 범행의 발전양상과 재범 가능성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15(2), 335-367.
- 이동훈, 김세진, 조미영, 이진현, 방소희 (2011). **청소년 절도행동의 이해: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9(1), 23-47.
- 이명은 (2016). **집단미술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7), 437-452.
- 이성식 (1995). **역할담당 감정으로서의 수치심과 청소년 비행**. **한국사회학**, 29(3), 617-649.
- 이성식 (2006).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주요 이론들의 검증에 관한 연구: 종단적 패널 연구 자료의 분석**. **형사정책연구**, 17, 15-33.
- 이성식, 전신현 (2009). **학업성적과 청소년비행 : 청소년 패널자료를 통한 비행이론들의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2), 91~111.
- 이수정, 이인희 (2005). **청소년의 비행실태와 원인에 대한 이해**. **學生生活研究**, 20, 39-81.
- 이숙영, 이재규, 박승민, 최은영 (1996). **비행청소년 상담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순래 (2005). 지속적 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Moffitt의 이질적 비행발생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6(4), 269-300.
- 이순래 (1995). 범죄지속의 원인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6(3), 269-300.
- 이순희, 허만세 (2015).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의 종단적 인과관계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7(2), 241-264.
- 이정미, 전영자 (2011). 교류분석의 통합적 접근방법을 적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인생태도와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3), 21-44.
- 이지연 (2000). **청소년 비행 교정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호, 양미진, 이희우, 이은경 (2005).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요인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호준 (2006). **참가자 관점 부모교육 평가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영실 (2003). **청소년의 긍정적 자기지각과 주관적 안녕감 및 귀인성향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 (2012). **청년심리학**. 서울: 박학사.
- 정민 (2012). 아틀러의 사회적 관심과 격려 기법에 근거한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 아동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533-553.
- 진혜민, 박병선, 배성우 (2011). 비공식낙인,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경로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121-148.
- 진혜민, 배성우 (2017). 청소년비행 관련 요인들에 관한 메타경로분석. **학교사회복지**, 38, 149-172.
- 천성문, 김명권 (1996). 비행청소년 집단상담의 치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인간이해**, 17, 35-42.
- 천원기 (2015). **절도 비행청소년을 위한 단기집중 절도예방 프로그램 효과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형 (2008). 청소년의 반복적 비행과 비공식적 낙인과의 관계: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연구, 통권 16호**, 145-165.
- 최은진, 육혜련 (2011). 사회적 자본 찾기 프로그램이 비행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증진과 사회적 지지의 인지도 증진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3(3), 1-22.
- 최응렬, 공태명 (2011). 학교 사회자본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분석. **형사사법연구**, 1(1), 97-120.

- 최정아 (2010). 초기 청소년기의 비행과 우울의 상호 인과관계 : 자귀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통한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1(4), 143-169.
- 하창순, 김병석 (2005). 한국 자기 통제력(self-control) 척도의 탐색적 요인 분석. **상담학연구**, 6(4), 1175-1186.
- 한영희, 조아미 (2008). 무단결석 청소년의 생활과 진로. **미래청소년학회지**, 5(3), 29-53.
- 한은영, 이재원 (2013). 청소년의 비행성향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 학교환경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4(3), 323-355.
- 함중환 (1982). **청소년 이해를 위한 접근**. 서울: 상조사.
- 현문정 (2014). **자기조절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dams, M. S., Robertson, C. T., Gray-Ray, P., & Ray, M. C. (2003). Labeling and Delinquency. *Adolescence*, 38(149), 171-186.
- Agnew, R. (1985). Social control theory and delinquency: A longitudinal test. *Criminology*, 23, 47-61.
- Aichorn, A. (1935). *Wayward Youth*. NewYork: Viking Press.
- Akers, R. L. (1985). *Deviant Behavior: A Social Learning Approach*. (3rd ed.), Belmont, Calif.: Wadsworth.
- Akers, R. L. (1994). *Criminological Theories: Introduction and Evaluation*. Los Angeles: Roxbury.
- Akers, R. L., Marvin D. Krohn, Lonn Lanze-Kaduce, & Marcia Radosevich (1979). Social Learning and Deviant Behavior: A General Test of a Specific Theo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4), 635-655.
- Alexander, J., & Parsons, B. (1982). *Functional Family Therapy*. Monterey, CA: Brooks Cole.
- Anderson, N. A.(1968). Likeableness ratings of 555 personality-trait wor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 272-279.
- Andrews, D. A., Zinger, I., Hoge, R. D., Bonta, J., Gendreau, P., & Cullen, F. T. (1990). Does correctional treatment work? A clinically relevant and psychologically informed meta-analysis. *Criminology*, 28, 369-404.
- Arthur, M. W., Hawkins, J. D., Catalano, F. R. Pollard, J. A., & Howze, T. H.(1997). *Six states consortium for prevention needs assessments studies project*, Final report submitted to the Kansas Department of Socialand Rehabilitation Services,

- Alcohol and Drug Services. Seattle, WA; University of Washington, Social Development Research.
- Bandura, A., & Walters, R. (1959). *Adolescent aggression*. New York: Ronald Press.
- Barton, C., & Alexander, J. (1981). Functional Family Therapy. In A. S. Gurman, & D. P. Kniskern (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pp. 403-443). New York: Brunner/Mazel.
- Benson, P. L. (1997). *All kids are our kids: What communities must do to raise caring and responsible children and adolescents*. San Francisco: Jossey-Bass.
- Beyers, J. M., & Lober, R. (2003). Untangling developmental relations between depressed mood and delinquency in male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 247-266.
- Bogenschneider, K. (1996). Family related prevention programs. *Family Relations*, *45*, 127-128.
- Bolton, P., & Holland, A. (1994). Chromosomal abnormalities. In M. Rutter, E. Taylor, & L. Hersov (Eds),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modern approaches* (pp. 152-171). Oxford: Blackwell Scientific.
- Borduin, C. M., Mann, B. J., Cone, L. T., Henggeler, S. W., Fucci, B. R., Blaske, D. M., & Williams, R. A. (1995). Multisystemic treatment of serious juvenile offenders: Long-term prevention of criminality and viole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 569-578.
- Bowlby, J. (1944). Forty-four juvenile lives: Their characters and home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25*, 1-57.
- Buss, A. H., & Pett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52-459.
- Butcher, D. A. (2000). *The relation shops among engagement in youth development programs, risk and protective factor, and problem behaviors: An exploratory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tah University.
- Carr, A. (1999). *The Handbook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A Contextual Approach*. London: Routledge.
- Chamberlain, P. (1994). *Family connections: Treatment foster care for adolescents with delinquency*. Eugene, OR: Castalia.

- Colapinto, J. (1991). Structural family therapy. In A. S. Gurman, & D. P. Kniskern (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2*, pp. 417-443). New York: Brunner Mazel.
- Compas B. E., Hinden B. R. & Gerhardt C. A. (1995). Adolescent development: Pathway and processes of risk and resilien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6*, 265-93.
- Conduct Problems Prevention Research Group. (2015). Impact of early intervention on psychopathology, crime, and well-being at age 25.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72*, 59-70.
- Cowen, E. L., & Work, W. C. (1988). Resilient children, psychological wellness, and primary preven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6*(4), 591-607.
- Crean, H. F., & Johnson, D. B. (2013). Promoting Alternative Thinking Strategies (PATHS) and elementary school aged children' s aggression: results for a cluster randomized trial.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52*, 56-72.
-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 74-101.
- De Vries, S. L. A., Hoeve, M, et al. (2015). Practitioner Review: Effective ingredients of prevention programs for youth at risk of persistent juvenile delinquency – recommendations for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6*(2), 108-121.
- Dodge, K. A., Bierman, K. L., Coie, J. D., Greenberg, M. T., Lochman, J. E., McMahon, R. J., Pinderhughes, E. E., & Conduct Problems Prevention Research Group (2015).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72*(1), 59-70.
- Dodge, K. A., Godwin, J., & Conduct Problems Prevention Research Group. (2013). Social-information-processing patterns mediate the impact of preventive intervention on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Psychological Science, 24*(4), 456-465.
- Eaton, D. K., Brener, N., & Kann, L. K. (2008). Associations of health risk behaviors with school absenteeism does having permission for the absence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School, 78*(4), 223-229.
- Edwards, D., Hunt, M. H., Meyers, J., Grogg, K. R., & Jarrett, O. (2005). Acceptability and student outcomes of a violence prevention curriculum.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26*(5), 401-418.

- Farrington, D. P. (1995) The Twelfth Jack Tizard memorial Lecture. The development of offending and antisocial behaviour from childhood: key findings from the Cambridge Study in Delinquent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6, 929-964.
- Feiner, R. D., Brand, S., Adan, A. M., Mulhall, P. F., Flowers, N., Sartain, B., & Dubois, D. L. (1994). Restructuring the ecology of the school as an approach to prevention during school transitions: Longitudinal follow-ups and extensions of the School Transitional Environment Project (STEP). *Prevention in Human Services*, 10(2), 103-136.
- Fishbein, D. B., A. Kemp, A., Dawson, J. E., Greene, N. R., Redus, M. A., & Fields, D. H. (1989). Human ehrlichiosis: Prospective active surveillance in febrile hospitalized patients. *The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 160, 803-809.
- Frey, K. S., Nolen, S. B., Edstrom, L. V. S., & Hirschstein, M. K. (2005). Effects of a school-based social-emotional competence program: Linking children's goals, attributions, an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6(2), 171-200.
- Fried, S., & Fried, P. (1996). *Bullies and victims: Helping your child through the schoolyard battlefield*. New York: M. Evans and Company.
- Garnezy, N. (1993). Children in poverty :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127-136.
- Gendreau, P. (1996). The principles of effective intervention with offenders. In A. T. Harland (ed.), *Choosing correctional interventions that works: Defining the demand and evaluating the supply* (pp. 117-130). Newbury Park, CA: Sage.
- Glick, B. (1996). Aggression replacement training in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Hatherleigh guide to child and adolescent therapy*, 5, 191-226.
- Glueck, Sheldon., and Eleanor Glueck(1950).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Cambridge. Mass: Marvard University Press.
- Goldstein, A. P., & Glick, B. (1994). Aggression replacement training: Curriculum and evaluation. *Simulation & Gaming*, 25(1), 9-26.
- Gordon, D.A., Arbuthnot, J., Gustafson, K.E., & McGreen, P. (2007). Home-based behavioral-systems family therapy with disadvantaged juvenile delinquent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6, 243-255.

- Gore, S. & Eckenrode, J. (1996). *Context and process in research on risk and resilience* In R. J. Haggerty, L. R. Sherrod, N. Garmezy, M. Rutter, (Eds.), *Stres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ttfredson, Michael. and Travis Hirschi(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Alto,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asmick, H. G., Tittle, C. R., Burski, R. J., & Amekiev, B. K. (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5-29.
- Greenberg, M. T., & Kusché, C. A. (2006). *Building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The PATHS curriculum.
- Grossman, D. C., Neckerman, H. J., Koepsell, T. D., Liu, P. Y., Asher, K. N., Beland, K., ... & Rivara, F. P. (1997). Effectiveness of a violence prevention curriculum among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ama*, 277(20), 1605-1611.
- Hatcher, R. M., Palmer, E. J., McGuire, J., Hounsome, J. C., Bilby, C. A., & Hollin, C. R. (2008). Aggression replacement training with adult male offenders within community settings: a reconviction analysis. *The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 psychology*, 19(4), 517-532.
- Hawkins, J. D. (1995). Controlling crime before it happens: Risk-focused prevention.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Journal*, 229(4), 10-18.
- Hayes, H. (2005). Assessing reoffending in restorative justice conference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38, 77-101.
- Henggeler, S. W., & Borduin, C. M. (1990). *Family therapy and beyond: A multisystemic approach to treating the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Pacific Grove, CA: Brooks Cole.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Free Press.
- Hirschi, T., & Gottfredson, M (1993). Commentary: Test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1), 47-54.
- Humphrey, N., Barlow, A., Wigelsworth, M., Lendrum, A., Pert, K., Joyce, C. et al. (2016). A cluster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the Promoting Alternative Thinking Strategies (PATHS) curriculum.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8, 73-89.

- Hutching, B., & Mednick, S. A. (1977). Criminality in adoptees and their adoptive and biological parents: A pilot study. In S. A. Mednick & K. O. Christiansen (Eds.), *Biosocial bases of criminal behavior* (pp. 127-141). New York: Gardner Press.
- Jensen, Gary F(1972). Parents, Peers, and Delinquent Action: A Test of the Differential Association Perspective.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3), 562-575.
- Jessor, R., Van Den Bos, J., Vanderryn, J., Costa, F. M., & Turbin, M. S.(1995). Protective Factors i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 Moderator Effects and Developmental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31(6), 923-933.
- Jones, C.D., Lowe, L.A., & Risler, E.A. (2004). The effectiveness of wilderness adventure therapy programs for young people involved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Residential Treatment for Children and Youth*, 22, 53-62.
- Jones, M., & Ross, D.L. (1997). Is less better? boot camp, regular probation and rearrest in North Carolina.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1, 147-161.
- Kirby, L. D., & Fraser, M. W. (1997).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In M. W. Fraser (Ed.),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An ecological perspective*, 10-33. Washington, DC: NASW Press.
- Koehler, J.A., Losel, F., Akoensi, T.D., & Humphreys, D.K. (2013).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n the effects of young offender treatment programs in Europe.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9, 19-43.
- krueger R. A., & Casey M. A. (2000).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Kumpfer, K. L., & Brown, J. (2011). Strengthening Families Program. Retrieved from <http://www.strengtheningfamiliesprogram.org/>
- Landenberger, N. A., & Lipsey, M. W. (2005). The positive effects of cognitive-behavioral programs for offenders: A meta-analysis of factors associated with effective treatment.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1, 451-476.
- Lange, J. (1930). *Crime as destiny*.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 Latimer, J. (2001). A meta-analytic examination of youth delinquency, family treatment, and recidivism.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43, 237-253.
- Lee, D. Y., Park, S. H., & Uhlemann, M. R. (2001). *Self and other ratings of professional helpers and their peers*. A research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American

- Psychological Association, Aug 24-28, San Francisco, CA.
- Lee, S. R. (1993). Reintegrating Youthful Offenders into Communities: An Empirical Examination of Braithwaite's Theory on Reintegrative Shaming, Dissertation.
- Lemert, E. M. (1972). *Human Deviance, Social Problems and social Control*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Lewis, D. O., Yeager, C. A., Cobham-Portorreal, C. S., Klein, N., Showalter, C., & Anthony, A. (1991). A follow-up of female delinquents: Maternal contributions to the perpetuation of devia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0*, 197-201.
- Lipsey, M. W. (2009). The primary factors that characterize effective interventions with juvenile offenders: A meta-analytic overview. *Victims and Offenders, 4*, 124-147.
- Liska, A. E., & Reed, M. D. (1985). Ties to conventional institutions and delinquency: Estimat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0*(4), 547-560.
- Littell, J. H., Popa, M., & Forsythe, B. (2005). Multisystemic therapy for social,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in youth aged 10-17. *Campbell Systematic Reviews, 1*(1), 1-63.
- Lochman, J. E., Baden, R. E., Boxmeyer, C. L., Powell, N. P., Qu, L., Salekin, K. L., & Windle, M. (2014). Does a booster intervention augment the preventive effects of an abbreviated version of the coping power program for aggressive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2*, 367-381.
- Lochman, J. E., Powell, N., Boxmeyer, C., Andrade, B., Stromeyer, S. L., & Jimenez-Camargo, L. A. (2012). Adaptations to the coping power program's structure, delivery settings, and clinician training. *Psychotherapy, 49*, 135-142.
- Lochman, J. E., & Well, K. C. (2002a). Contextual social-cognitive mediators and child outcomes: a test of the theoretical model in the Coping Power Program.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4*, 971-993.
- Lochman, J. E., & Wells, K. C. (2002b). The Coping Power program at the middle-school transition: universal and indicated prevention effect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 16*, S40-S54.
- Loeber, R. (1990). Development and risk factors of juvenile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Clinical psychology review, 10*(1), 1-41.

- MacKenzie, D. L., Wilson, D. B., & Kider, S. B. (2001). Effects of correctional boot camps on offending.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78, 126-143.
- Madanes, C. (1991). Strategic Family Therapy. In A. Gurman, & D. Kniskern (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11*, 396-416. New York: Brunner Mazel.
- Maguin, E., & Loeber, R. (1996). Academic performance and delinquency. *Crime and justice*, 20, 145-264.
- Masten, A. S. (1994). Resilience in individual development: Successful adaptation despite risk and adversity. In M. C. Wang, & E. W. Gordon (Eds.), *Educational resilience in inner-city America: Challenges and prospects*. Hillsdale, NJ: Erlbaum.
- Masten, A. S., & Coatsworth, J. D. (1998).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s: Lessons from research on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53(2), 205.
- Matsueda, Ross. L.(1992). Reflected appraisals, parental labeling, and delinquency: Specifying a symbolic interactionist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7(6). 1577-1611.
- McNeal, R. B. (1999). Parental involvement as social capital: Differential effectiveness on science achievement. *Truancy, and dropping out, Social Forces*, 78(1), 117-144.
- Mihalic, S. F., & Irwin, K. (2003). Blueprints for violence prevention: From research to real-world settings—factors influencing the successful replication of model programs.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1(4), 307-329.
- Moffitt, T. E. (1993a). Adolescent-limited and life course 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674-701.
- Moffitt, T. E. (1993b). The neuropsychology of conduct disorde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135-151.
- Moran, P. B., & Eckenrode, J. (1992). Protectiv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mong adolescent victims of maltreatment. *Child Abuse and Neglect*, 16(5), 743-754.
- Morgan, D. L. (1997). *The focus group guidebook* (Vol. 1). Sage publications.
- Nottelmann, E. D., Susman, E. J., Inoff-Germain, G., Cutler, G. B., Loriaux, D. L. & Chrousos, G. P. (1987). Developmental processes in early adolescenc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 adjustment problems and chronological age, pubertal stage, and

- puberty-related serum hormone levels. *Journal of Pediatrics*, *110*, 473-480.
- Nugent, W. R., Williams, M., & Umbreit, M. S. (2003). Participation in victim-offender mediation and the prevalence of subsequent delinquent behavior: A meta-analysis. *Utah Law Review*, *137*, 137-166.
- Nugent, W. R., Williams, M., & Umbreit, M. S. (2004). Participation in victim-offender mediation and the prevalence of subsequent delinquent behavior: A meta-analysi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4*, 408-416.
- Patrick, S., Marsh, R., Bundy, W., Mimura, S., & Perkins, T. (2004). Control group study of juvenile diversion programs: An experiment in juvenile diversion-the comparison of three methods and a control group. *The Social Science Journal*, *41*, 129-135.
- Patterson, G., Reid, J., & Dishion, T. (1992). *A social learning approach. IV. Antisocial Boys*. Eugene, OR: Castalia.
- Petrosino, A., Turpin-Petrosino, C., & Buehler, J. (2003). Scared straight and other juvenile awareness programs for preventing juvenile delinquency: A systematic review of the randomized experimental evidenc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89*, 41-62.
- Polakowski, M. (1994). Linking self-and social control with deviance: illuminating the structure underlying a General Theory of Crime and its relation to deviant activit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0*, 4-77.
- Pollard, J. A., Hawkins, J. D., & Arthur, M. W. (1999). Risk and protection: Are both necessary to understand diverse behavioral outcomes in adolescence?. *Social work research*, *23*(3), 145-158.
- Ramirez, A. Y. F. (2003). Dismay and disappointment: Parental involvement of latino immigrant parents. *Urban Review*, *35*(2), 93-110.
- Sampson, R. J., Raudenbush, S. W., & Earls, F.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5328), 918-924.
- Schwalbe, C.S., Gearing, R.E., MacKenzie, M.J., Brewer, K.B., & Ibrahim, R. (2012). A meta-analysis of experimental studies of diversion programs for juvenile offenders. *Clinical Psychology Review*, *32*, 26-33.
- Seguin J. R., Pihl R. O., Harden P. W., Tremblay R. E., & Boulerice B. (1995). Cognitive and neuro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hysically aggressive boy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 614-624.

- Shapiro, S., & Hynd, G. (1995). The psychobiological basis for conduct disorder. *School Psychology Review*, 22, 386-402.
- Sorensen, L. C., Dodge K. A., & The Conduct Problems Prevention Research Group (2016). How does the Fast Track intervention prevent adverse outcomes in young adulthood? *Child Development*, 87(2), 429-445.
- Spivack, G., & Shure, M. B. (1982). The cognition of social adjustment: Interpersonal cognitive-problem-solving-thinking. In B. B. Lahey, & A. E. Kazdin (Ed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5, 323-372. New York: Plenum.
- Steiner, H., Cauffman, E., Duxbury, E. (1999). Personality traits in juvenile delinquents : Relation to criminal behavior and recidivism. *Journal of Amrerica Academic Child Adolescent Psychiatry*, 38(3), 56-262.
- Szapocznik, J., & Kurtines, W. (1989). *Breakthroughs in Family Therapy with Drug Abusing Problem Youth*. New York: Springer.
- Taub, J. (2002). Evaluation of the Second Step violence prevention program at a rural elementary school. *School Psychology Review*, 31(2), 186-200.
- Walker, H. M., Horner, R. H., Sugai, G., Bullis, M., Sprague, J. R., Bricker, D., & Kaufman, M. J. (1996). Integrated approaches to preventing antisocial behavior patterns among school-age children and youth.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4(4), 194-209.
- Weiner. I. B.(1982).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New York : John Wiley & Sons.
- Werner, E. E. (1989). High-risk children in young adulthood: A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32 yea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1), 72-81.
- Wilson, H. A., & Hoge, R. D. (2012). The effect of youth diversion programs on recidivism: A meta-analytic review.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40, 497-518.
- Wilson, S. J., & Lipsey, M. W. (2000). Wilderness challenge programs for delinquent youth: A meta-analysis of outcome evaluation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3, 1-12.
- Wu, L. T., and J. C. Anthony (1999). Tobacco Smoking and Depressed Mood in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9(12), 1837-1840.

부 록

1. 현장전문가 대상 인터뷰 질문지
2. 비행청소년 대상 인터뷰 질문지
3. 비행청소년 대상 시범운영 효과성 설문지
4. 비행청소년 상담개입 프로그램 전문가 자문 및 감수 질문지

비행청소년 상담경험이 있는 현장전문가 대상 인터뷰 질문지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등졸업 ② 학사재학 ③ 학사졸업
④ 석사재학 ⑤ 석사졸업 ⑥ 박사 이상

4. 귀하의 전공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상담(심리)학 ② 사회사업(복지)학 ③ 교육학 ④ 청소년학 ⑤ 아동(복지)학
⑥ 기타()

5. 귀하가 현재 근무하시는 기관은 어떻게 되십니까?()

6. 귀하의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팀원급 ② 팀장급 ③ 부장급 ④ 기관장 ⑤ 청소년동반자 ⑥기타()

7. 귀하의 상담경력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3년 미만 ③ 3년 이상 ~ 5년 미만
④ 5년 이상 ~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 15년 미만
⑥ 15년 이상 ~ 20년 미만 ⑦ 20년 이상

8. 귀하가 경험한 비행청소년 개인 상담 사례의 횟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 ① 1사례 ② 1사례 이상 ~ 3사례 미만 ③ 3사례 이상 ~ 5사례 미만
④ 5사례 이상 ~ 10사례 미만 ⑤ 10사례 이상 ~ 15사례 미만
⑥ 15사례 이상 ~ 20사례 미만 ⑦ 20사례 이상

9. 귀하가 경험한 비행청소년 집단 상담 횟수는 얼마나 되십니까?(1집단-15시간 기준)

- ① 1집단 ② 1집단 이상 ~ 3집단 미만 ③ 3집단 이상 ~ 5집단 미만
④ 5집단 이상 ~ 10집단 미만 ⑤ 10집단 이상 ~ 15집단 미만
⑥ 15집단 이상 ~ 20집단 미만 ⑦ 20집단 이상

10. 비행 청소년 상담 개입 관련하여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있다면) 어떤 주제의 교육이었나요? 교육에서 도움을 받으신 것은 무엇인가요?

1. 상담하였던 비행청소년의 특성은 어떠하였나요?

- 1-1. 비행 유형은 어떠하였나요?
1-2. 비행 청소년의 주된 호소문제(위험요인)는 무엇이었나요?
1-3. 비행 청소년의 보호요인은 무엇이었나요?
1-4. 비행 유형별 청소년들의 특성은 어떠하였나요?(공통점, 차이점)

2. 비행 청소년들에게 전반적으로 어떠한 접근으로 상담하였나요?

- 2-1. 비행 청소년들에 대해 사례 개입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2-2. 어떤 접근방법이 효과적이었나요?
2-3. 어떤 접근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았나요?
2-4. 위기 개입(전문 기관 연계 등)을 했다면,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였나요?

3. 비행 청소년 상담에서 비행유형 또는 비행수준 별로 나누어 볼 때 어떤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 3-1. 비행유형별로 비행 청소년 상담 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예, 폭행, 절도)
3-2. 비행수준별로 비행 청소년 상담 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예, 경범죄, 중범죄)

4. 비행 청소년 상담의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서 볼 때 어떤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 4-1. 비행 청소년 초기 상담 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4-2. 비행 청소년 중기 상담 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4-3. 비행 청소년 후기 상담 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5. 비행 청소년의 상담개입 시 효과적 개입 및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5-1. 비행 청소년 상담 및 치료 시 가장 핵심적인 치료적 요소는 무엇인가요?
(예, 공감 및 경청지지 등)
5-2. 비행 청소년 상담 과정에서 극복하기 어려웠던 장애요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예, 부모의 무관심, 외부기관 연계 과정, 예산부족, 소속기관의 소극적 태도, 연계기관에 대한 정보부족, 물리적 어려움 등)

- 5-3. 비행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그 이외의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5-4. 상담자로서 비행 청소년 상담 시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예, 관련 교육 부재, 교육 주제 및 내용의 제한, 슈퍼비전/컨설팅 부족 등)
6. 비행 청소년 상담 개입 매뉴얼(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제작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 6-1. 비행 청소년을 개입하거나 전문기관에 연계하기 위하여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6-2. 비행 유형에 따라 집단 상담프로그램 개입 흐름도에 반드시 포함 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기존의 비행 청소년 집단 상담프로그램의 제한점을 통한 개선사항, 비행 유형별 모듈별 제작에 따른 필수포함사항 등)
- 6-3. 비행 청소년 집단 상담프로그램 매뉴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예, 위기 개입 및 연계 관련 내용, 비행 후 사회적응 개입, 진로, 가족 등 다른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개입 등)
- 6-4. 비행 청소년 집단 상담프로그램 매뉴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이론적 원리 및 구체적인 기법이 무엇인가요?
7. 비행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해 귀 기관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 7-1. 비행 청소년이 비행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7-2. 비행 청소년이 비행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원했던 조치는 무엇인가요?
- 7-3. 귀 기관에서 비행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지원하는 조치에는 무엇이 있나요?
(예, 사회 적응교육 및 취업지원 등)

비행청소년 대상 인터뷰 질문지

<인터뷰 및 연구윤리 안내>

안녕하십니까.

- 어렵고 힘들 수 있는 인터뷰임에도 기꺼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비행문제를 극복하고 다시 사회에 재적응 하는 과정을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인터뷰는 비행경험, 비행경험에 대한 상담 및 극복과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귀하의 진솔한 응답은 비행 문제를 가진 청소년 대상 상담매뉴얼을 개발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 인터뷰에 대한 녹음자료는 순수하게 연구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며, 무기명으로 분석 처리될 예정입니다.
- 인터뷰 중 비행경험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응답하기 힘들 경우에는 인터뷰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인터뷰 후 추가적인 상담개입에 대해 담당 상담자와 논의할 수 있습니다.

※ 보내드린 연구참여동의서와 수당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질문>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9~14세 ② 15~18세 ③ 19세~24세 ④ 기타()

3. 귀하의 현재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중학교 재학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재학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생 ⑥ 대학교 졸업 ⑦ 학교밖청소년 ⑧ 중퇴

4. 중퇴를 하였다면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5. 귀하의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1. 다음은 비행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1-1. 처음 비행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1-2. 비행을 계속하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 보조질문

- 주로 어떤 비행을 일으켰었나요?(폭행, 절도, 사기, 성폭행 등)
- 처음 비행을 시작했던 연령은 어떻게 되시나요?
- 비행을 일으켰던 기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 보호처분 횟수는 어떻게 되시나요?
- 어떤 보호처분을 받았었나요?(1호~10호)

2. 다음은 비행관련 개인상담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2-1. 어떤 기관에서 개인상담을 받았었습니까?

2-2. 개인상담 받은 횟수 또는 기간은 얼마나 되셨나요? 그리고 개인상담을 받았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2-3. 개인상담을 통해 변화된 것은 무엇이었나요? (좋아진 것, 깨달은 것 등)

2-4. 비행으로 인해 개인상담을 받으면서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었나요? (상담자의 공감, 분노조절, 충동조절 등)

2-5. 개인상담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점이 아쉬웠고 어떻게 도움받길 원했나요?

3. 다음은 비행 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입니다.

3-1. 비행청소년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어떤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까요?

3-2.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활동이 도움이 되었었나요?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이었나요? 도움이 안 되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4. 다음은 비행문제 극복에 대한 질문입니다.

4-1. 비행을 그만두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4-2. 비행문제를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나요? (친구, 가족, 종교, 상담 등)

4-3. 비행문제 극복과정에서 느꼈던 점과 깨달은 점은 무엇인가요?

4-4. 비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했던 행동들은 무엇이었나요?

스스로 노력했던 일들은 무엇이었나요? (학업, 취업준비, 감정조절, 취미생활, 상담받기 등)

4-5. 주변에 비행을 일으키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그 청소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비행청소년 대상 시범운영 효과성 설문지

1. 인적사항

- ▶ 이름 : _____
- ▶ 나이 : _____ 세
- ▶ 학력 : 중학교 재학 이하 중학교 중단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재학 고등학교 중단 고등학교 졸업
 학업중단 후 무직 대학교 재학 기타(_____)
- ▶ 거주형태
- 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재혼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할머니 혹은 할아버지) 형제와 함께 살고 있음
 시설 거주 기타(_____)

※ 다음을 잘 읽고, 평소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웬만큼 그렇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때로 나는 누군가를 치고 싶은 충동을 통제하기 어렵다	1	2	3	4	5
2. 누군가 화를 한껏 돋구면, 나는 그 사람을 칠지도 모른다	1	2	3	4	5
3. 누군가 나를 때리면, 나도 되받아 친다.	1	2	3	4	5
4.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치고받고 싸우 편이다	1	2	3	4	5
5. 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해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1	2	3	4	5
6. 나를 몰아세운 사람과 주먹다짐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7. 나는 누군가 때리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8. 나는 내가 아는 사람을 위협해 본 적이 있다	1	2	3	4	5
9.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물건을 부순 적이 있다	1	2	3	4	5
10. 나는 친구와 의견이 다를 때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1	2	3	4	5
11.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 충돌이 잦다	1	2	3	4	5
12. 사람들이 나를 짜증나게 하면, 나도 그에 맞서 그들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다.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웬만큼 그렇다	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생각)이 다를 때, 흔히 논쟁을 벌리게 된다.	1	2	3	4	5
14. 친구들은 내가 따지기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1	2	3	4	5
15. 나는 화가 빨리 치밀지만 또 빨리 풀어진다.	1	2	3	4	5
16. 일이 뜻대로 안됐을 때, 나는 화를 참기 어렵다.	1	2	3	4	5
17. 나는 때로 울분이 치밀어 참기 어려워 금방이라도 폭 발해버릴 것 같다.	1	2	3	4	5
18. 나는 쉽게 흥분하지 않는 사람이다.	1	2	3	4	5
19. 나는 화나는 것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1	2	3	4	5
20. 나는 때로 시기나 질투에 차 있다.	1	2	3	4	5
21.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때때로 있다	1	2	3	4	5
22. 다른 사람들은 항상 운이 좋아 보인다.	1	2	3	4	5
23. 나는 때로는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심한 적대감에 휩싸이곤 한다.	1	2	3	4	5
24. 나는 소위 '내 친구'라는 자들이 나에게 대해 몰래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다.	1	2	3	4	5
25. 나는 지나치게 친한 척 하는 사람을 보면 의심이 든다	1	2	3	4	5
26. 나는 때로 사람들이 내가 모르게 나를 비웃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27. 누가 내가 지나치게 친절하면,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된다	1	2	3	4	5

※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주위의 사람들(가족, 선생님, 친구)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정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어느정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나의 행동은 예측하기 어려워서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나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 나는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4. 나는 위험하므로 행동을 감시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5. 나는 폭력적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나는 보호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7. 나는 신체의 질병과 마찬가지로 나의태도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8. 나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9. 나는 차차 정상적인 재활일을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1	2	3	4	5
10. 나는 노력하더라도 나의 생활태도가 개선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 다음 문항을 잘 읽고 평소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기분에 따라 행동을 할 때가 있다.	1	2	3	4	5
2. 장래에 대하여 생각과 노력을 하지 않는다.	1	2	3	4	5
3. 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쾌락을 가져오는 것은 무엇이든 한다.	1	2	3	4	5
4. 먼 미래보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더 가진다.	1	2	3	4	5
5. 내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일들을 자주 피하려고 한다.	1	2	3	4	5
6. 복잡한 일을 포기하거나 물러서려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7. 하기 쉬운 일을 할 때 가장 즐겁다.	1	2	3	4	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8.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과제를 아주 싫어한다.	1	2	3	4	5
9. 때때로 모험을 하면서 내 자신을 시험하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10. 때때로 재미 삼아 위험을 무릅쓸 것이다.	1	2	3	4	5
11. 때때로 내가 곤경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흥분을 느끼곤 한다.	1	2	3	4	5
12. 조금은 위험할지라도 어렵고 흥분되는 일이 더 좋다.	1	2	3	4	5
13. 가능하다면 주로 정신적인 것보다는 육체적인 활동을 선택한다.	1	2	3	4	5
14. 앉아서 생각할 때보다 움직이고 있을 때 항상 좋은 기분을 느낀다.	1	2	3	4	5
15. 독서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활동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1	2	3	4	5
16. 또래에 비해 에너지가 많고 바깥에서 활동적인 것 같다.	1	2	3	4	5
17.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나 자신을 돌보는 편이다.	1	2	3	4	5
18.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동정심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	1	2	3	4	5
19. 다른 사람들의 속을 뒤집히게 했을지라도,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이다.	1	2	3	4	5
20. 내게 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얻으려 할 것이다.	1	2	3	4	5
21. 나는 쉽게 화를 낸다.	1	2	3	4	5
22. 종종 다른 사람으로 인해 화가 나 있을 때 왜 내가 화가 나있는지에 관해 말하기보다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충동을 더 많이 느낀다.	1	2	3	4	5
23. 내가 정말로 화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내게서 떨어져 있는 게 더 낫다.	1	2	3	4	5
24. 어떤 사람과 심각하게 의견이 다를 때 화를 내지 않고 그것에 관해 침착하게 말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1	2	3	4	5

※ 다음 문항을 잘 읽고 평소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지는 다음 20가지 성격특성이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볼 때 나에게 얼마나 들어맞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성격을 묘사하는 아래의 문항들이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볼 때 나 자신에게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 혹은 들어맞지 않는지를 숫자에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내주십시오.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생각해볼 때, 나는 남보다 더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냉정하다	1	2	3	4	5
2. 믿음직스럽다	1	2	3	4	5
3. 남을 잘 도와준다	1	2	3	4	5
4. 거칠다	1	2	3	4	5
5. 지저분하다	1	2	3	4	5
6. 비겁하다	1	2	3	4	5
7. 진실하다	1	2	3	4	5
8. 정직하지 못하다	1	2	3	4	5
9. 생각이 깊다	1	2	3	4	5
10. 공손하다	1	2	3	4	5
11. 신뢰롭다	1	2	3	4	5
12. 이기적이다	1	2	3	4	5
13. 잔인하다	1	2	3	4	5
14. 실증을 잘 낸다	1	2	3	4	5
15. 못믿겠다	1	2	3	4	5
16. 관대하다	1	2	3	4	5
17. 성실하지 못하다	1	2	3	4	5
18. 정직하다	1	2	3	4	5
19. 다뜻하다	1	2	3	4	5
20. 유능하다	1	2	3	4	5

비행청소년 상담개입 프로그램 전문가 자문 및 감수 질문지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학사졸업 ② 석사재학
③ 석사졸업 ④ 박사 이상

4.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 ① 교육학 ② 심리학 ③ 청소년학
④ 사회복지학 ⑤ 기타()

5. 귀하가 상담 관련 업무를 담당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3년 미만
③ 3년 이상 ~ 5년 미만 ④ 5년 이상 ~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 15년 미만 ⑥ 15년 이상 ~ 20년 미만
⑦ 20년 이상

◆ 다음은 선생님의 본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입니다. 의견에 해당하는 부분에 (✓) 표시해주세요.

내 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본 프로그램의 회기별 내용이 회기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 내용이었습니까?	초기	1회기				
		2회기				
		3회기				
	중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후기	8회기				
		9회기				
		10회기				
2. 본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운영하기에 적합하게 개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 본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 대상 집단 상담시 효과가 있을 것 같나요?						

회기별 피드백	회 기	활동내용
	초 기 (1~3회)	장점, 보완할 점, 활용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중 기 (4~7회)	
	후 기 (8~10회)	

◆ 전반적 평가

◆ 기타의견

Abstract

Juvenile crime rates in Korea have been declining in recent years, but on the flip side, there have been worrying trends of increase in brutality, sophistication, and recidivism. The number of Korea's youth crime offenders (ages 10-13 and 14-18) fell from 126,213 in 2008 to 72,759 in 2017, a 42.4% drop in ten years; but among the offenders who were released from juvenile detention centers, the rate of those who ended up back in detention within a year has gone up every year, showing an increase from 9.5% in 2014 to 14.0% in 2016 (Institute of Justice, 2019). By type of crime in youths, the number of property crime offenders increased by 5.3% from 33,659 (38.2%) in 2007 to 33,088 (43.5%) in 2016 while thefts have consistently accounted for 70-80% of youth crimes and assaults and mayhems over 90%, which call for special measures to address these crimes.

In this light, this study set out to develop a group counseling intervention program to prevent recidivism, targeting juveniles under protective disposition due to theft or violence. More specifically, we aimed to improve positive self-perception and self-control, and reduce aggression.

We developed the program in the following steps:

First, in the planning and design phase, we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of existing programs on juvenile delinquency to find implications for our program. Then we had in-depth interviews with field experts including practitioners who had experience running individual/group counseling programs for delinquents at youth counseling centers,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s, and Wee Centers. In-depth interviews with juvenile delinquents were also conducted by recruiting study participants through CYS-Net counseling system. As a result, we first found that an effective counseling intervention would require an approach that focuses on specific traits of each delinquency type while also addressing the common factors regardless of the types. Second, the result showed that it is critical to provide parent coaching to maximize resources for support since family, namely the parents, has great influence on juveniles along with peers. Third, the findings indicated that cognitive and behavioral approaches as well as a focus on problem-solving

would be effective to motivate the participants, and engaging the participants with activities would work better than lectures or writings. Lastly, we identified a need to design intervention by stage—early, middle, and late—as well as the requirement for measures to prevent the counselor’s burnout.

In the program development phase, we defined the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the program based on the analysis above, and developed a draft with detailed plans and activity worksheets through internal meetings. To be more specific, the early stage was defined as the first three sessions, where the primary objectives would be rapport building, structuring, and resolving negative emotions; desired attitudes of the counselor to build relationship with the participants were described in detail. In the middle stage from the 4th to 7th sessions, the key objectives included exploring the delinquency incident, cognitive restructuring, and exploring alternative behaviors, with the focus on improving self-control and pro-social skills, and learning alternative behaviors. The late stage from the 8th to 10th sessions established the objectives of building positive attitudes toward life and developing career/future plans, centering on helping the participants find their strengths, build positive self-perception, and develop plans for their career and future by introducing success stories of former delinquents. Lastly, parent coaching was included in the program design to share the result of the group counseling and provide advice on parenting and communication skills. The program was designed to have a total of 10 sessions, which were divided into early, middle, and late stages for tailored counseling intervention. Of note, while the program can proceed straight ahead from start to finish, the design also allows for modular construction as it consists of both essential elements such as legal training and others including psychological and social training that could be adopted selectively.

Third, in the implementation and assessment phase, we ran a pilot program based on the draft, assessed its effectiveness, and had it reviewed by experts. In order to examine its effectiveness, the pilot program was implemented for seven juvenile delinquents who received a court order to participate. The result showed that this program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helping the delinquents improve their self-perception. Secondly, the participant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self-control. Third, no significant changes were recorded in the total scores of aggression; bu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in its subcategories of physical aggression and hostility. Lastly, when we had four experts from the field and two from academia review the program's content adequacy by session and stage as well as its effectiveness, the feedback was positive with four points on a scale of five, 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We addressed minor areas of improvement that were identified and produced the confirmed, final manual.

The program and manual of this study provide effective tools for youth counselors to prevent recidivism of juvenile crimes and help delinquents with their psychosocial adjustment. In particular, the program's focus on theft and violence would make it more applicable and practical. In order to address remaining limitations and enhance the program's practicality, further work needs to be done to apply a more thorough design, implement the program with a larger number of juvenile delinquents, and validate its effectiveness for higher quality.